

국립국어원 2008-01-65

발간 등록 번호
11-1371028-000046-01

# 다문화가정 대상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보고서

연구책임자  
박 경 래

국립국어원 · 세명대 한국학센터



#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다문화가정 대상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의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08년 12 월 24 일

연구 책임자 : 박 경 래  
공동 연구원 : 곽 충 구  
공동 연구원 : 정 승 철  
공동 연구원 : 김 봉 국  
공동 연구원 : 우 창 현  
보조 연구원 : 이 용 숙  
보조 연구원 : 최 성 진  
보조 연구원 : 금 순 미  
보조 연구원 : 김 남 정  
연구 보조원 : 홍 현 화  
연구 보조원 : 정 길 흥  
연구 보조원 : 백 은 언

세명대학교 한국학센터



# 다문화가정 대상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보고서

## 목 차

I. 연구의 배경 .....	1
II. 연구의 목적과 범위 .....	3
III. 연구의 필요성 .....	4
IV. 연구의 과정과 방법 .....	6
V.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의 타당성 조사 결과 분석 .....	13
1. 학습자에 대한 요구 분석 .....	13
2. 방언 한국어 교육 및 교재의 필요성과 관련한 요구 분석 .....	51
3. 한국어 교사에 대한 요구 분석 .....	58
VI. 방언 한국어 교재 내용과 교재 모형 .....	84
1. 교재 모형 1 .....	84
2. 교재 모형 2 .....	92
VII. 방언 한국어 교재의 목차 내용 .....	99
VIII. 요약 및 결론 .....	103
1. 요약 .....	103
2. 결론 .....	110
IX. 사업의 기대효과 .....	112
[부 록]	
부록 1 [학습자용 설문지] .....	113
부록 2 [한국어 교사용 설문지] .....	119

## [ 표 목차 ]

<표 1> 응답자 거주지 .....	14
<표 2> 출신국가 .....	15
<표 3> 성장 지역 .....	15
<표 4> 자녀 수 .....	16
<표 5> 응답자 나이 .....	17
<표 6> 배우자 나이 .....	17
<표 7> 거주 기간 .....	17
<표 8> 결혼 이주여성의 직업 .....	19
<표 9> 결혼 이주여성의 배우자 직업 .....	20
<표 10> 응답자의 학력 .....	20
<표 11> 배우자의 학력 .....	22
<표 12> 동거 가족 .....	22
<표 13> 배우자 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 .....	23
<표 14> 가족 가운데 제일 편하게 이야기 하는 사람 .....	24
<표 15> 가족들과 이야기 하는 내용 .....	25
<표 16-1> 가족과 이야기하기 싫은 이유 .....	26
<표 16> 가족 중에서 제일 이야기하기 싫은 사람 .....	25
<표 17> 한국생활 가운데 제일 힘든 것 .....	27
<표 18>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 .....	27
<표 19> 부부싸움 이후의 태도 .....	28
<표 20> 명절과 가족행사 .....	29
<표 21> 가족 행사가 싫은 이유 .....	29
<표 22> 이주 여성들이 자주 가는 장소 .....	30
<표 23-1> 가기 싫은 이유 .....	32
<표 23> 이주여성이 가기 싫은 장소 .....	31
<표 24> 이해할 수 없는 한국 문화 .....	32
<표 25> 이웃 주민과의 이야기 정도 .....	33
<표 26> 이주여성의 단체 활동이나 기관 활동 여부 .....	34
<표 27> 이주여성의 학력 .....	34
<표 28> 자녀와 대화하는 언어 .....	35
<표 29> 한국어 숙달도 .....	36
<표 30> 한국어 학습기간 .....	36
<표 31> 한국어 학습 권장자 .....	37
<표 32> 한국어 학습 목적 .....	37
<표 33> 한국어 학습 결과가 유용한 경우 .....	38
<표 34> 한국어 교사 .....	39

<표 35> 한국어 학습 시간 .....	40
<표 36> 주당 한국어 학습 희망 시간 .....	41
<표 37> 한국어 교재의 보완 희망 내용 .....	42
<표 38> 방언을 사용하는 가족 .....	43
<표 39> 모르는 한국말에 대한 대처 방법 .....	43
<표 40> 가족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 이유 .....	44
<표 41> 명절이나 가족행사에 쓰는 말의 이해도 .....	45
<표 42> 방언 사용 정도 .....	45
<표 43-1> 잘 모르는 방언에 대한 대응 방법 .....	47
<표 43> 방언 이해 정도 .....	46
<표 44> 방언을 많이 듣는 곳 .....	47
<표 45> 방언 교육의 필요성 .....	48
<표 45> 방언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과 응답자 거주지와의 관계 .....	51
<표 46> 방언 학습 경험 .....	49
<표 46> 방언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과 방언권과의 관계 .....	52
<표 47> 방언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과 광역 방언권과의 관계 .....	52
<표 47> 영역별 방언 교육의 필요성 .....	50
<표 48>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과 체류 기간과의 관계 .....	53
<표 49> 방언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 정도와의 관계 .....	54
<표 50> 방언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과 한국어 사용능력과의 관계 .....	54
<표 51> 방언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과 한국어 학습 기간과의 관계 .....	55
<표 52> 학력과 한국어 학습 이유와의 관계 .....	56
<표 53> 한국어 사용능력과 한국어 학습 기간과의 관계 .....	56
<표 54> 방언사용 가족과 방언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과의 관계 .....	57
<표 55> 교사들의 교육지 분포 .....	59
<표 56> 한국어 교사들의 교육경력 .....	59
<표 57> 이주여성들의 방언 이해도 .....	60
<표 58> 학습자들의 방언 구사 정도 .....	61
<표 59> 방언 어휘 이해 정도 .....	62
<표 60> 방언을 자주 듣는 곳 .....	63
<표 61> 이주여성들의 방언 학습 필요성 .....	64
<표 62> 학습자들의 방언 학습 필요성 .....	65
<표 63> 한국어 교육 시 방언 교육 여부 .....	65
<표 64> 방언 학습 교재 .....	66
<표 65> 방언을 가르치는 유형 .....	67
<표 66> 방언 교육의 영역 .....	67
<표 67> 방언을 가르치는 시점 .....	68
<표 68> 주당 방언 학습 시간 .....	68

<표 69> 방언 교육의 주체 .....	69
<표 70> 방언 교육 시점 .....	69
<표 71> 적절한 방언 교육 시간 .....	70
<표 72> 방언 교육 시점과 표준어 교육 시점과의 관련 .....	71
<표 73> 방언 한국어 교재의 필요성 .....	72
<표 74> 방언 학습용 교재의 구성 .....	72
<표 75> 방언 한국어에 포함해야 할 영역 .....	73
<표 76> 방언 한국어를 가르칠 주체 .....	74
<표 77> 바람직한 방언 교육 장소 .....	74
<표 78> 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에서 어려워하는 점 .....	75
<표 79>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 .....	76
<표 80> 학습자와 갈등을 빚는 가족 .....	77
<표 81> 학습자와 가족 간에 갈등을 빚는 이유 .....	78
<표 82> 학습자들이 주로 많이 가는 곳 .....	79
<표 83> 이주여성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 문화 .....	80
<표 84> 응답자 성별 분포 .....	81
<표 85> 응답자의 연령대별 분포 비율 .....	82
<표 86>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사의 학력 분포 .....	82
<표 87> 한국어 교사 출신지 분포 .....	83

# I. 연구의 배경

단일민족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살아온 한국 사회는 다인종, 다국적 출신의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그리고 분단 한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새터민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의 한국 사회는 다문화(多文化) 사회로 진입하는 뚜렷한 징후들을 보이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08년 3분기 현재 1,175,429명에 달하고 등록 외국인 수도 854,701명에 달하고 있다. 외국인 비율이 5.6% 이상이면 다문화국가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짧은 기간 동안 국내 전체 거주 인구의 2%를 상회하는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이 비율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sup>1)</sup> 한편, 외국인 근로자는 총 556,746 명이고 이 가운데 단순 기능 인력이 519,93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국민의 배우자인 결혼 이주여성은 23만 명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사회도 이미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 사회로의 급격한 이행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05년의 경우 국제결혼이 총 43,121건에 달해 전체 결혼 건수의 13.6%를 차지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sup>2)</sup>

이렇게 한국 사회로 새로이 유입된 이주민들<sup>3)</sup> 중 상당수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면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에 대하여는 이미 많은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있다. 이들 이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이들이 겪는 거의 모든 어려움의 원인이 되는 한국어 사용 능력의 부족에서 오는 어려움이다.

인간 활동의 거의 대부분은 언어를 매개체로 이루어지는데 한국어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들어옴으로써 의사소통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필연적인 어려움이다. 둘째는 이주민들의 대다수가 사회경제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오는 어려움이다. 근래에 우리나라에 유입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경우 배우자가 주로 농촌에 거주하거나 학력이 낮아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자연히 이들도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외국인 근로 노동자 역시 단순 노동자들이 대다수인데다가 불법 체류자들이 상당수 되는데 이들 또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속한다. 새터민들 역시 우리나라에 경제적인 기반이 없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인 취약 계층이기는 마찬가지다. 셋째는 이주민들과 본래 정착인들 간의 문화적인 갈등에 의해 야기되는 어려움이다. 출신국가마다 다른 문화가 보수적이고 유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우리나라 문화와의 충돌에 의해 갈등이 야기 되는 경우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08년 3분기 통계자료, <http://www.immigration.go.kr/>

2) 메디컬투데이, 『“10쌍중 1.3쌍 국제결혼, 다민족 다문화사회의 가족정책은”』, 2007.1.23

3) 여기에서의 ‘이주민’은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입국하여 국제 결혼한 경우는 물론이고 이주 노동자, 새터민 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쓰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우리나라에 정착하기 위해 국제결혼한 여성만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쓰고 줄여서 ‘결혼 이주여성’ 또는 ‘이주여성’이라는 용어를 함께 쓴다. 그리고 국제결혼한 이주여성과 그 가족은 ‘다문화 가족’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 자녀들은 ‘다문화 자녀’라는 용어를 쓸 것이다. ‘새터민’은 북한에서 이탈하여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2004년 통일부에서 법률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대신 써 오던 ‘탈북자’라는 용어를 대체한 용어다. 여기에서도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수용하여 쓰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학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주민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은 주로 이들을 가능한 한 한국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언어와 문화를 학습시켜 한국 사람과 한국문화에 동화시키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다른 문화 간의 갈등에 대한 이해 부족에 대한 반성으로 근래에 와서는 빨리 ‘한국인처럼’ 만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그동안의 연구에서 간과해 온 가부장적 문화, 자문화 중심주의에 대한 반성을 통해 진정한 사회적 통합을 위한 새로운 성찰과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다문화가정 대상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 타당성 조사 연구”도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출발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위한 기존의 한국어 학습 교재의 매개 언어는 모두 표준어를 매개 언어로 한 범용 학습교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수요자들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교재가 만들어지기보다 공급자들의 일방적인 판단과 추측에 의해서 교재가 만들어진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주로 농촌이나 도시 근교에 분포되어 있고 한국어 구사 능력의 부족으로 생활권이 제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재에는 전철, 백화점, 외식 등과 관련된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어 있어 이주여성들의 일상생활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들이 있어 현장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여기에 더해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처한 한국어 사용 환경이 이들이 학습하는 한국어 학습 교재의 언어인 표준어와는 다른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언어집단이라는 점이 이들의 적응을 더디게 했다는 점이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사용하는 말은 방언인데 한국어 학습은 표준어로 함으로써 한국어 학습상황 자체가 이중언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장애로 인해 적응을 더디게 하고 문화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 II. 연구의 목적과 범위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 결혼 이주여성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언에 대하여는 학습 기회를 제공해주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 “다문화가정 대상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 타당성 조사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과 그들을 가르치는 한국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설문 결과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교재를 어떻게 구성하고 편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조사 연구는 “다문화가정 대상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 타당성” 여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과제를 수행한다.

**1) 방언학회와 공동으로 전국 각 지역(충청, 전라, 경상,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 여성을 위한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조사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전국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현지 한국어 교사(방문 교사 포함) 및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에 대한 요구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의 타당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의 타당성에 대한 요구 조사의 경우 각 지역 방언 전문가인 방언학회 구성원을 중심으로 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2) 방언학회와 공동으로 향후 이주 여성을 위한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의 방향을 제시한다.**

요구 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이주 여성을 위한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 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지역 문화 등 영역별 교재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방향을 모색해보고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배우기 쉬운 교재 형식을 제시한다. 또한 이주 여성들이 현지에서 가장 흔히 부딪칠 수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이를 교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방언학회와 공동으로 이주 여성에 대한 방언 한국어 교재 모형을 개발한다.**

이주 여성을 위한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 방향을 바탕으로 하여 방언학회와 공동으로 방언 한국어 교재 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한다. 방언 한국어 교재 모형 개발은 경우는 각 지역 방언 전문가인 방언학회 구성원들과 공동으로 작업할 예정이다.

### Ⅲ. 연구의 필요성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급격히 이행되고 있다. 근래 국제결혼으로 인해 급격하게 변해 가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제도권 내에서 교육받을 수도 없고 체계적인 교육도 받을 수 없는 결혼 이주여성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모든 생활의 수단이자 매개체가 되는 한국어 사용 능력을 결혼 이주여성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 언어 즉 방언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어를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 교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언 한국어 교재의 필요성에 대한 수요 조사를 통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걸맞은 한국어 교재 편찬의 타당성 여부를 밝혀보고 필요하다면 어떤 유형의 교재를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내용과 형식을 모색해보려 한다.

1) 이주 여성의 경우 많은 인원이 각 지방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현지 적응을 위한 방언으로 된 한국어 교재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표준어로 된 한국어 교재를 통해 한국어를 배운 이주 여성의 경우 각 지역에서의 방언 문제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표준어로 된 한국어 교재와 함께 각 지역의 방언을 반영하고 지역의 문화와 관습 등을 반영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가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참고로 충북의 이주여성 현황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단위: 명)

시군별	국 적 별										자녀 수
	계	중국	조선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대만	몽고	기타	
합계	1,387	328 (23.6%)	254 (18.3%)	213 (15.4%)	217 (15.7%)	256 (18.5%)	43 (3.1%)	3 (0.2%)	31 (2.2%)	42 (3.0%)	1,609
청주	219	103	44	20	28	9	6	2	3	4	259
충주	161	36	46	18	24	32	2		1	2	171
제천	134	25	33	19	21	23	6	1	1	5	136
청원	193	36	34	45	31	24	3		9	11	235
보은	93	10	14	16	5	38	1		1	8	104
옥천	83	6	1	18	16	35	7			0	94
영동	110	29	14	16	17	25	5			4	128
증평	33	3		11	8	5	4		1	1	57
진천	71	17	15	11	8	14	3		2	1	102
괴산	88	19	8	17	27	11	1		5		124
음성	153	39	38	19	26	15	4		7	5	162
단양	49	5	7	3	6	25	1		1	1	37

(충청북도 지역 2006년 현황 자료)

2) 이주민을 위한 현장 교사들의 경우 방언 한국어 교재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각 지역 이주민센터나 한글학교의 인적 구성이나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이주민을 위한 현장 교사들이 방언을 포함한 한국어 전문가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교재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교재 개발 방향을 살펴보고 향후 이를 토대로 한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3) 지역에서는 관혼상제 등이 가정 내의 중대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다른 문화에서 온 이주 여성들의 경우 이러한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를 반영한 한국어 교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러한 지역 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교재 개발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4) 이주 여성들을 위해 기존에 개발된 한국어 교육용 교재가 표준어로 되어 있어 이주 여성들이 실 생활에서 사용하는 지역어와 괴리가 있다. 이에 따라 이주 여성들이 언어 현장에서 사용하는 구어와 학습 현장에서 배우는 문어가 일치하지 않아 현지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5) 이주 여성들이 도시, 농촌, 어촌 등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농촌 방언 한국어 교재, 어촌 방언 한국어 교재 등 생업 현장을 고려한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여 실 생활에서의 적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이주 여성들이 거주하는 방언권을 고려하여 제주도 방언 한국어 교재, 전라도 방언 한국어 교재, 경상도 방언 한국어 교재, 충청도 방언 한국어 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 IV. 연구의 과정과 방법

본 연구는 내용상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하나는 수요자들의 요구를 조사하여 분석하는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 모형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 수행 기간이 약 45일인 점을 고려하여 짧은 시간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수의 연구 인력을 투입하였다. 연구진을 두 영역으로 배치하여 두 영역에 대한 연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특성상 수요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재의 필요성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재 개발의 타당성 여부를 확정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의 회의와 논의를 거쳐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단계별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업 착수 전에 두 차례의 기획회의를 하였고 사업 착수 후에는 열세 차례의 추진 회의를 하여 총 열다섯 차례의 회의를 하였다. 회의 일정과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수	일 자	주요 논의 내용
1차	2008. 11. 5.	연구 내용에 대한 검토, 1단계 추진 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 계획 수립
2차	2008. 11. 12.	요구조사 설문 작성을 위한 논의: 인적사항, 방언 관련, 문화 및 갈등 요인과 관련한 설문 영역 구분
3차	2008. 11. 19.	과업 지시서 확인 및 설문(1차) 작성 안에 대한 논의
4차	2008. 11. 24.	설문(2차) 작성 안에 대한 논의: 문항 타당성 검토 및 추가 문항 검토
5차	2008. 11. 25.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 관련 설문(2차) 검토 및 추가 문항 검토
6차	2008. 11. 26.	설문(3차) 작성 안에 대한 확인 및 교사용 설문 작성 검토 및 문항 다듬기
7차	2008. 12. 2.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 관련 설문(최종본) 2부 확정, 한국어 교재 시안 작성에 대한 논의: 교재의 성격, 내용, 구성 등
설문지 배포	2008. 12. 4. ~ 12. 8.	설문지 배포: 충북 제천/청주, 경남 마산, 경북 경산/대구, 전남, 광주, 전북 전주 (교사용 140부, 학습자용 370부)
8차	2008. 12. 9.	교재 내용 구성을 위한 상황(주제)별 선정 내용 토의, 설문 결과에 대한 문항별 연관성과 통계처리 방법 논의
중간 보고	2008. 12. 10.	사업 추진 중간보고 : 국립국어원 회의실
9차	2008. 12. 15.	교재 시안에 대한 논의: 교재 기본 구성 논의 및 교재 내용 영역 선정(안) 논의, 설문지 회수와 처리에 대한 논의, 설문 결과 입력 양식과 방법 의뢰(회계학과 교수)
10차	2008. 12. 17.	교재 1차 구성안(초안)에 대한 타당성 논의, 교재 목차 내용 구

		성 논의, 회수된 설문 결과 입력 유의사항 숙지 및 입력 업무 분담, 설문 결과 입력
11차	2008. 12. 18.	교재 1차 구성안(초안)에 대한 타당성 논의, 교재 구성안과 각 상황 구상 논의, 설문 입력 결과 검토 및 입력 방법 수정 논의, 설문 결과 입력
12차	2008. 12. 19.	교재 구성과 상황 설정 논의, 자료 입력 관련 특이사항 논의
13차	2008. 12. 22.	모형 교재 내용과 상황 영역 구체화(장 끊이기, 아기 돌보기 등), 설문 결과 입력
14차	2008. 12. 23.	교재 2차 구성안에 대한 타당성 논의, 영역 구체화 및 방언 문장과 어휘의 타당성 논의, 방언 한국어 교재 1차 구성(안) 확정, 설문 결과 통계처리(강릉대 회계학과 교수에게 의뢰)
15차	2008. 12. 24.	교재 기본 구성 논의(최종) 및 시안 마련

제1차 회의에서는 연구진 간에 연구 개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단계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연구 영역을 ①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 요구 조사 및 분석, ②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 방향 모색, ③ 방언 한국어 교재 구성의 모형 개발 등으로 확정하였다.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 요구 조사 및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대상으로 제천시 결혼이주민지원센터로 정하고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강사들에게 설문 작성을 위한 내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연구의 최종 목표가 방언 한국어 학습 교재 개발의 타당성 조사와 교재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므로 설문 내용도 이 두 가지 내용을 포괄하도록 구상하였다. 교재 내용을 결혼이주여성들의 갈등 요인 해소와 관련한 방언 한국어 학습에 초점을 맞추고 학습 우선순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여기에는 방언 한국어 학습을 통해 언어 학습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들과 기존 내국인들과의 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교재를 편성해야 한다는 목적도 깔려 있었다. 그 결과 제천시 결혼이주민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사전 조사를 위한 질문지 초안을 작성하여 2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제2차 회의에서는 방언 한국어 교재에 대한 요구조사용 설문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검토하고 예비 조사 대상과 방법 및 범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 대상은 제천 한글학교(한국어 학습자와 강사)로 정하고 설문 기간은 2008년 11월 7일부터 11월 10까지로 정하였다. 이 때 실시할 기초 자료 수집 관련 내용은 ① 이주 후 갈등 형성 원인과 이유 ② 한글 학습과 실제 사용 언어(방언) 간의 관련 여부 ③ 방언 한글 학습 자료 선정 시 필수 포함 사항 등으로 정하였다.

아울러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에 넣을 내용으로 이주 여성의 갈등 형성 요인, 한국어 학습에서의 방언 학습 필요성, 우선 학습 요소 순위 선정 등으로 정하고 결혼 이민자들을 위한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자료 초안을 마련하였다.

제3차 회의는 최종 확정된 연구 과제인 “다문화가정 대상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에 대한 과업 지시서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과업은 3단계로 수행한다. 각 단계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단계: 방언학회와 공동으로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에 대한 요구 조사 및 분석**

- ① 요구 조사 질문지 작성
- ② 요구 조사 지역 선정
- ③ 광역 방언권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요구 조사 실시
- ④ 요구 조사 결과 분석

**(2) 2단계: 방언학회와 공동으로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 방향 모색**

- ① 기 개발된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재 분석
- ② 본 사업의 1단계에서 분석된 요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의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 ③ 한국어 교재 개발 방향 제시

**(3) 3단계: 방언학회와 공동으로 방언 한국어 교재 구성의 모형 개발**

연구원들은 위의 과업 내용을 확인하고 ① 연구 사업 관련 일반 계획 및 지침 확인 ② 단계별 구체적인 사업 일정을 논의하고 ③ 표본 수집을 위한 설문 작성 일정을 논의하고 확정하였다. 설문 작성은 연구원들이 각자 작성한 설문 내용을 검토하여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문항의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 문항을 선별하였다. 무엇보다 연구 과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① 이주 여성들의 갈등 요인과 ② 한국어 학습에서의 방언 학습 필요성에 대한 내용 영역에 한정하여 문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문항에 대하여는 각 문항별로 답지를 구체화하고 문항을 다듬어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였다.

제4차 회의는 과업 수행 단계에 따라 2차 설문 작성 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은 ① 우선순위 문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② 선정된 문항의 질문문을 다듬고 적절한 답지를 선정하는 것과 설문 내용에 따라 문항 배열 순서를 정하였다. 여기에 덧붙여 방언 한국어 교재의 특화된 영역 구성을 위한 추가 문항 검토하고 논의하였다. 제3차 회의에서 연구원들이 제시한 설문지들을 검토하여 하나의 통일된 설문지로 통합하였다.

제5차 회의에서는 제4차 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2차로 작성한 설문 내용을 확인하고 우선순위 문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여기에서 선정된 설문 문항에 대하여는 질문문을 다듬고 적절한 답지를 만들고 다듬어 완성하였다. 여기에 방언 한국어 교재의 특화된 영역 구성을 위해 추가 문항 여부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병행하였다. 5차 회의에서 선별 확정된 설문에 대하여는 6차 회의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제6차 회의에서는 3차로 완성된 설문에 대하여 선정 문항별 타당성 여부 확인, 선정된 문항별 표현과 문장 다듬기를 통해 학습자용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아울러 교사용 예비 면접지를 작성하고 확인하였다.

제7차 회의에서는 설문으로 선정된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각 문항의 내용과 표현을 다듬는 작업을 하여 학습자용 설문지와 교사용 설문지 최종본을 확정하였다. 학습자용 설문지 500부와 교사용 설문지 100부를 인쇄하기로 하고 설문 조사 지점을 제주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등 네 지역으로 정하고 각각의 지역에 학습자용 60부, 교사용 15부씩 배포하기로 결정하였다. 학습자용 200부와 교사용 50부 정도의 회수를 기대한 것이었다. 설문 조사 지역을 네 곳으로 정한 것은 광역 방언권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조치였다. 설문지는 12월 3일까지 인쇄하여 12월5일까지 배포하기로 하였다.

한국어 교재 시안 마련을 위해 다음 회의 때까지 연구원들이 상황별로 구체적인 주제를 구상하기로 하였다. 연구 기간의 제약으로 교재에 넣을 영역은 예비 설문 결과를 토대로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나중에 설문지가 회수되면 설문 자료를 가공 처리한 후에 교재에 들어갈 내용 영역과 주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 관련 설문'을 작성하였다.

제8차 회의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중간보고 준비와 교재 시안 작성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연구 중간보고는 12월 10일 10시 30분에 국립국어원에서 하기로 하였다. 중간보고 내용은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상세히 보고하는 것으로 설문지 제작 완료 및 설문 의뢰, 그리고 교재 개발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한 것이었다.

방언 한국어 교재에 들어갈 상황과 주제 선정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기존에 편찬된 적이 없는 교재이므로 방언을 반영하는 교재 구성의 특성상 교재 편찬 방법에서 특성화된 교재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교재는 예비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결혼 이주여성들의 활동 반경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을 정한다는 기준에 따라 교재에 넣을 영역을 잠정적으로 '집안, 시장, 병원, 공공기관 및 기타'로 정하였다. 이 영역에 따라 1차로 하위 영역을 구분하고 분류 하였다. 하위 영역 따른 하위 영역의 세분화와 구성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연구원 각자가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하위 영역을 구상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해서 방언 한국어 교재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상황(주제)별로 내용을 선정한 시안을 마련하였다.

12월 10일 국립국어원 회의실에서 이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평가가 실시되었다. 중간평가에서는 그동안의 연구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보고와 이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이 평가에서는 연구 진행의 점검과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는데 그동안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나 한국어 교재가 없었다는 점에서 진전된 연구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고 기존의 표준어 한국어 교재와의 관련성에 대한 위치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설문결과와 이를 반영한 교재 편찬 방향을 결정할 즈음이라야 좀 더 진전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제9차 회의에서는 교재 시안 작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상위 영역인 대단원을 '집안, 시장, 병원, 공공기관, 기타'로 선정하는 문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이에 대한 하위 영역인 소단원 영역을 세분화하였고 각 소단원에 대한 기본 구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여기에서 논의된 소단원의 구성은 소단원 제목과 삽화로 시작하고 다음에 방언 대화를 본문으로 제시하고 본문 아래 본문에 쓰인 방언 어휘를 나열하고 다음 쪽에 이에 대응하는 표준어 본문과 표준어 어휘를 제시한다. 그리고 다양한 표현을 학습하도록 자료를 제시하고 이어 연습문제를 두어 실생활에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배치한다. 마지막에는 소단원 제목 관련하여 문화적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이질적인 문화에 대하여 소개한다. 이는 이주여성은 물론이고 다문화 가정의 가족들도 이주여성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적인 갈등을 줄이거나 해소할 수 있는 난으로 구성한다. 이에 따라 방언 한국어 교재의 1차 구성안 1부가 작성되었다.

제10차 회의에서는 연구 단계별 추진 일정에 따라 교재의 대단원 목차를 집안, 시장, 병원, 공공기관, 기타 등으로 선정하고 하위 영역인 소단원을 다음 회의 때까지 좀 더 구체화하기로 논의하였다. 이는 교재 내용의 구성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이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할 소단원의 주제 영역을 '된장찌개 끓이기'와 '아기 돌보기'로 정하고 교재 내용에 대한 기본 구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1차 구성한 초안에 대한 타당성을 점검

하였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문장 구성에 대하여는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1차로 회수된 설문 결과에 대한 입력 틀을 정하고 자료 입력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설문 결과는 가급적 응답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입력하되 통계 처리를 의뢰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최종 입력 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제11차 회의에서는 교재의 기본 구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추가로 수정할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아울러 교재의 문장 하나하나와 어휘 하나하나에 대하여 점검하고 본문의 내용이 실생활과 일치하도록 확인조사를 하여 반영하기로 하였다. 설문 결과에 대한 자료 처리를 위해 응답 설문지의 검토를 통해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신뢰할 수 없는 응답지를 선별하여 제외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기대와 다르게 응답한 경우-예컨대, 하나의 응답을 기대한 설문에 둘 이상의 복수 응답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제12차 회의에서는 교재 시안의 1차 구성안(초안)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였다. 제 10차와 제11차 회의에서 논의된 소단원의 주제 영역을 ‘된장찌개 끓이기’와 ‘아기 돌보기’에 대한 본문의 작성과 연습문제, 다양한 문화 소개 등의 내용에 대한 타당성 논의를 지속하였다. 소단원의 구성과 제시 내용에 대하여는 구성안을 추가로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설문 자료는 회수되는 대로 분담하여 입력하되 입력 틀을 통일하도록 하였다.

제13차 회의에서는 교재의 기본 구성에 대한 논의로 1차 구성 초안의 타당성 검토 과정으로 ‘된장찌개 끓이기’와 ‘아기 돌보기’에 대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구체화하고 문장을 다듬는 작업을 하였다. 본문 내용이 방언으로 제시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본문에 제시되는 방언 문장의 경어법과 종결어미의 형태에 대하여 논의하여 반영하였다.

회수된 설문 결과에 대한 입력 시 입력에서 제외된 응답지에 대하여 사유를 기재하고 보존하도록 하였고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에 대하여 자료처리 의뢰 예정자의 자문을 구해 반영하기로 하였다. 12월 22일까지 회수된 설문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입력하여 23일 입력된 설문 결과에 대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제14차 회의에서는 교재 소단원에 대한 2차 구성안의 타당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여기에서는 제시되는 소단원의 내용을 세분화하고 문장을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서 반영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방언형으로 제시될 방언 어휘에 대하여는 방언 분화형을 제시해 주기로 하고 기존의 방언 자료집에서 방언형을 뽑아 선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설문 응답 결과에 대한 통계 처리를 위하여 교차 검증할 항목들을 선정하였다.

제15차 회의에서는 시안으로 제시할 교재의 소단원 내용의 2차 구성안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고 부분적으로 수정하기로 하였다. 본문은 자연스런 표현과 문장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재의 소단원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어휘와 표현을 제시하여 향후 교재 편찬 사업이 진행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단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온라인상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수정을 거쳐 안으로 확정하기로 하였다.

통계 처리 결과는 기술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두 명의 연구원이 기술하기로 하였다.

이상과 같이 15차례의 논의와 연구를 거치면서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 1) 1단계: 방언학회와 공동으로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에 대한 요구조사 및 분석

### (1) 요구 조사 질문지 작성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이기 때문에 방언 한국어 교재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구성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정보가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어 학습 현장에서 이주여성들이 방언 한국어를 필요로 하는지와 교재에 필요한 내용 구성을 위한 요구 조사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질문지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지역 문화 등 지역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한국어교육 전문가와 지역방언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확정하였다. 요구 조사 질문지는 질문지 구상 단계에서부터 방언학회 구성원들의 자문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보편적인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단체에 의뢰하여 사전 조사와 예비 조사를 거쳐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맞춰 질문 내용을 구성하였다.

질문지는 두 가지 유형으로 작성되었다. 하나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다. 이 질문지에는 응답자의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 항목 7과 가족문화, 지역문화, 한국어 학습에 관련한 문항 41개 등 모두 48개의 질문 항목으로 구성하였다.<sup>4)</sup> 다른 하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다. 이 질문지는 이주여성들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필요로 한다고 여기는 교재 내용은 무엇이며 학습자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교사용 질문지는 인적사항에 관한 문항 4개와 교재 내용과 관련된 문항 23개 등 총 27개의 질문 항목으로 구성하였다.<sup>5)</sup>

### (2) 요구 조사 지역

이주여성들의 거주 지역은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각 지역에서는 주로 농촌이나 도시 근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본 연구의 목표가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사 지역을 한국어 방언권에 따라 권역별로 나누었다. 이에 따라 중부방언을 반영하고 있는 충청도 방언, 남부 방언을 반영하고 있는 전라도 방언과 경상도 방언 그리고 제주 방언으로 방언권을 광역화하여 이들 권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을 설문 조사 대상으로 정하였다. 이는 한국어를 학습할 때 방언 권역별로 어떤 내용을 우선적으로 배우고 싶어 하는지를 조사하여 방언 한국어 교재의 내용 구성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기 위한 조치였다. 조사 내용은 가족문화, 지역문화, 한국어 학습에 관한 것으로 관혼상제나 생일, 회갑, 음식 등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을 중심으로 하되 지역 문화와 지역 방언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배포는 광역 방언권 별로 한두 지점에 한정하였다. 이는 이주여성들이 처한 학습상황이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와 언어적인 차이가 광역 방언권 별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설문 의뢰 기관과 대상은 광역 방언권 별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 대학이나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한국어 교사(방문 교사 포함)와 한국어를 학습하는 이주 여성들로 한정하였다. 이는 방언 한국어 교재를 개발할 때 설문 응답 결과를 반영하여 방언권별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교재에 담기 위한 것이었다.

### (3) 요구 조사 결과 분석

광역 방언권 별로 배포하여 설문한 결과를 회수하여 회수된 요구 조사 결과를 지역, 국가, 연령,

4)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학습자 대상 질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조할 것,

5)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교사 대상 질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조할 것,

체류 기간 별로 구분하여 거주 지역과 한국어 수준, 연령과 체류 기간에 따라 요구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이후 방언 한국어 교재를 개발할 때 교재 내용과 교재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 2) 2단계: 방언학회와 공동으로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 방향 모색

### (1) 기 개발된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재 분석

농림부, 여성부 등에서 개발하여 보급한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여 향후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 방향을 모색하는 데 참고하였다. 농림부, 여성부 등에서 개발한 한국어 교재는 모두 표준어로 되어 있는데다가 현지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들이 설정되어 있어 한국어 학습 현장에 부적절한 경우가 있다는 사례들이 보고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기존의 한국어 교재가 표준어만으로 되어 있어 이주여성들이 방언권별로 실생활에서 접하는 방언과는 거리가 있어 생기는 언어적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 (2)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의 방향을 모색

기 개발된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재 분석 결과와 본 사업의 1단계에서 분석된 요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언 권역별 지역방언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 방향을 모색하여 교재 구성의 기본 안을 제시하였다. 방언 한국어 교재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내용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이주 여성들이 가장 많이 부딪칠 수 있는 상황, 즉 빈도 수 높은 상황을 중심으로 한 주제들을 검토하여 교재 내용 선정한다.
- 전체 교재 내용을 몇 주차 강의로 주제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지 검토한다.
-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내용을 교재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한지 검토한다.
- 기 개발된 교재와 차별되는 이 교재의 장점과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내용과 형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방언 한국어 교재만이 가지는 내용과 형식 특성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 3) 3단계: 방언학회와 공동으로 방언 한국어 교재 구성의 모형 개발

2단계에서 제시된 교재 개발 방향을 바탕으로 교재를 구성하되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한두 개의 소주제를 선정하여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지역 문화 등을 반영한 교재 구성의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는 차후 지역 방언을 반영한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의 기초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방언 한국어 교재의 내용과 모형에 대하여는 5장과 6장에서 자세히 기술할 것이다.

## V. 방언 한국어 교재개발의 타당성조사 결과분석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여 광역 방언권별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기간은 2008년 12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였다. 설문지 배포 지역은 충청북도 제천시와 청주시, 경상남도 마산시, 경상북도 경주시와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일원과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주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이었다. 이 가운데 회수가 늦어 자료 처리에 포함시키지 못한 지역의 응답지는 전라남도 일원과 전라북도 전주시 자료다. 이들 자료는 추후에 보완하고자 한다. 설문지는 각 지역별로 학습자용 60부, 교사용 15부씩 배포하였다. 이 가운데 회수된 설문지는 학습자용 242부 교사용 57부였다.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학습자용 2부는 신뢰하기 어려운 자료라고 판단되어 처리에서 제외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보조연구원들이 나누어 컴퓨터 엑셀 파일로 저장하였다. 통계처리를 위해 자료 입력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학습자와 이주여성을 가르치는 한국어 교사로 나누어 분석 기술하였다.

### 1. 학습자에 대한 요구 분석

학습자에 대한 기초 요구 분석에서는 질문지 문항 별로 결혼이민자들이 어떻게 응답하였는지를 자세하게 분석하여 다음에 이어질 방언 한국어 교재 필요성에 대한 요구 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로 한다.

#### 1) 기본 인적 사항 관련 요구 분석

##### (1) 거주지 분석

거주지 분석을 위한 질문에서는 충청북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응답이 34.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주도 19.8%, 전라남도 16.9%, 전라북도 12.4%, 경상북도 10.3%, 경상남도 5.8%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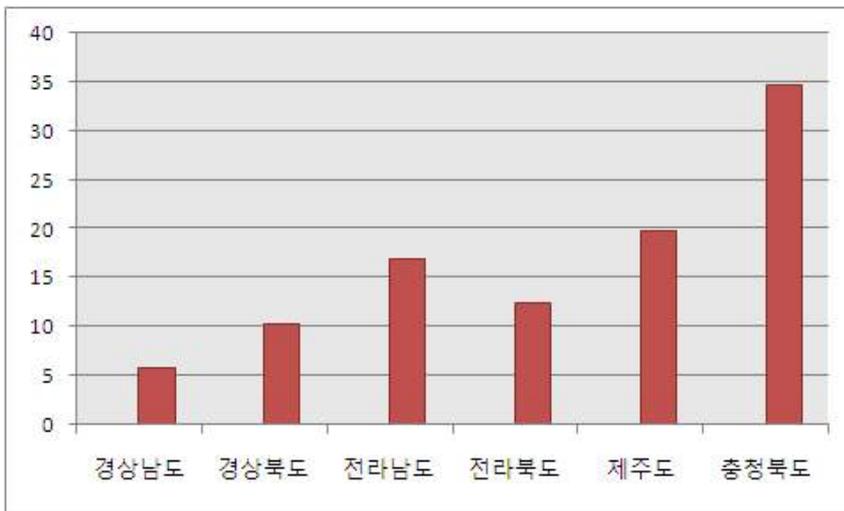
거주지가 경상남도라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회수 지역이 한국어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마산, 창원 지역의 한국어 교육 관련 센터를 중심으로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응답률을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충청북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온 것은 충청북도 지역에서는 청주와 제천 두 지역에서 설문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응답 현황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응답자 거주지

지역별	응답자	응답률(%)
경상남도	14	5.8
경상북도	25	10.3
전라남도	41	16.9
전라북도	30	12.4
제주도	48	19.8
충청북도	84	34.7
합 계	189	100.0

이를 그래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거주지 분석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이 방언 한국어 교재를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 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2) 출신 국가 분석

출신 국가를 분석하는 것은 향후 방언 한국어 교재를 포함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재를 개발함에 있어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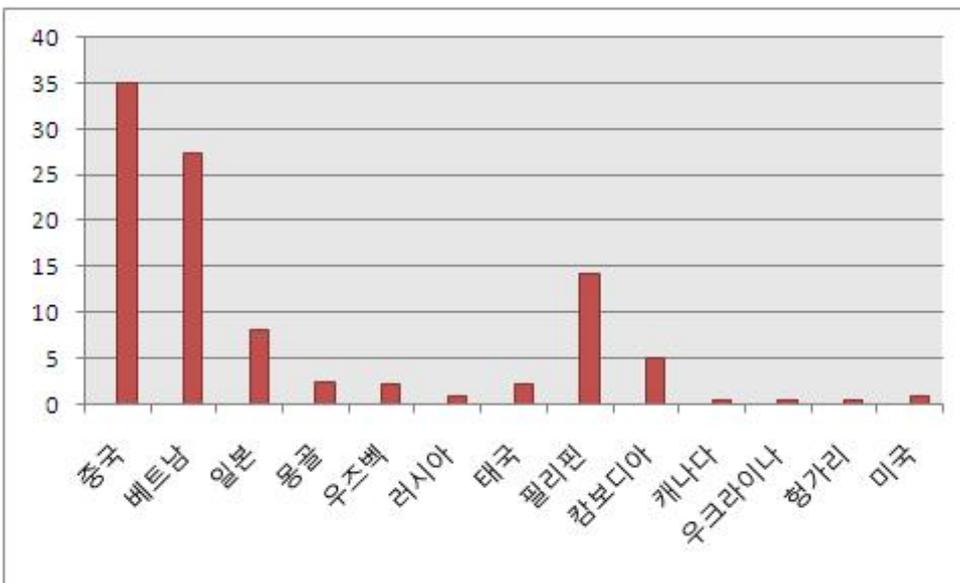
응답 자료 분석 결과 중국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5.0%, 베트남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7.4%, 필리핀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4.4%로 가장 많았고 이후 일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8.0%, 캄보디아 5.1%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보면 이후 방언 한국어 교재를 포함해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시 해당 언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혹은 타갈로그어 등으로 먼저 번역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교재 개발을 위한 대조언어학적 접근, 상대적인 문화 차이 소개 등에서 이들 응답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출신 국가별 응답 현황을 표로 보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출신국가

국가별	응답자	응답률(%)
중 국	83	35.0
베트남	65	27.4
일 본	19	8.0
몽 골	6	2.5
우즈베키스탄	5	2.1
러시아	2	0.8
태 국	5	2.1
필리핀	34	14.3
캄보디아	12	5.1
캐나다	1	0.4
우크라이나	1	0.4
헝가리	1	0.4
미 국	2	0.8
합 계	236	99.3

이를 그래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3) 성장 지역 분석

성장 지역에 대한 분석 결과 도시 출신이 52.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농촌 출신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1.2%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이외에 어촌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4.1%나 되었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3> 성장 지역

지역별	응답자	응답률(%)
도시	90	52.9

농촌	70	41.2
어촌	7	4.1
기타	3	1.8
합계	170	100

#### (4) 자녀 수 분석

자녀 수에 대한 질문은 향후 이들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실제 초등학교를 다니는 결혼이민자 자녀들의 경우 가정에서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없어 학교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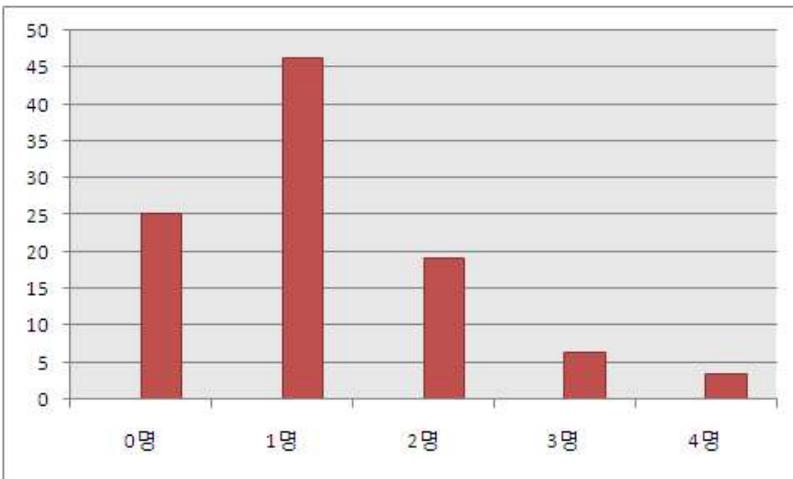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결혼이민자들의 자녀 수를 분석한 결과 1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25.2%, 2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9.0%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3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2%나 되었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4> 자녀 수

자녀 수	응답자	응답률(%)
0	53	25.2
1	97	46.2
2	40	19.0
3	13	6.2
4	7	3.3
합계	210	99.9

이를 그래프로 다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5) 응답자 나이 분석

응답자 나이를 묻는 질문에 대해 20대라고 응답한 경우가 54.7%로 가장 많았고 30대라고 응답한 경우가 34.1%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40대라고 응답한 경우가 9.1%이었고 50대라고 응답한 경우도 0.9%나 되었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5> 응답자 나이

나 이	응답자	응답률(%)
10대	3	1.3
20대	127	54.7
30대	79	34.1
40대	21	9.1
50대	2	0.9
합 계	232	100.1

### (6) 배우자 나이 분석

배우자 나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40대라고 응답한 경우가 49.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라고 응답한 경우가 40.0%, 50대라고 응답한 경우가 6.7%, 20대라고 응답한 경우가 4.3%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6> 배우자 나이

배우자 나이	응답자	응답률(%)
20대	9	4.3
30대	84	40.0
40대	103	49.0
50대	14	6.7
합 계	210	100

### (7) 거주 기간 분석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을 묻는 질문에 대해 2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0.9%로 가장 많았고 1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8.8%, 3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5.8%, 4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5.0%, 5년, 6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0%이었다. 이외에 7년, 8년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각각 3.8%, 3.0%나 되었다.

이 거주 기간은 한국어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한국어에 이처럼 노출된 기간이 이들의 한국어 능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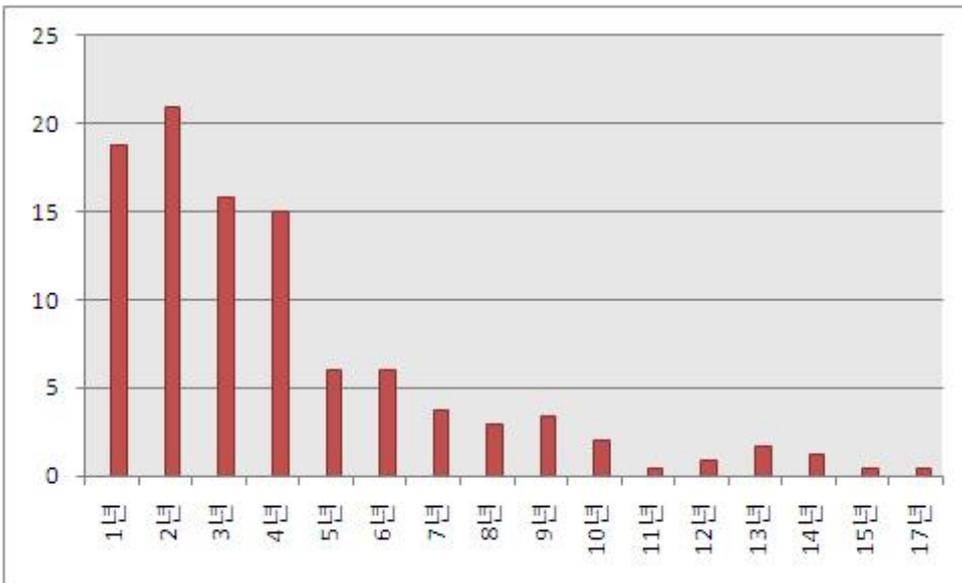
이러한 응답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7> 거주 기간

거주 기간(년)	응답자	응답률(%)
1	44	18.8

2	49	20.9
3	37	15.8
4	35	15.0
5	14	6.0
6	14	6.0
7	9	3.8
8	7	3.0
9	8	3.4
10	5	2.1
11	1	0.4
12	2	0.9
13	4	1.7
14	3	1.3
15	1	0.4
17	1	0.4
합계	234	99.9

이러한 거주 기간을 그래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2) 한국어 및 문화 관련 요구 분석

### (1) 한국에서의 결혼이민자 직업 분석

한국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주부라고 응답한 경우가 78.0%로 가장 많았고 전문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9.1%로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전문직이라고 응답한 경우 대부분은 학원에서 영어 등 외국어를 가르치는 강사들이었다. 다음으로 기타라고 응답한 경우가 5.8%, 식당 등 서비스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3%, 농업, 생산직이라고 응답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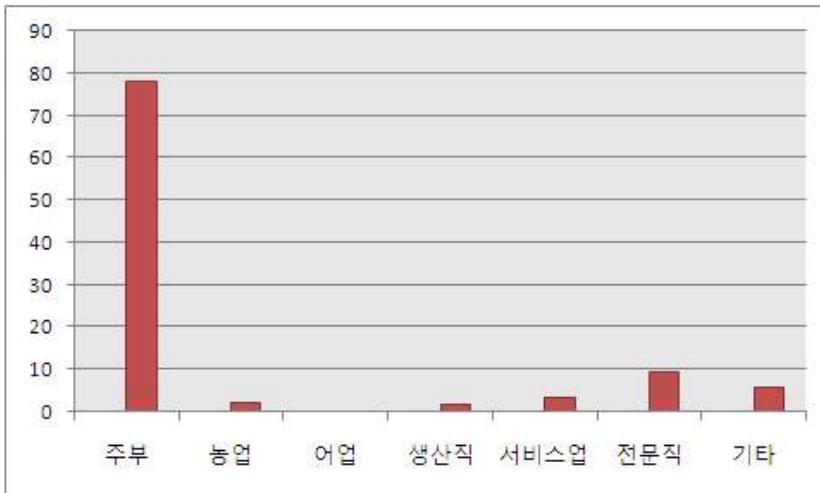
경우가 각각 2.1%이었다. 다만 어업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다. 이러한 직업 특성은 향후 한국어 교육용 교재를 개발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결혼이민자 직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부를 위한 일상생활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8> 결혼 이주여성의 직업

직업별	응답자	응답률(%)
주 부	188	78.0
농 업	5	2.1
어 업	0	0.0
생산직	4	1.7
서비스업	8	3.3
전문직	22	9.1
기 타	14	5.8
합 계	241	100

이 결과를 그래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2)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직업 분석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직업을 묻는 질문에 대해 기타라고 응답한 경우가 43.6%로 가장 많았고 공장 등 생산직에 종사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1.8%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농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8.5%, 일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9.0%, 강사 등 전문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0%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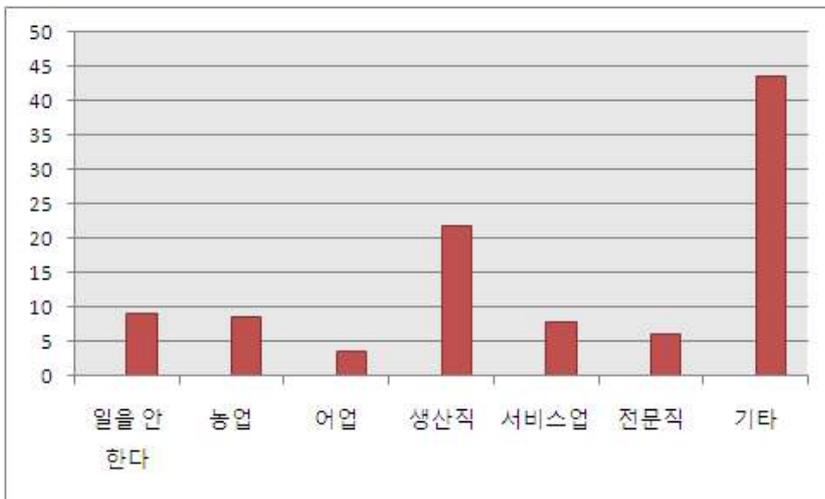
이 결과를 보면 지금까지 결혼이민자들이 주로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만들어진 한국어 교재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결혼이민자들이 주로 처해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한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면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 직업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9> 결혼 이주여성의 배우자 직업

직업별	응답자	응답률(%)
일을 안 한다	21	9.0
농업	20	8.5
어업	8	3.4
생산직	51	21.8
서비스업	18	7.7
전문직	14	6.0
기타	102	43.6
합계	234	100

이와 같은 내용을 그래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3) 본국에서의 교육 기간 분석

본국에서의 교육 기간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에 해당하는 12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0.5%로 가장 많았고, 한국에서 중학교 졸업에 해당하는 9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8.6%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한국에서 대학교 졸업에 해당하는 16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도 7.1%나 되었다. 이에 대해 초등학교 졸업 미만에 해당하는 6년 미만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도 13.1%이었다.

이러한 교육 기간 분석 자료는 향후 이들에 대한 한국어 교재 개발 및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데 직접적인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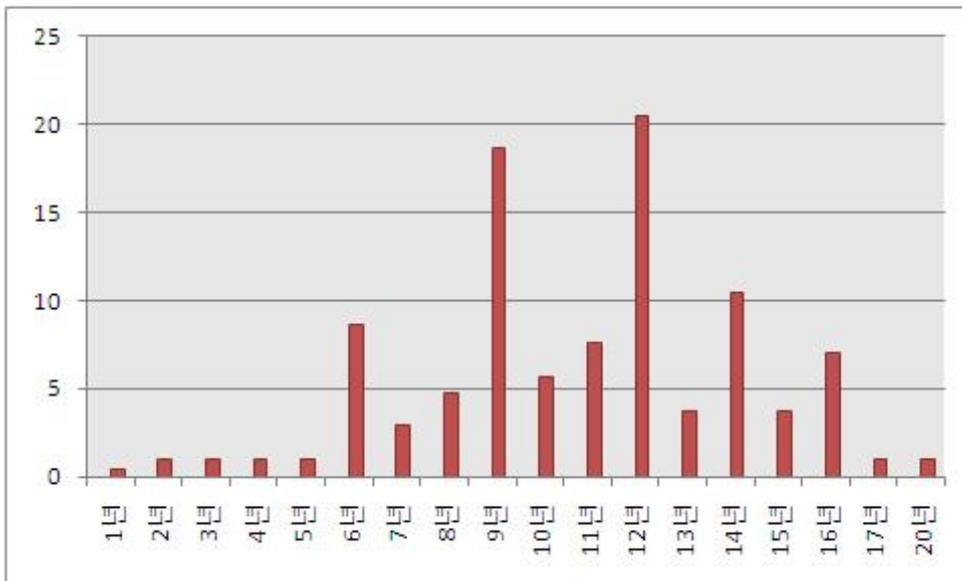
이러한 응답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0> 응답자의 학력

교육 기간	응답자	응답률(%)
-------	-----	--------

1년	1	0.5
2년	2	1.0
3년	2	1.0
4년	2	1.0
5년	2	1.0
6년	18	8.6
7년	6	2.9
8년	10	4.8
9년	39	18.6
10년	12	5.7
11년	16	7.6
12년	43	20.5
13년	8	3.8
14년	22	10.5
15년	8	3.8
16년	15	7.1
17년	2	1.0
20년	2	1.0
합 계	210	100.4

이러한 결과를 그래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4) 배우자 학력 분석

배우자의 학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고등학교까지 졸업했다는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았고 대학 졸업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21.2%나 되었다. 이외에 전문대학 졸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6.9%, 중학교 졸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2.1%이었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5.2%나 되었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1> 배우자의 학력

학력별	응답자	응답률(%)
안 다녔다	2	0.9
초등학교까지	10	4.3
중학교까지	28	12.1
고등학교까지	103	44.6
전문대학까지	39	16.9
대학 이상	49	21.2
합 계	231	100

### (5) 동거 가족 분석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남편과 함께 생활한다고 대답한 경우가 8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녀와 함께 생활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55.0%,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한다고 대답한 경우가 30.2%이었다. 다음으로 시아버지와 함께 생활한다고 대답한 경우는 17.4%이었다. 이외에 남편의 형제와 함께 생활한다고 대답한 경우도 5.4%나 되었다. 그리고 동서와 함께 생활한다고 대답한 경우도 1.2%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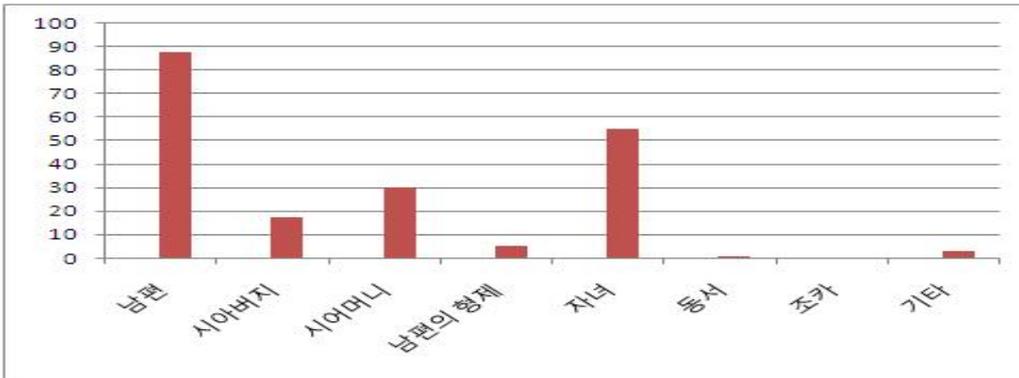
주목할 만한 사실은 시아버지 혹은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결혼이민자의 비율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이 이처럼 시아버지 혹은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 방언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2> 동거 가족

가족별	응답자	응답률(%)
남 편	212	87.6
시아버지	42	17.4
시어머니	73	30.2
남편의 형제	13	5.4
자 녀	133	55.0
동 서	3	1.2
조 카	1	0.4
기 타	7	2.9
합 계	484	200.1

이러한 결과를 그래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6) 배우자 외에 가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 분석

배우자 이외에 가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자녀라고 응답한 경우가 41.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시어머니라고 응답한 경우가 18.8%,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7.9%이었다. 이외에 시아버지라고 응답한 경우는 3.0%에 불과하였다. 다음으로 남편의 형제라고 응답한 경우는 3.8%나 되었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3> 배우자 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

가족별	응답자	응답률(%)
없다	42	17.9
시아버지	7	3.0
시어머니	44	18.8
남편의 형제	9	3.8
자녀	98	41.9
동서	10	4.3
조카	0	0.0
기타	14	6.0
시아버지/시어머니	2	0.9
남편의 형제/자녀	2	0.9
시어머니/남편의 형제	3	1.3
시어머니/자녀	1	0.4
시아버지/시어머니/자녀	2	0.9
합계	234	100.1

### (7) 가족 중에서 제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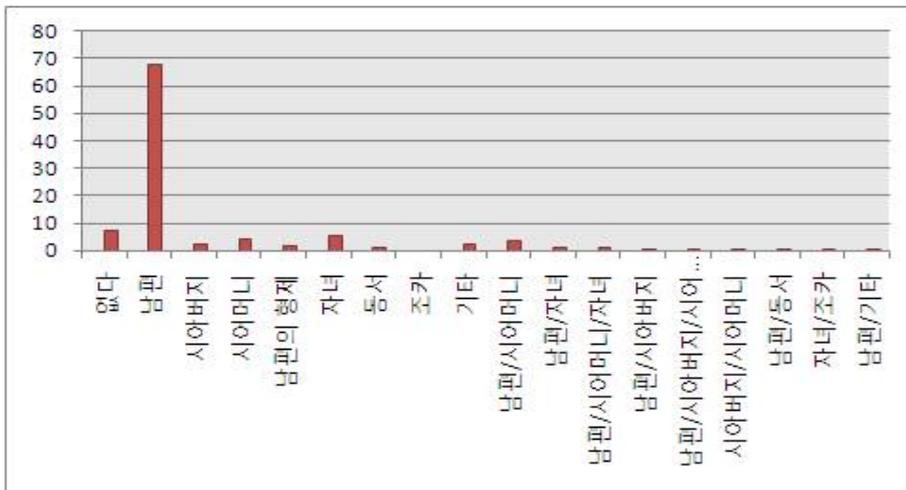
가족 중에서 제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남편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67.6%로 절대적이었다. 이 대답을 통해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해 잘 모르는 내용이나 방언에 대해 잘 모르는 내용이 있는 경우는 남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응답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4> 가족 가운데 제일 편하게 이야기 하는 사람

가족별	응답자	응답률(%)
없 다	17	7.1
남 편	161	67.6
시아버지	5	2.1
시어머니	10	4.2
남편의 형제	4	1.7
자 녀	13	5.5
동 서	3	1.3
조 카	0	0.0
기 타	5	2.1
남편/시어머니	8	3.4
남편/자녀	3	1.3
남편/시어머니/자녀	3	1.3
남편/시아버지	1	0.4
남편/시아버지/시어머니	1	0.4
시아버지/시어머니	1	0.4
남편/동서	1	0.4
자녀/조카	1	0.4
남편/기타	1	0.4
합 계	238	100

이를 그래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8) 가족들과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 분석

가족들과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자녀이야기라고 응답한 경우가 35.4%로 가장 많았고 오늘 있었던 일 이야기라고 응답한 경우가 24.9%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한국어 공부 이야기라고 응답한 경우는 22.8%, 음식/요리 이야기라고 응답한

경우는 16.0%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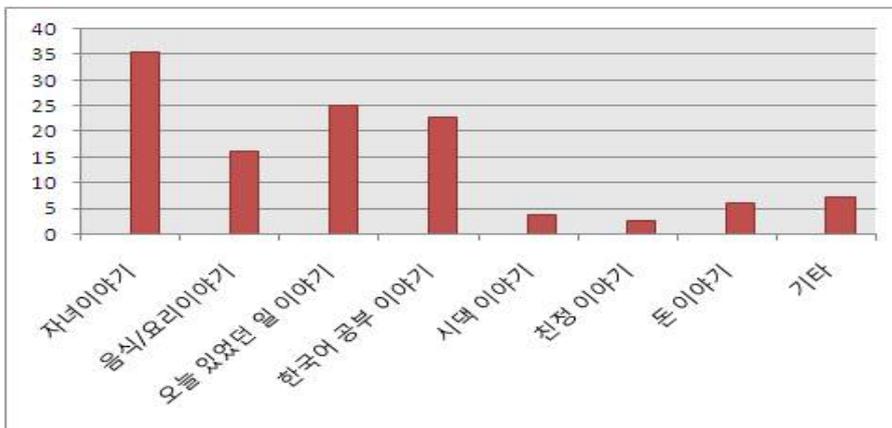
이 조사 내용을 통해 향후 한국어 교재를 제작하는 경우 그 주제를 정함에 있어 자녀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하루에 있었던 일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응답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5> 가족들과 이야기 하는 내용

내용별	응답자	응답률(%)
자녀이야기	84	35.4
음식/요리이야기	38	16.0
오늘 있었던 일 이야기	59	24.9
한국어 공부 이야기	54	22.8
시댁 이야기	9	3.8
친정 이야기	6	2.5
돈 이야기	14	5.9
기 타	17	7.2
합 계	281	118.5

이러한 결과를 그래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9) 가족 중에서 제일 이야기하기 싫은 사람 분석

가족 중에서 제일 이야기하기 싫은 사람을 묻는 질문에 대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64.5%로 절대적이었다. 다만 시어머니라고 응답한 경우도 13.2%이어서 시어머니와 대화하는 것이 편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응답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6> 가족 중에서 제일 이야기하기 싫은 사람

가족별	응답자	응답률(%)
없 다	151	64.5

남 편	12	5.1
시아버지	8	3.4
시어머니	31	13.2
남편의 형제	11	4.7
자 녀	5	2.1
동 서	3	1.3
조 카	0	0.0
기 타	13	5.6
합 계	234	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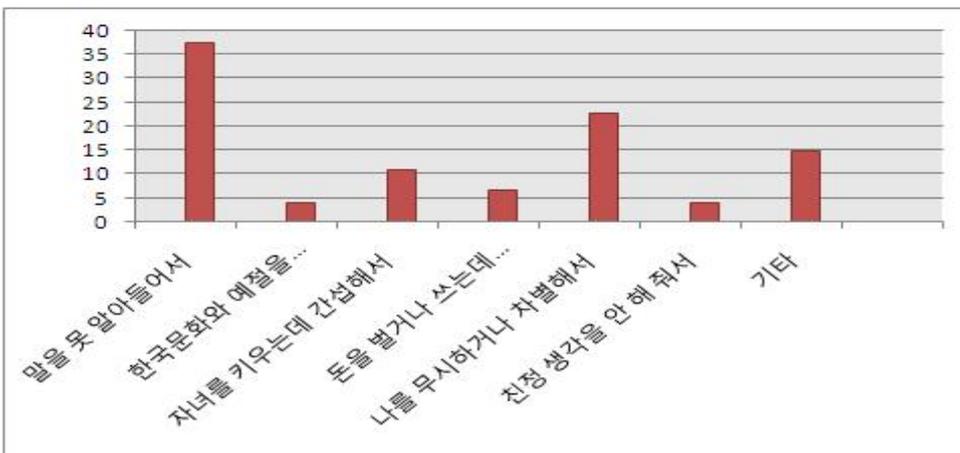
### (9-1) 가족과 이야기하기 싫은 이유 분석

9)에서 '없다'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체적으로 대화하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랬더니 말을 못 알아들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37.3%로 가장 많았고 나를 무시하거나 차별해서라고 응답한 경우도 22.7%나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들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방언을 포함한 한국어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상호 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 역시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6-1> 가족과 이야기하기 싫은 이유

이 유 별	응답자	응답률(%)
말을 못 알아들어서	28	37.3
한국문화와 예절을 지키라고 해서	3	4.0
자녀를 키우는데 간섭해서	8	10.7
돈을 벌거나 쓰는데 간섭해서	5	6.7
나를 무시하거나 차별해서	17	22.7
친정 생각을 안 해 줘서	3	4.0
기 타	11	14.7
합 계	75	100.1

이러한 결과를 그래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0) 한국 생활에서 제일 힘든 것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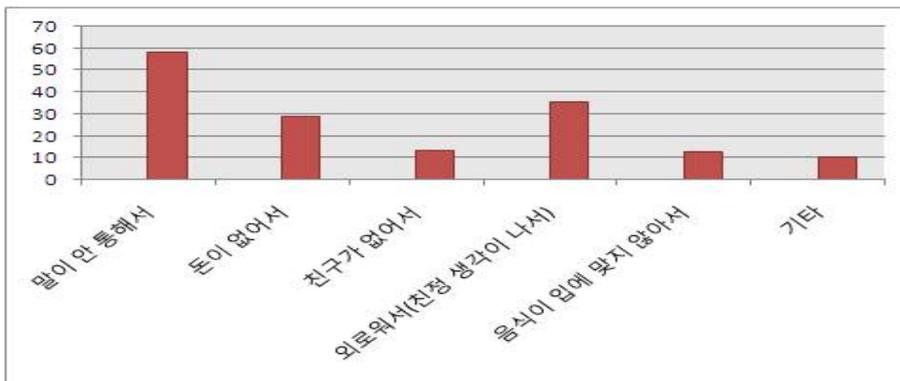
한국 생활에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말이 안 통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58.3%로 가장 많았다. 이 응답과 9-1)에서의 응답을 통해 다시 한번 방언을 포함한 한국어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응답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7> 한국생활 가운데 제일 힘든 것

내 용 별	응답자	응답률(%)
말이 안 통해서	141	58.3
돈이 없어서	70	28.9
친구가 없어서	32	13.2
외로워서(친정 생각이 나서)	86	35.5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30	12.4
기 타	24	9.9
합 계	383	158.2

이 결과를 그래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1)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 분석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부부싸움을 안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6.1%로 가장 많았다. 다만 자녀 양육과 교육 때문에라고 응답한 경우도 20.3%이어서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자녀 양육과 교육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응답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8>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

이 유 별	응답자	응답률(%)
부부싸움을 안 한다	63	26.1
배우자가 돈을 벌지 않아서	23	9.5
배우자가 시부모님 말만 들어서	13	5.4

자녀 양육과 교육 때문에	49	20.3
결혼 전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39	16.2
내가 친구를 만나는 것을 싫어해서	18	7.5
남편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서	36	14.9
컴퓨터를 많이 해서	11	4.6
국제전화를 많이 해서	10	4.1
무시하거나 차별해서	20	8.3
합 계	282	116.9

**(12) 부부싸움을 한 이후 상황 분석**

부부싸움을 한 이후 어떻게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말하지 않고 참는다고 대답한 경우가 31.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친구에게 말한다고 대답한 경우도 27.6%나 되었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부부싸움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응답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9> 부부싸움 이후의 태도

상 황 별	응답자	응답률(%)
시부모님께 말한다	20	8.3
다른 시댁 가족에게 말한다	4	2.1
친구에게 말한다	56	27.6
상담 선생님께 말한다	18	9.4
말하지 않고 참는다	61	31.8
집을 나간다	7	3.6
기 타	26	13.5
시부모님께 말한다/ 다른 시댁 가족에게 말한다	1	0.5
시부모님께 말한다/ 상담 선생님께 말한다	1	0.5
친구에게 말한다/ 상담 선생님께 말한다	1	0.5
시부모님께 말한다/ 말하지 않고 참는다	1	0.5
친구에게 말한다/기타	1	0.5
친구에게 말한다/집을 나간다	1	0.5
시부모님께 말한다/친구에게 말한다	1	0.5
합 계	198	99.8

**(13) 설, 추석 등 가족 행사 분석**

설, 추석 등 가족 행사가 1년에 몇 번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1년에 다섯 번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8.0%나 되었다. 이외에 네 번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24.1%나 되었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잦은 가족 행사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응답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20> 명절과 가족행사

횟 수	응답자	응답률(%)
없 다	17	7.3
한 번	19	8.2
두 번	30	12.9
세 번	45	19.4
네 번	56	24.1
다섯 번 이상	65	28.0
합 계	232	99.9

#### (14) 가족 행사가 싫은 이유 분석

가족 행사 시 가장 싫은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싫은 것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36.3%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일을 많이 해서라고 응답한 경우도 34.5%나 되어 결혼이민자들이 가족 행사 시 일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응답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21> 가족 행사가 싫은 이유

가족 행사가 싫은 이유	응답자	응답률(%)
싫은 것 없다	82	36.3
일을 많이 해서	78	34.5
예절을 지키라고 해서	6	2.7
자녀 교육에 간섭해서	8	3.5
돈을 벌거나 쓰는데 간섭해서	6	2.7
친정이나 나에 대해 많이 물어서	8	3.5
무시하거나 차별해서	13	5.8
기 타	19	8.4
일을 많이 해서/무시하거나 차별해서	2	0.9
일을 많이 해서/예절을 지키라고 해서	1	0.4
일을 많이 해서/자녀 교육에 간섭해서	2	0.9
자녀 교육에 간섭해서/돈을벌거나 쓰는데 간섭해서	1	0.4
합 계	226	100

#### (15) 자주 가는 장소 분석

자주 가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시장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9.2%로 가장 많았고 다문화센터라고 응답한 경우도 51.3%나 되었다. 그리고 친구 집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40.8%나 되었다. (이는 복수의 응답을 고려하더라도 높은 응답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응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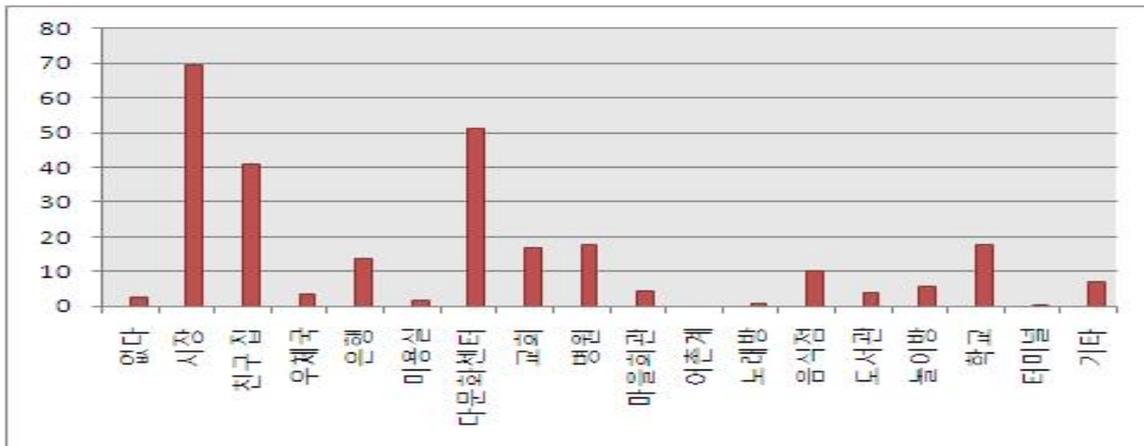
통해 향후 한국어 교재를 개발할 때 이들이 자주 가는 장소, 즉 시장, 친구 집에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다문화센터의 경우 높은 응답률을 보인 이유는 이 설문이 주로 다문화센터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자세한 응답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22> 이주 여성들이 자주 가는 장소

장소별	응답자	응답률(%)
없다	6	2.5
시장	166	69.2
친구 집	98	40.8
우체국	8	3.3
은행	33	13.8
미용실	4	1.7
다문화센터	123	51.3
교회	40	16.7
병원	43	17.9
마을회관	11	4.6
어촌계	0	0.0
노래방	2	0.8
음식점	25	10.4
도서관	9	3.8
놀이방	14	5.8
학교	43	17.9
터미널	1	0.4
기타	17	7.1
합계	643	268

이러한 결과를 그래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6) 가기 싫은 장소 분석

가기 싫은 장소가 어디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41.5%로 가장 많았다. 다만 병원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28.4%나 되었다.

자세한 응답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23> 이주여성이 가기 싫은 장소

장소별	응답자	응답률(%)
없 다	98	41.5
시 장	1	0.4
병 원	67	28.4
우체국	1	0.4
은 행	2	0.8
미용실	2	0.8
다문화센터	16	6.8
교 회	3	1.3
터미널	3	1.3
마을회관	2	0.8
학 교	1	0.4
친구 집	3	1.3
음식점	1	0.4
도서관	1	0.4
놀이방	3	1.3
노래방	1	0.4
어촌계	8	3.4
다 가기 싫다	8	3.4
기 타	1	0.4
시장/병원	5	2.1
병원/교회	1	0.4
병원/터미널	1	0.4
시장/터미널	1	0.4
없다/병원	1	0.4
병원/노래방	1	0.4
병원/친구 집	1	0.4
병원/터미널/음식점	1	0.4
기타/터미널	1	0.4
미용실/터미널	1	0.4
병원/우체국	1	0.4
합 계	237	100

### (16-1) 16)의 이유: 가기 싫은 이유

16)의 질문에서 ‘없다’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기 싫은 장소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물었다. 이 질문에 대해 사람들과 말이 안 통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49.1%로 가장 많았다. 이 질문을 통해 다시 한 번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3-1> 가기 싫은 이유

이 유 별	응답자	응답률(%)
사람들과 말이 안 통해서	53	49.1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서	8	7.4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차별해서	5	4.6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많이 물어보아서	4	3.7
기 타	38	35.2
합 계	108	100

### (17) 한국 문화 중 이해할 수 없는 것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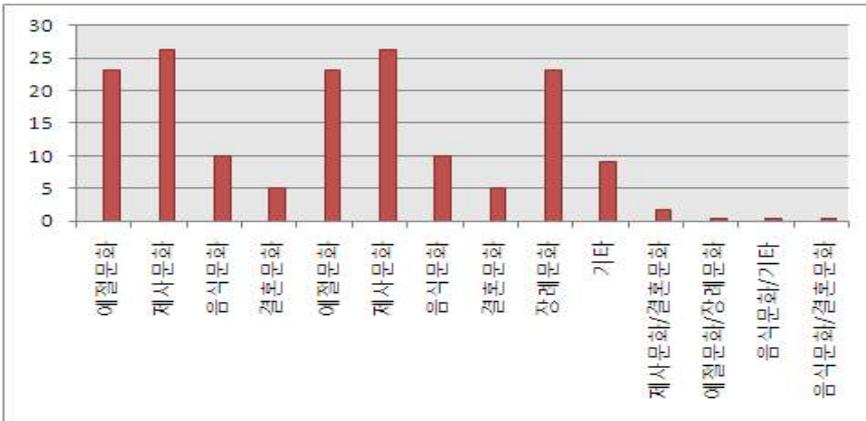
한국 문화 중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예절문화라고 응답한 경우가 23.0%이고 제사문화라고 응답한 경우와 장례문화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26.3%, 23.0%이었다. 이 응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반 예절과 관혼상제 등과 관련한 예절 등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워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응답을 통해 향후 한국 문화 교육이 필요하고 문화 교육에서는 이처럼 결혼이민자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상호 문화 이해 차원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응답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24> 이해할 수 없는 한국 문화

내용별	응답자	응답률(%)
예절문화	50	23.0
제사문화	57	26.3
음식문화	22	10.1
결혼문화	11	5.1
장례문화	50	23.0
기 타	20	9.2
제사문화/결혼문화	4	1.8
예절문화/장례문화	1	0.5
음식문화/기타	1	0.5
음식문화/결혼문화	1	0.5
합 계	217	100

이러한 결과를 그래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8) 이웃 주민들과 이야기하는 정도 분석

이웃 주민들과 자주 만나 이야기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가끔씩 만나 이야기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44.0%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거의 만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도 25.6%나 되었다. 이를 통해 이웃과의 왕래가 그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응답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25> 이웃 주민과의 이야기 정도

정 도 별	응답자	응답률(%)
매일 만나 이야기 한다	12	5.1
자주 만나 이야기 한다	31	13.2
가끔씩 만나 이야기 한다	103	44.0
거의 만나지 않는다	60	25.6
전혀 만나지 않는다	28	12.0
합 계	234	99.9

### (19) 단체나 기관 활동 분석

지역 내의 단체나 기관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문화센터라고 응답한 경우가 53.8%로 가장 많았다. 이는 이 설문이 다문화센터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26.9%나 되어서 다문화센터를 제외한 단체나 기관 활동이 그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응답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26> 이주여성의 단체 활동이나 기관 활동 여부

영역별	응답자	응답률(%)
없 다	64	26.9
봉사단체	12	5.0
종교단체	23	9.7
다문화센터	128	53.8
기 타	11	4.6
합 계	238	100

**(20) 한국 오기 전 한국어 배운 기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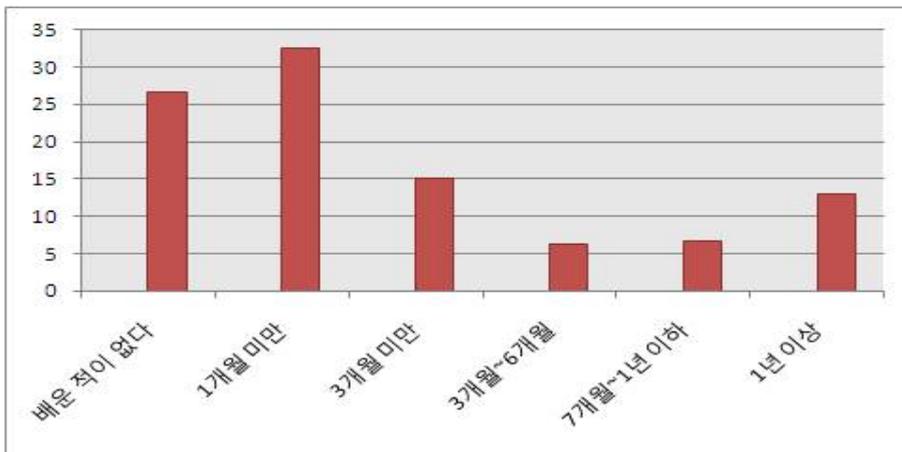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를 얼마 동안 배웠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배운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26.7%로 가장 많았다. 이에 1개월 미만과 3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까지를 더하면 75.0%나 되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3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밖에 한국어를 배우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응답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27> 이주여성의 학력

기 간 별	응답자	응답률(%)
배운 적이 없다	64	26.7
1개월 미만	78	32.5
3개월 미만	36	15.0
3개월~6개월	15	6.3
7개월~1년 이하	16	6.7
1년 이상	31	12.9
합 계	240	100.1

이러한 결과를 그래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3) 방언 한국어 교재 관련 요구 분석

#### (21) 자녀와 대화할 때 사용하는 언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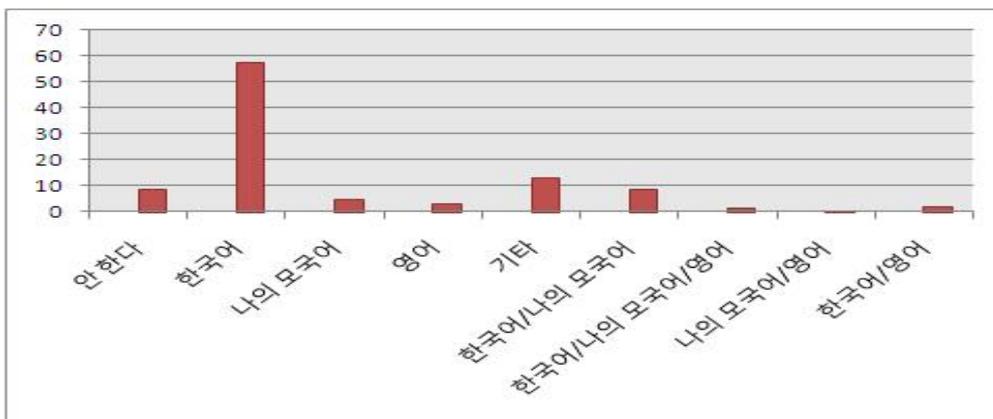
자녀하고 말할 때 어느 나라 말로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한국어라고 응답한 경우가 57.3%로 가장 많았다. 다만 한국어로 원활하게 대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녀와의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도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세한 응답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28> 자녀와 대화하는 언어

언어별	응답자	응답률(%)
안 한다	18	8.7
한국어	118	57.3
나의 모국어	10	4.9
영 어	7	3.4
기 타	27	13.1
한국어/나의 모국어	18	8.7
한국어/나의 모국어/영어	3	1.5
나의 모국어/영어	1	0.5
한국어/영어	4	1.9
합 계	206	100

이 결과를 그래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22) 한국어 숙달도 분석

한국어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조금 잘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42.7%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조금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32.2%이고 잘 못 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15.1%나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응답한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한국어를 잘 하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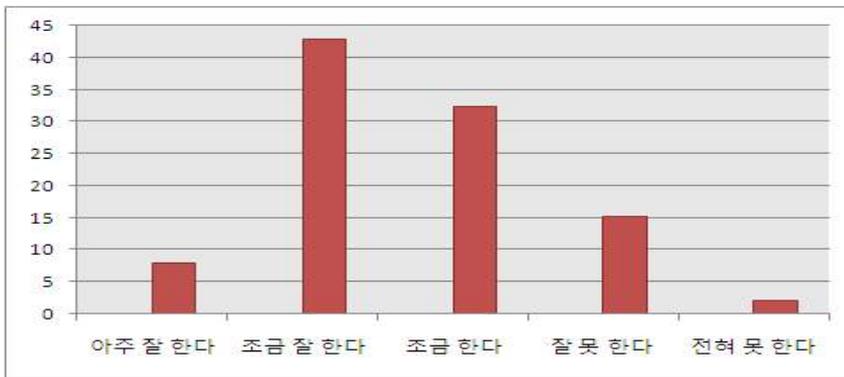
못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세한 응답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29> 한국어 숙달도

정 도	응답자	응답률(%)
아주 잘 한다	19	7.9
조금 잘 한다	102	42.7
조금 한다	77	32.2
잘 못 한다	36	15.1
전혀 못 한다	5	2.1
합 계	239	100

이러한 결과를 그래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23)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운 기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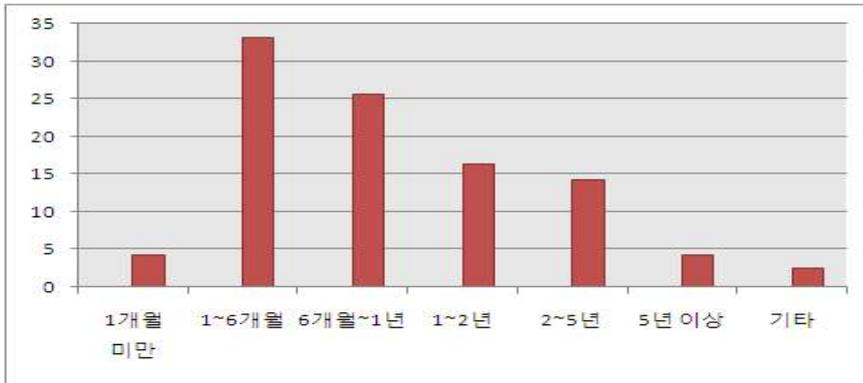
한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1~6개월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3.1%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6개월~1년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25.5%나 되었다. 이 두 경우를 고려하면 58.6%의 결혼이민자들이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어를 배웠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응답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30> 한국어 학습기간

기 간 별	응답자	응답률(%)
1개월 미만	10	4.2
1~6개월	79	33.1
6개월~1년	61	25.5
1~2년	39	16.3
2~5년	34	14.2
5년 이상	10	4.2
기 타	6	2.5
합 계	239	100

이러한 결과를 그래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24) 한국어를 배우라고 권한 사람 분석

처음에 한국어를 배우라고 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내가'라고 응답한 경우가 39.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족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35.6%나 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이 자기 스스로 필요해서 혹은 가족들의 권유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응답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31> 한국어 학습 권장자

사람별	응답자	응답률(%)
내 가	92	39.0
가족이	84	35.6
친구가	18	7.6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이	3	1.3
이주민 지원 단체에서	23	9.7
기 타	15	6.4
합 계	235	99.6

#### (25)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 분석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복수의 응답을 포함하여 한국말을 잘 하려고라고 응답한 경우가 50.0%로 절반이었다. 이외에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14.4%이었고 취직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경우도 16.9%나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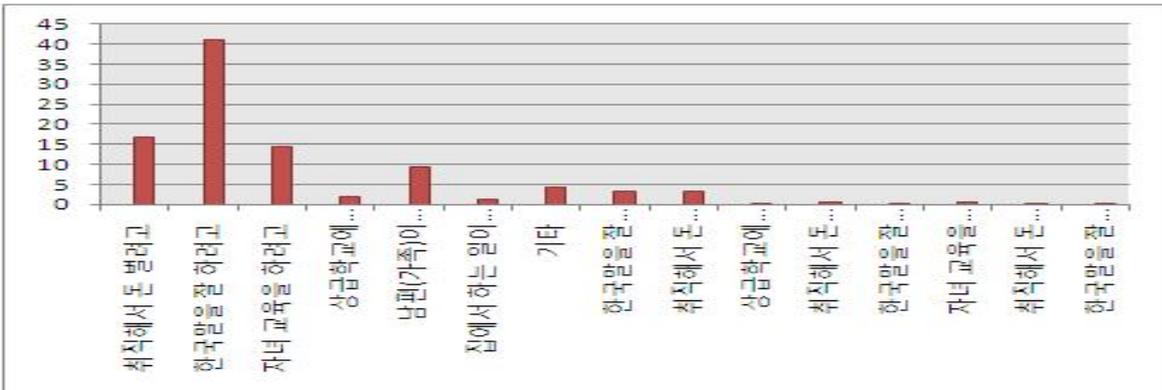
자세한 응답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32> 한국어 학습 목적

이유별	응답자	응답률(%)
취직해서 돈 벌려고	40	16.9
한국말을 잘 하려고	97	41.1
자녀 교육을 하려고	34	14.4

상급학교에 진학하려고	5	2.1
남편(가족)이 배우라고 해서	22	9.3
집에서 하는 일이 없어서	3	1.3
기 타	10	4.2
한국말을 잘 하려고/자녀 교육을 하려고	8	3.4
취직해서 돈 벌려고/한국말을 잘 하려고/자녀 교육을 하려고	8	3.4
상급학교에 진학하려고/남편이 배우라고 해서	1	0.4
취직해서 돈 벌려고/자녀 교육을 하려고	2	0.8
한국말을 잘 하려고/남편이 배우라고 해서	1	0.4
자녀 교육을 하려고/남편이 배우라고 해서	2	0.8
취직해서 돈 벌려고/한국말을 잘 하려고/자녀 교육을 하려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려고	1	0.4
한국말을 잘 하려고/자녀 교육 하려고/남편이 배우라고 해서	1	0.4
합 계	235	99.3

이를 그래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26) 한국어가 도움이 된 경우 분석

한국어가 어디에 제일 큰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복수의 응답을 포함하여 가족과 이야기할 때라고 응답한 경우가 48.02%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자녀를 교육할 때라고 응답한 경우도 복수의 응답을 포함하여 14.8%나 되었다.

자세한 응답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33> 한국어 학습 결과가 유용한 경우

상 황 별	응답자	응답률(%)
가족과 이야기할 때	95	40.1
시장에 가거나 할 때	33	13.9
취직할 때	10	4.2

자녀를 교육할 때	35	14.8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6	2.5
한국어능력시험 볼 때	18	7.6
기 타	14	5.9
가족과 이야기할 때/시장에 가거나 할 때	11	4.6
시장에 가거나 할 때/자녀를 교육할 때	1	0.4
가족과 이야기할 때/자녀를 교육할 때	4	1.7
가족과 이야기할 때/시장에 가거나 할 때 자녀를 교육할 때/한국어능력시험 볼 때	1	0.4
가족과 이야기할 때/시장에 가거나 할 때 취직할 때/자녀를 교육할 때	2	0.8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한국어능력시험 볼 때	1	0.4
가족과 이야기할 때/자녀를 교육할 때/한국어능력시험 볼 때	1	0.4
취직할 때/자녀를 교육할 때	1	0.4
자녀를 교육할 때/한국어능력시험 볼 때	2	0.8
가족과 이야기할 때/취직할 때/자녀를 교육할 때	1	0.4
가족과 이야기할 때/한국어능력시험 볼 때	1	0.4
합 계	237	99.7

### (27)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사람 분석

한국어를 누구한테 배우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복수의 응답을 포함하여 기관 혹은 단체 선생님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3%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방문 선생님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복수의 응답을 포함하여 26.1%나 되었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의 경우 기관이나 단체 등 교육 기관 및 시설을 통한 교육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세한 응답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34> 한국어 교사

사람별	응답자	응답률(%)
배우자	25	10.4
시부모님	3	1.2
시댁가족	3	1.2
자녀	2	0.8
이웃사람	4	1.7
친구	2	0.8
방문 선생님	63	26.1
기관/단체 선생님	89	36.9
초등학교 선생님	1	0.4

종교단체 선생님	5	2.1
안 배운다	4	1.7
기 타	16	6.6
배우자/기관, 단체 선생님	7	2.9
배우자/시부모님/방문 선생님	1	0.4
시부모님/기관, 단체 선생님	4	1.7
배우자/방문 선생님/종교단체 선생님	1	0.4
배우자/시부모님/기관, 단체 선생님	1	0.4
시댁가족/방문 선생님	1	0.4
배우자/방문 선생님	5	2.1
배우자/시부모님/시댁가족/ 자녀/기관, 단체 선생님	1	0.4
배우자/이웃 사람	1	0.4
자녀/방문 선생님/종교단체 선생님	1	0.4
배우자/친구	1	0.4
합 계	241	99.8

## (28) 한국어 학습 시간 분석

한국어를 일주일에 몇 번 몇 시간 배우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일주일에 두 번, 두 시간씩 배우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6.9%로 가장 많았다. 이 학습 시간은 한국어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일반적인 교육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일주일에 세 번, 두 시간씩, 네 번 두 시간씩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각각 17.4%, 15.4%나 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방문 교육 등 교육 기관 및 단체를 제외한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대답이라고 판단된다.

자세한 응답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35> 한국어 학습 시간

횟수/시간별	응답자	응답률(%)
일주일에 한 번, 두 시간	22	9.1
일주일에 두 번, 두 시간씩	113	46.9
일주일에 세 번, 두 시간씩	42	17.4
일주일에 네 번, 두 시간씩	37	15.4
기 타	27	11.2
합 계	241	100

이러한 결과를 그래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29) 한국어 학습 희망 시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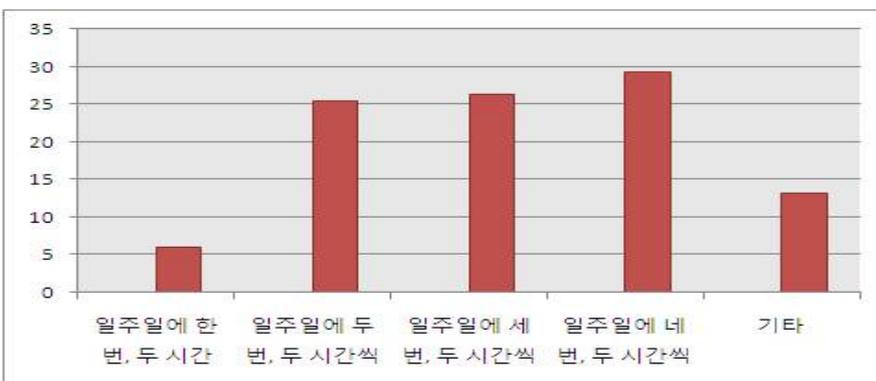
한국어를 일주일에 몇 번, 몇 시간씩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일주일에 네 번, 두 시간씩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9.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세 번, 두 시간씩, 두 번 두 시간씩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26.3%, 25.4%이었다. 이 응답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보다 많은 시간 동안 한국어를 배우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응답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36> 주당 한국어 학습 희망 시간

횟수/시간별	응답자	응답률(%)
일주일에 한 번, 두 시간	14	5.9
일주일에 두 번, 두 시간씩	60	25.4
일주일에 세 번, 두 시간씩	62	26.3
일주일에 네 번, 두 시간씩	69	29.2
기 타	31	13.1
합 계	236	99.9

이 결과를 그래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30) 한국어 교재의 보완 희망 내용 분석

교재로 한국어를 배울 때 무엇이 제일 불만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책에서 배우는 말과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달라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59.6%로 가장 많았다. 이는 책을 통해서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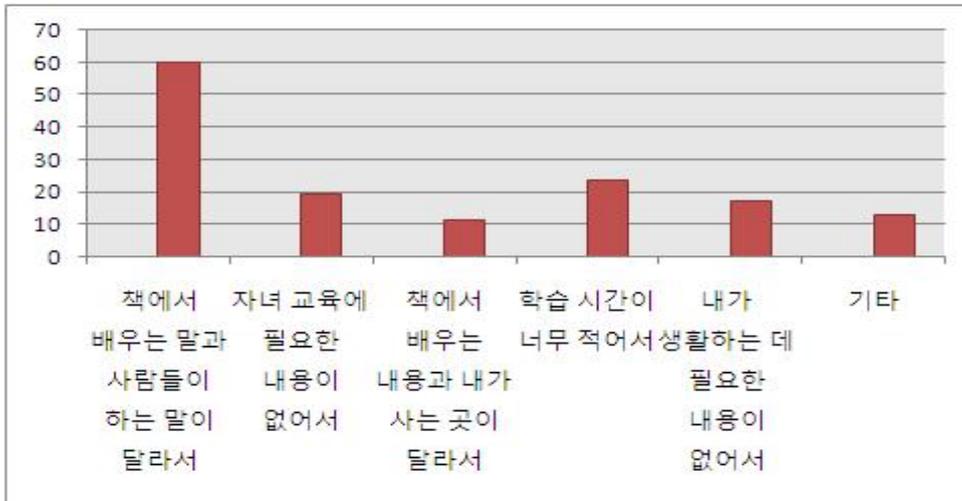
로 표준어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실제 생활에서는 지역 방언 등을 사용하고 있어 배운 것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통해 향후 한국어 교재 개발 시 실제 언어 생활에 필요한 방언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응답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37> 한국어 교재의 보완 희망 내용

내 용 별	응답자	응답률(%)
책에서 배우는 말과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달라서	143	59.6
자녀 교육에 필요한 내용이 없어서	46	19.2
책에서 배우는 내용과 내가 사는 곳이 달라서	27	11.3
학습 시간이 너무 적어서	56	23.3
내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없어서	41	17.1
기 타	31	12.9
합 계	344	143.4

이 결과를 그래프로 다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31) 방언을 사용하는 가족 분석

교재에서 배운 말과 제일 다르게 말하는 가족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복수의 응답을 포함하여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라고 응답한 경우가 44.0%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시할아버지, 시할머니라고 응답한 경우도 13.3%나 되었다. 이를 통해 주로 시댁의 어른들이 방언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방언 한국어 교재를 개발한다면 이러한 시댁 어른들과 관련된 상황을 교재에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자세한 응답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38> 방언을 사용하는 가족

사 람 별	응답자	응답률(%)
배우자	29	13.3
시할아버지·시할머니	29	13.3
시아버지·시어머니	65	29.8
남편의 형제	10	4.6
자 녀	7	3.2
동 서	1	0.5
조 카	1	0.5
기 타	36	16.5
시할아버지·시할머니/시아버지·시어머니	2	0.9
시할아버지·시할머니/자녀	1	0.5
시아버지·시어머니/남편의 형제	2	0.9
배우자/자녀	3	1.4
배우자/시아버지·시어머니/남편의 형제	2	0.9
배우자/시아버지·시어머니/남편의 형제/동서	2	0.9
시아버지·시어머니/남편의 형제	1	0.5
배우자/시아버지·시어머니	21	9.6
배우자/남편의 조카	2	0.9
배우자/기타	2	0.9
배우자/동서	1	0.5
배우자/시할아버지·시할머니	1	0.5
합 계	218	100.1

### (32) 모르는 한국말에 대한 대처 방법 분석

모르는 한국말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남편에게 물어 본다고 응답한 경우가 59.3%로 가장 많았다. 이를 통해 남편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자세한 응답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39> 모르는 한국말에 대한 대처 방법

방법별	응답자	응답률(%)
남편에게 물어 본다	143	59.3
시부모님께 물어 본다	11	4.6
자녀에게 물어 본다	5	2.1
친구에게 물어 본다	15	6.2
한국어 선생님께 물어 본다	64	26.6
사전을 찾는다	45	18.7

인터넷을 검색한다	11	4.6
몰지 않고 그냥 있다	3	1.2
기 타	6	2.5
합 계	303	125.8

**(33) 가족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 이유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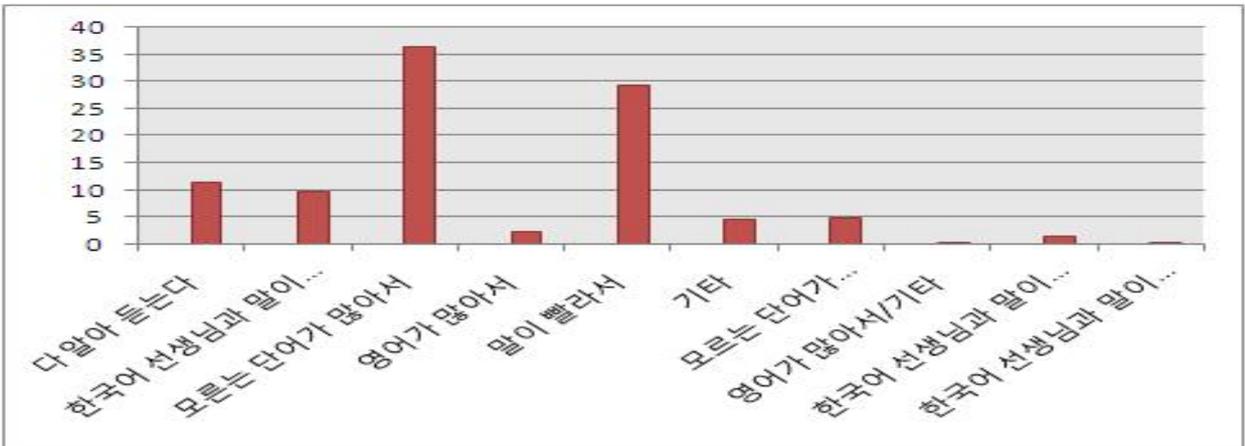
가족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복수의 응답을 포함하여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43.0%로 가장 많았다. 이를 통해 한국어 교육에서 어휘 교육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응답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40> 가족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 이유

이 유 별	응답자	응답률(%)
다 알아 듣는다	26	11.4
한국어 선생님과 말이 달라서	22	9.6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83	36.2
영어가 많아서	5	2.2
말이 빨라서	67	29.3
기 타	10	4.4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말이 빨라서	11	4.8
영어가 많아서/기타	1	0.4
한국어 선생님과 말이 달라서/모르는 단어가 많아서/말이 빨라서	3	1.3
한국어 선생님과 말이 달라서/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1	0.4
합 계	229	100

이러한 결과를 그래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34) 명절 때 쓰는 말에 대한 이해 정도 분석**

명절 때나 제사 때 쓰는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조금 안다고 응답한 경우가 35.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26.1%,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17.5%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참고하면 대다수의 결혼이민자들이 명절이나 제사 때 쓰는 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세한 응답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41> 명절이나 가족행사에 쓰는 말의 이해도

정 도 별	응답자	응답률(%)
아주 잘 안다	11	4.7
잘 안다	37	15.8
조금 안다	83	35.5
잘 모른다	61	26.1
전혀 모른다	41	17.5
합 계	233	99.6

**(35) 방언 사용 정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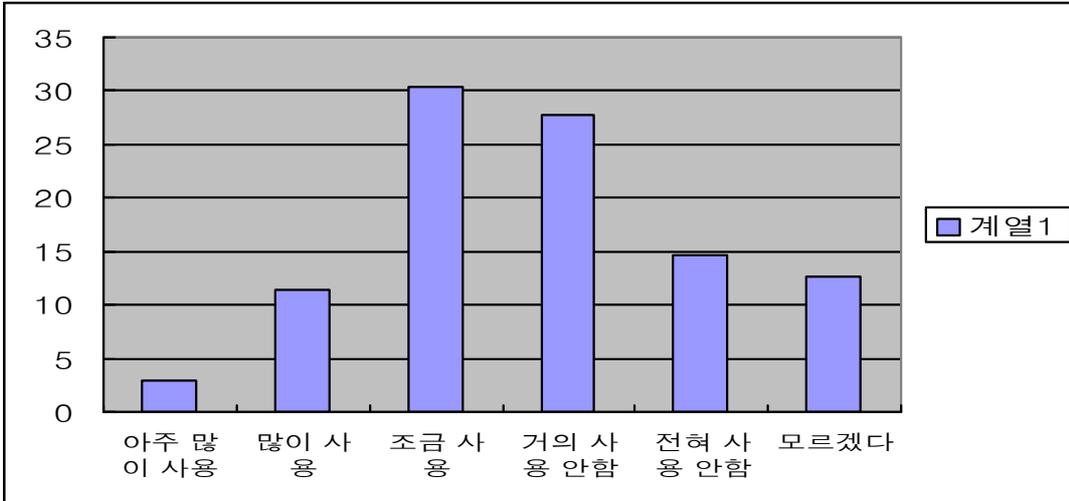
친구들이나 이웃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방언을 사용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조금 사용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30.4%로 가장 많았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도 27.8%나 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11.4%나 되어 방언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의되는 것처럼 방언권별 혹은 지역별로 구분하여 그 필요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자세한 응답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42> 방언 사용 정도

정 도 별	응답자	응답률(%)
아주 많이 사용한다	7	3.0
많이 사용한다	27	11.4
조금 사용한다	72	30.4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66	27.8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35	14.8
모르겠다	30	12.7
합 계	237	100.1

이러한 결과를 그래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36) 방언 이해 정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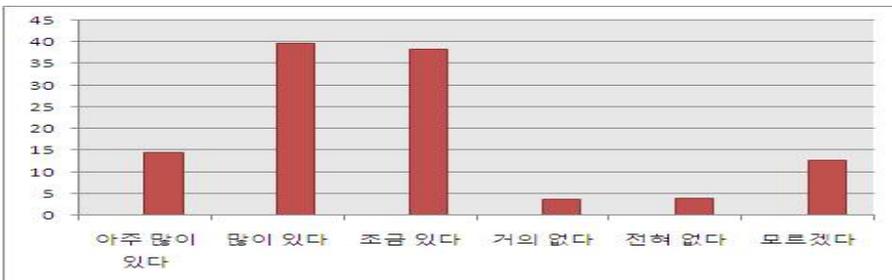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방언을 못 알아들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많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9.6%로 가장 많았다. 이에 조금 있다고 응답한 경우 39.6%와 아주 많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14.3%를 포함하면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생활에 필요한 방언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자세한 응답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43> 방언 이해 정도

정도별	응답자	응답률(%)
아주 많이 있다	33	14.3
많이 있다	91	39.6
조금 있다	88	38.3
거의 없다	8	3.5
전혀 없다	9	3.9
합 계	229	99.6

이 결과를 그래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36-1)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의 대응 방법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를 물었다. 이 질문에 대해 남편에게 물어 본다고 응답한 경우가 65.4%로 절대적이었다. 결혼이민자의 남편을 방언 교육을 포함한 한국어 교육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자세한 응답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43-1> 잘 모르는 방언에 대한 대응 방법

대책별	응답자	응답률(%)
남편에게 물어 본다	138	65.4
시부모님께 물어 본다	15	7.1
자녀에게 물어 본다	4	1.9
친구에게 물어 본다	7	3.3
한국어 선생님께 물어 본다	29	13.7
사전을 찾는다	10	4.7
인터넷을 검색한다	5	2.4
묻지 않고 그냥 있다	10	4.7
기 타	4	1.9
합 계	222	105.1

### (37) 방언을 많이 듣는 상황 분석

어디에서 방언을 많이 듣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시장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6.9%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TV 드라마라고 응답한 경우가 22.2%이었고 마을회관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7.2%, 그리고 음식점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13.8%나 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향후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 시 시장에서의 상황과 음식점에서의 상황 등을 교재 내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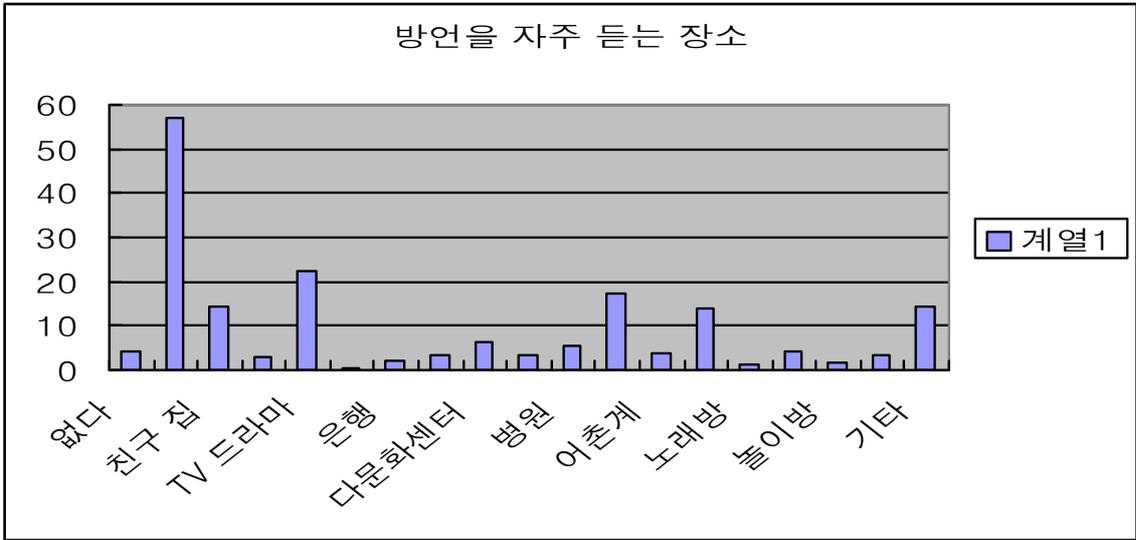
자세한 응답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44> 방언을 많이 듣는 곳

장소별	응답자	응답률(%)
없 다	10	4.2
시 장	136	56.9
친구 집	34	14.2
직 장	7	2.9
TV 드라마	53	22.2
우체국	1	0.4
은 행	5	2.1
미용실	8	3.3
다문화센터	15	6.3
교 회	8	3.3

병 원	13	5.4
마을회관	41	17.2
어촌계	9	3.8
음식점	33	13.8
노래방	3	1.3
학 교	10	4.2
놀이방	4	1.7
터미널	8	3.3
기 타	34	14.2
합 계	432	180.7

이러한 결과를 그래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38) 방언 교육의 필요성 분석**

방언을 배울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39.1%로 가장 많았고 조금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27.2%나 되었다. 이에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7.2%까지 포함하면 결혼이민자 절대 다수가 방언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응답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45> 방언 교육의 필요성

정도별	응답자	응답률(%)
꼭 필요하다	17	7.2
필요하다	92	39.1
조금 필요하다	64	27.2
거의 필요없다	24	10.2

전혀 필요없다	16	6.8
모르겠다	22	9.4
합 계	235	99.9

이러한 결과를 그래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39) 방언 학습 경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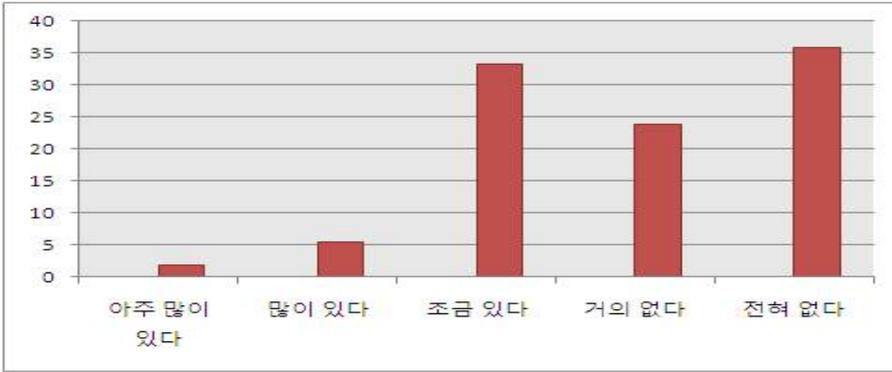
방언을 배운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35.7%로 가장 많았다. 이에 조금 있다 33.2%와 거의 없다 23.8%를 더하면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이 방언 교육 경험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38)에서 방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던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과 연관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즉 방언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방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세한 응답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46> 방언 학습 경험

정도별	응답자	응답률(%)
아주 많이 있다	4	1.7
많이 있다	13	5.5
조금 있다	78	33.2
거의 없다	56	23.8
전혀 없다	84	35.7
합 계	235	99.9

이러한 결과를 그래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40) 영역별 방언 교육의 필요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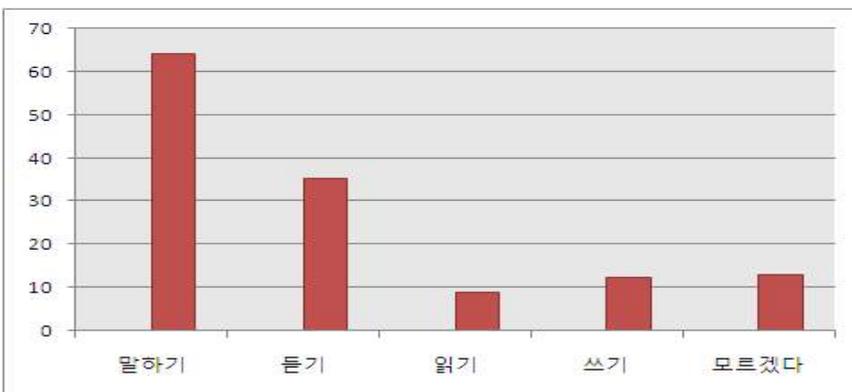
방언을 배운다면 어떤 영역을 배우고 싶은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말하기라고 응답한 경우가 64.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듣기라고 응답한 경우가 35.1%이었다. 이에 대해 읽기라고 응답한 경우는 8.8%이었고 쓰기라고 응답한 경우도 12.1% 밖에 되지 않았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종합하면 결혼이민자의 경우 방언 교육에 있어 읽기/쓰기 보다는 말하기/듣기에 대해 교육 받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응답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47> 영역별 방언 교육의 필요성

영역별	응답자	응답률(%)
말하기	153	64.0
듣기	84	35.1
읽기	21	8.8
쓰기	29	12.1
모르겠다	31	13.0
합계	318	133

이러한 결과를 그래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2. 방언 한국어 교육 및 교재의 필요성과 관련한 요구분석

이 장에서는 방언 한국어 교육 및 교재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관련 항목들을 연계하여 필요성이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방언 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38번 항목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 있는 항목을 연계하여 그 특성을 확인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교육 정도와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유(25번)를 비교하고 한국어 숙달도(22번)와 한국어 교육 기간(23번)도 비교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책에서 배운 말과 다른 말을 하는 가족(31번)과 방언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38번)을 비교하기로 한다.

### 1) 방언 한국어 교육 필요성과 거주지 교차 분석

한국어 학습자들의 거주지가 방언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알아본 것이 거주지와 방언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과의 교차 분석이다. 서울말에 가까운 중부 방언권 화자들이나 중부지역 학습자들은 방언차이가 적어 특별히 방언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대신 경상도나 전라도 또는 제주도 지역의 학습자들은 상대적으로 방언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한 것이 이 교차 분석이다.

<표 45> 방언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과 응답자 거주지와의 관계

문항 거주지	38번 항목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경 남	1	7.1	3	21.4	7	50.0	1	7.1	2	14.3	0	0.0
경 북	1	4.0	13	52.0	6	24.0	1	4.0	2	8.0	2	8.0
전 남	4	10.5	6	15.8	16	42.1	6	15.8	2	5.3	4	10.5
전 북	1	3.3	18	60.0	9	30.0	0	0.0	0	0.0	2	6.7
제 주	7	14.6	24	50.0	10	20.8	4	8.3	2	4.2	1	2.1
충 북	3	3.8	28	35.0	16	20.0	12	15.0	8	10.0	13	16.3
평 균	2.83	7.22	15.33	39.03	10.67	31.15	4.00	8.37	2.67	6.97	3.67	7.27

※ 비율: %

<표 45>에서 방언 교육이 필요한지를 묻는 38번 질문에 1번은 꼭 필요하다, 2번은 필요하다, 3번은 조금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이다. 따라서 1, 2, 3번은 방언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지역적 특성에 관계없이 결혼이민자의 78.0%(7.22(평균 1)+39.03(평균 2)+31.15(평균 3))가 방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거주지 별로 구분해보면 경남은 평균 요구 수치와 비슷한 7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고, 경북은 평균 수치보다 조금 많은 80.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북은 9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거의 대부분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전남은 6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일반적인 예상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필요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주의 경우 역시 86.0%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대다수의 결혼이민자들이 방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충북은 평균 요구 수치 보다 낮은 59.0%의 요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참고하면 방언의 특성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경북, 경남, 제주, 전북 등에서 방언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방언 한국어 교육 필요성과 방언권별 교차 분석

<표 46> 방언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과 방언권과의 관계

방언권 \ 문항	38번 항목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중 부	3	3.8	28	35.0	16	20.0	12	15.0	8	10.0	13	16.3
경 상	2	5.1	16	41.0	13	33.3	2	5.1	4	10.3	2	5.1
전 라	5	7.4	24	35.3	25	36.8	6	8.8	2	2.9	6	8.8
제 주	7	14.6	24	50.0	10	20.8	4	8.3	2	4.2	1	2.1
평 균	4.25	7.72	23.00	40.33	16.00	27.73	6.00	9.30	4.00	6.85	5.50	8.07

※ 비율: %

<표 46>은 <표 45>의 내용을 더 큰 방언권으로 확대하여 본 경우이다. 먼저 평균적으로 결혼이민자의 75.78%(1번 평균+2번 평균+3번 평균)가 방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필요성을 방언권 별로 구분하면 중부 방언권에서는 58.8%, 경상 방언권에서는 79.4%, 전라 방언권에서는 79.5%, 제주 방언권에서는 85.4%가 방언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방언 한국어 교육 필요성과 광역 방언권 교차분석

<표 47> 방언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과 광역 방언권과의 관계

방언권 \ 문항	38번 항목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중 부	3	3.8	28	35.0	16	20.0	12	15.0	8	10.0	13	16.3
남 부	14	9.0	64	41.3	48	31.0	12	7.7	8	5.2	9	5.8
평 균	8.50	6.40	46.00	38.15	32.00	25.50	12.00	11.35	8.00	7.60	11.00	11.05

※ 비율: %

<표 47>은 <표 46>을 더 크게 구분하여 중부 방언권과 남부 방언권으로 구분하여 그 필요성을 확인한 경우이다. 이는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과 먼 지역 간에 필요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이다.

먼저 평균적으로 70.05%(1번 평균+2번 평균+3번 평균)가 방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음에 대해 중부 방언권의 경우는 58.8%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고 남부 방언권의 경우는 81.3%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남부 방언권 화자들이 더 방언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4) 방언 한국어 교육 필요성과 체류 기간 교차분석

<표 48>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과 체류 기간과의 관계

문항 체류기간	38번 항목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	1	2.3	15	34.9	10	23.3	2	4.7	7	16.3	8	18.6
2	5	10.4	19	39.6	14	29.2	7	14.6	1	2.1	2	4.2
3	2	5.6	17	47.2	8	22.2	3	8.3	3	8.3	3	8.3
4	3	8.8	11	32.4	8	23.5	6	17.6	0	0.0	6	17.6
5	1	7.1	6	42.9	4	28.6	0	0.0	2	14.3	1	7.1
6	1	7.7	5	38.5	3	23.1	1	7.7	2	15.4	1	7.7
7	1	11.1	4	44.4	3	33.3	1	11.1	0	0.0	0	0.0
8	1	14.3	3	42.9	2	28.6	1	14.3	0	0.0	0	0.0
9	0	0.0	4	50.0	4	50.0	0	0.0	0	0.0	0	0.0
10	0	0.0	2	66.7	0	0.0	1	33.3	0	0.0	0	0.0
11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12	0	0.0	1	50.0	1	50.0	0	0.0	0	0.0	0	0.0
13	1	25.0	2	50.0	1	25.0	0	0.0	0	0.0	0	0.0
14	0	0.0	0	0.0	3	60.0	1	20.0	1	20.0	0	0.0
평균	1.14	6.59	6.36	38.54	4.36	28.34	1.71	16.54	1.14	5.46	1.50	4.54

※ 비율: %

<표 48>은 한국어에 체류한 기간과 방언 필요성을 비교한 경우이다. 먼저 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73.47%(1번 평균+2번 평균+3번 평균)가 방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체류 기간 별로 구분해보면 체류 기간 1년의 경우는 60.5%, 2년의 경우는 79.2%, 3년의 경우는 75.0%, 4년의 경우는 64.7%, 5년의 경우는 78.6%, 6년의 경우는 69.3%, 7년의 경우는 88.8%, 8년의 경우 역시 85.8%, 9년의 경우는 100%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어 체류 기간 4년, 6년을 제외하고 **체류 기간이 길수록 방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9년 이상의 경우는 응답자 수가 많지 않아 유의미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 5) 방언 한국어 교육 필요성과 교육정도 교차분석

<표 49> 방언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 정도와의 관계

문항 교육정도	38번 항목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초졸 이하	6	12.8	17	36.2	11	23.4	2	4.3	3	6.4	8	17.0
초졸 이상~ 중졸 이하	4	7.4	23	42.6	11	20.4	6	11.1	5	9.3	5	9.3
중졸 이상~ 고졸 이하	5	7.1	27	38.6	19	27.1	9	12.9	7	10.0	3	4.3
고졸 이상~ 대졸 이하	2	3.8	23	44.2	20	38.5	5	9.6	0	0.0	2	3.8
대졸 이상	0	0.0	1	25.0	1	25.0	0	0.0	1	25.0	1	25.0
평 균	3.40	6.22	18.20	37.32	12.40	26.88	4.40	7.58	3.20	10.14	3.80	11.88

※ 비율: %

<표 49>는 학력과 방언 필요성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우이다. 먼저 학력과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70.42%(1번 평균+2번 평균+3번 평균)가 방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학력과 연관 지어 보면 먼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는 72.4%가, 초등학교 졸업 이상 중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는 70.4%가, 중학교 졸업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는 72.8%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 대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는 86.5%가, 대학교 졸업 이상의 경우는 50%가 방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대학교 졸업 이상의 경우 응답자 수가 적어 유의미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이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방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6) 방언 한국어 교육 필요성과 한국어 숙달도 교차분석

<표 50> 방언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과 한국어 사용능력과의 관계 ※ 비율: %

22번 38번	38번 항목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2번 항목	1번	1	5.3	6	31.6	7	36.8	2	10.5	2	10.5	1	5.3
	2번	11	11.0	35	35.0	29	29.0	12	12.0	7	7.0	6	6.0
	3번	5	6.7	38	50.7	18	24.0	4	5.3	5	6.7	5	6.7
	4번	0	0.0	11	31.4	10	28.6	5	14.3	1	2.9	8	22.9
	5번	0	0.0	1	20.0	0	0.0	1	20.0	1	20.0	2	40.0
평균	3.40	4.60	18.20	33.74	12.80	23.68	4.80	12.42	3.20	9.42	4.40	16.18	

<표 50>은 한국어 숙달도에 따라 방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달리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먼저 22번 항목은 한국어를 얼마나 잘 하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이에 대해 1번은 아주 잘한다고 응답한 경우이고, 2번은 조금 잘한다, 3번은 조금 한다, 4번은 잘 못 한다, 5번은 전혀 못 한다고 응답한 경우이다.

자료를 보면 숙달도와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62.62%(1번 평균+2번 평균+3번 평균)가 방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숙달도에 따라 비교하면 먼저 아주 잘 한다고 응답한 경우 73.7%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고, 조금 잘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75.0%가, 조금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81.4%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잘 못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60.0%가, 전혀 못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0.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참고하면 한국어 숙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방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7) 방언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과 한국어 학습기간 교차분석

<표 51> 방언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과 한국어 학습 기간과의 관계

23번	38번	38번 항목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3번 항목	1번	1	10.0	4	40.0	1	10.0	1	10.0	2	20.0	1	10.0
	2번	3	3.9	24	31.2	25	32.5	11	14.3	7	9.1	7	9.1
	3번	5	8.3	22	36.7	16	26.7	7	11.7	3	5.0	7	11.7
	4번	3	7.7	19	48.7	10	25.6	2	5.1	1	2.6	4	10.3
	5번	3	9.7	15	48.4	7	22.6	1	3.2	2	6.5	3	9.7
	6번	0	0.0	6	60.0	2	20.0	1	10.0	1	10.0	0	0.0
	7번	2	33.3	2	33.3	2	33.3	0	0.0	0	0.0	0	0.0
평 균	2.43	10.41	13.14	42.61	9.00	24.39	3.29	7.76	2.29	7.60	3.14	7.26	

※ 비율: %

<표 51>은 한국어 학습 기간과 방언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먼저 23번은 한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한지 얼마나 되었는지를 질문한 경우이다. 이에 대해 1번은 1개월 미만, 2번은 1~6개월, 3번은 6개월~1년, 4번은 1~2년, 5번은 2~5년, 6번은 5년 이상, 7번은 기타 라고 응답한 경우이다.

자료를 보면 학습 기간과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77.41%(1번 평균+2번 평균+3번 평균)가 방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다시 학습 기간으로 구분하면 먼저 1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 60.0%가, 1~6개월이라고 응답한 경우 67.6%가, 6개월~1년이라고 응답한 경우 71.7%, 1~2년이라고 응답한 경우

82.0%가, 2~5년이라고 응답한 경우 80.7%가, 5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 80.0%가 방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면 한국어 학습 기간이 길면 길수록 방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8) 교육 정도와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유 교차 분석

<표 52> 학력과 한국어 학습 이유와의 관계

25번 교육정도		25번 항목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교육 정도	초졸	11	22.9	23	47.9	7	14.6	0	0.0	7	14.6	0	0.0	0	0.0
	중졸	13	24.1	22	40.7	8	14.8	1	1.9	8	14.8	1	1.9	1	1.9
	고졸	11	16.2	30	44.1	11	16.2	4	5.9	5	7.4	1	1.5	6	8.8
	대졸	12	23.1	27	51.9	8	15.4	1	1.9	2	3.8	0	0.0	2	3.8
	대졸 이상	0	0.0	1	25.0	1	25.0	0	0.0	0	0.0	1	25.0	1	25.0
평 균		9.40	17.26	20.6	41.92	7.0	17.2	1.20	1.94	4.4	8.12	0.6	5.68	2.00	7.90

※ 비율: %

<표 52>는 교육 정도와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유를 비교한 자료이다. 먼저 25번 항목은 왜 한국어를 배우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이에 대해 1번은 취직해서 돈 벌려고, 2번은 한국말을 잘 하려고, 3번은 자녀 교육을 하려고, 4번은 상급학교에 진학하려고, 5번은 남편(가족)이 배우라고 해서, 6번은 집에서 하는 일이 없어서, 7번은 기타라고 응답한 경우이다.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졸업 학력의 경우 한국말을 잘 하려고라고 응답한 경우가 47.9%로 가장 많았다. 다음 중학교 졸업 학력의 경우 역시 한국말을 잘 하려고라고 응답한 경우가 40.7%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대학교 졸업 학력의 경우로 이어져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의 경우는 44.1%가, 대학교 졸업 학력의 경우 역시 51.9%가 한국말을 잘 하려고라고 응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참고하면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한국말을 잘 하고 싶다는 요구에 기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9) 한국어 숙달도와 한국어 교육 기간 교차 분석

<표 53> 한국어 사용능력과 한국어 학습 기간과의 관계

23번 22번		23번 항목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2번 항목	1번	2	10.5	5	26.3	0	0.0	2	10.5	3	15.8	4	21.1	3	15.8
	2번	1	1.0	22	21.8	29	28.7	23	22.8	19	18.8	4	4.0	3	3.0
	3번	4	5.3	25	32.9	25	32.9	12	15.8	9	11.8	1	1.3	0	0.0
	4번	1	2.8	26	72.2	6	16.7	2	5.6	1	2.8	0	0.0	0	0.0
	5번	2	40.0	1	20.0	1	20.0	0	0.0	1	20.0	0	0.0	0	0.0
평 균		2.00	11.92	15.8	34.64	12.2	19.66	7.80	10.94	6.60	13.84	1.8	5.28	1.2	3.76

※ 비율: %

<표 53>은 한국어 숙달도와 한국어 교육 기간과의 상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 자료이다. 먼저 23번은 한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한지 얼마나 되었는지를 질문한 경우이다. 이에 대해 1번은 1개월 미만, 2번은 1~6개월, 3번은 6개월~1년, 4번은 1~2년, 5번은 2~5년, 6번은 5년 이상, 7번은 기타라고 응답한 경우이다. 다음으로 22번 항목은 한국어를 얼마나 잘 하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이에 대해 1번은 아주 잘 한다고 응답한 경우이고, 2번은 조금 잘한다, 3번은 조금 한다, 4번은 잘 못 한다, 5번은 전혀 못 한다고 응답한 경우이다.

이 자료를 보면 한국어를 잘 한다고 응답한 경우 교육 기간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잘 못 한다고 응답한 경우와 전혀 못 한다고 응답한 경우 교육 기간이 1개월 미만, 1~6개월에 집중되어 있어 교육 기간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국어 숙달도가 교육 기간 보다 교육 방법 등 다른 교육 환경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 10) 방언을 사용하는 가족과 방언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 교차 분석

<표 54> 방언사용 가족과 방언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과의 관계

31번		38번		38번 항목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31번 항목	1번	2	3.2	36	57.1	14	22.2	5	7.9	3	4.8	3	4.8
	2번	3	<b>9.4</b>	11	<b>34.4</b>	11	<b>34.4</b>	3	9.4	1	3.1	3	9.4
	3번	4	<b>6.1</b>	26	<b>39.4</b>	18	<b>27.3</b>	5	7.6	4	6.1	9	13.6
	4번	1	10.0	2	20.0	5	50.0	1	10.0	1	10.0	0	0.0
	5번	3	42.9	2	28.6	0	0.0	1	14.3	1	14.3	0	0.0
	6번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7번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8번	3	8.3	8	22.2	12	33.3	5	13.9	4	11.1	4	11.1
평 균		2.13	22.49	10.75	37.71	7.50	20.90	2.50	7.89	1.75	6.17	2.38	4.86

※ 비율: %

<표 54>는 교재에서 배운 말과 다른 말을 하는 가족과 방언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과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자료이다. 먼저 38번은 방언 교육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이다. 이에 대해 1번은 꼭 필요하다, 2번은 필요하다, 3번은 조금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이다. 따라서 1, 2, 3번은 방언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31번은 책에서 배운 말과 제일 다르게 말하는 가족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이다. 1번은 배우자, 2번은 시할아버지·시할머니, 3번은 시아버지·시어머니, 4번은 남편의 형제, 5번은 자녀, 6번은 동서, 7번은 조카, 8번은 기타라고 응답한 경우이다.

자료를 보면 제일 다르게 말하는 가족인 시할아버지·시할머니와 시아버지·시어머니 때문에 방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한국어 교사에 대한 요구 분석

한국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응답자는 총 75 명이었다. 응답 결과는 각 문항별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어떤 문항에서 어떤 응답률을 보이는지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빈도 분석은 일부 문항들에 대하여는 빈도조사 결과가 문항과 문항 간에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은 여덟 가지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빈도분석과 교차 분석의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빈도분석은 설문지의 문항번호 순서에 따라 기술하고 교차분석은 기준 문항의 번호 순서와 변수 문항의 번호 순서에 따라 기술하고자 한다.

#### 1) 빈도 분석

전체 회수된 질문지 75매 가운데 복수응답이 있는 문항의 경우는 응답의 우선순위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복수응답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통계처리 하였다. 가령 어떤 문항에 대하여 응답지가 다섯 개이고 기대하는 응답이 하나인데 두 개로 답한 경우는 두 개로 응답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응답지를 더 부여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이런 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해당 문항을 기술할 때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이 조사에서 얻어진 내용을 문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한국어 교육 지역 분포

이 질문은 한국어 교사들의 거주 지역에 따라 방언 한국어 교재의 필요성 정도가 어느 정도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 응답한 한국어 교사들의 교육지 분포는 다음 표와 같다. 제주도의 응답자 수가 적은 것은 상대적으로 조사 지역이 적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경상도의 경우는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지역에서 조사되었는데 비해 제주도는 한 군데에서만 조사했기 때문이다.

<표 55> 교사들의 교육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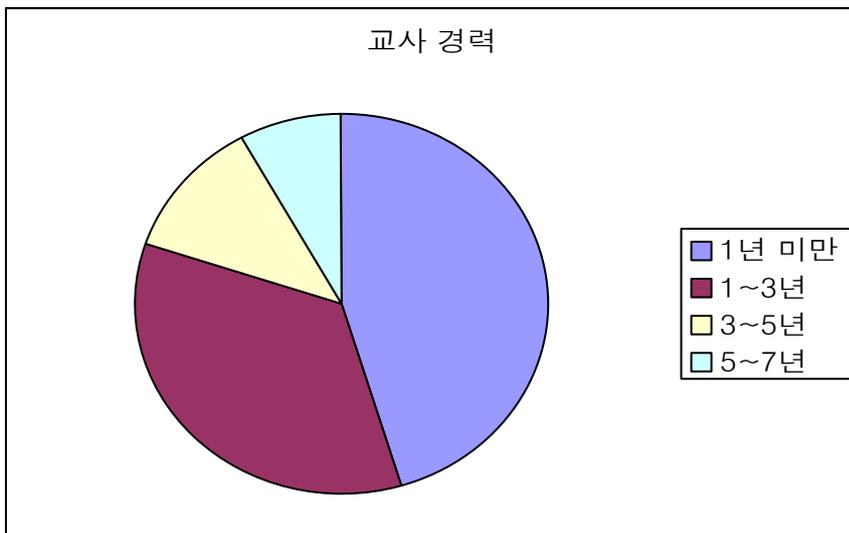
지역별	응답자 수	응답자 비율(%)
충청도	22	29.3
전라도	22	29.3
제주도	10	13.3
경상도	21	28.0
합 계	75	99.9

**(2) 한국어 교육 경력**

이 문항은 한국어 교육 경력과 방언 학습에 대한 태도 및 방언 한국어 교재에 적합한 내용으로 여기는 것이 교육 경력과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의 한국어 경력은 다음 <표 1>과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 교육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가 45.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교육 경력 1~3년이 34.7%였고 3~5년이 12.0%, 7년 이상도 8.0%나 되었지만 대체로 교육 경력이 짧은 편이었다. 이는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사가 봉사활동으로 이루어지는데다가 근래에 들어서야 한국어 교육이 단체나 기관에서 일반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56> 한국어 교사들의 교육경력

교사 경력	빈도(명)	비율(%)
1년 미만	34	45.3
1~3년	26	34.7
3~5년	9	12.0
5~7년	6	8.0
합 계	7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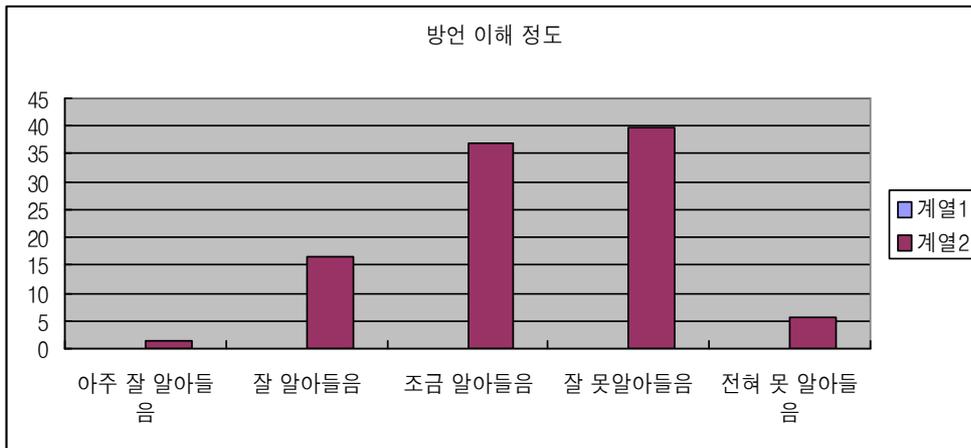
<그래프 1> 한국어 교사 경력

### (3) 학습자들의 방언 이해 여부

이 문항은 한국어 교사들이 보기에 결혼 이주여성 한국어 학습자들이 방언을 알아듣고 이해하여 방언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 문항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75명 가운데 73명이 응답하였다. 이 문항에 응답한 한국어 교사들의 대부분인 76.7%가 결혼 이주여성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방언을 조금 알아듣거나 잘 못 알아듣는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혀 못 알아듣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5.5%였다. 이에 반해 방언을 아주 잘 알아듣거나 잘 알아듣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17.8%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한국어 교사들 대부분이 한국어 학습자들이 방언을 알아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7> 이주여성들의 방언 이해도

방언 청취 정도	빈도	비율
아주 잘 알아듣는다	1	1.4
잘 알아듣는다	12	16.4
조금 알아듣는다	27	37.0
잘 못 알아듣는다	29	39.7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	4	5.5
합계	7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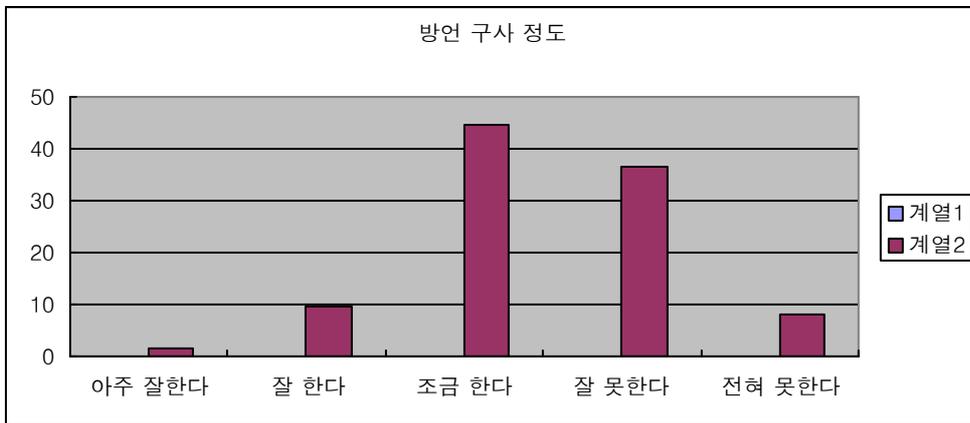
<그래프 2> 방언 이해도

### (4) 학습자들의 방언 구사 능력 여부

이 문항은 결혼 이주여성 한국어 학습자들이 방언을 얼마 잘 구사하는지와 방언에 대한 이해도를 동시에 알아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전체 응답자 75명 가운데 74명이 이 문항에 응답하였다. 응답자 가운데 1.4%만이 방언을 아주 잘 말할 줄 안다고 응답하였고 9.4%가 잘 말할 줄 안다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10.8% 정도가 방언을 잘 구사한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 되는 44.6%가 조금 말할 줄 안다고 응답하였고 36.5%가 잘 말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여 한국어 학습자들이 방언을 인식하고 있기는 하지만 방언을 구사 능력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58> 학습자들의 방언 구사 정도

방언구사 정도	빈 도	비 율
아주 잘 말할 줄 안다	1	1.4
잘 말할 줄 안다	7	9.4
조금 말할 줄 안다	33	44.6
잘 말하지 못한다	27	36.5
전혀 말하지 못한다	6	8.1
합 계	74	100



<그래프 3> 방언 구사 정도

### (5) 학습자들의 방언 어휘 이해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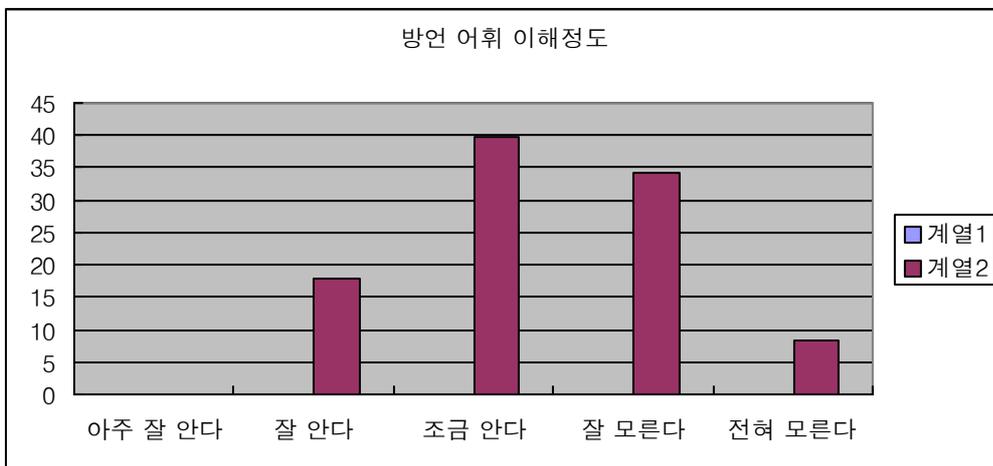
이 문항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방언권에 따라 독특한 방언 어휘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가령 표준어의 '간장'에 대하여 방언권에 따라 '간장' 이외에 '장물', '지렁', '지렁물' 등이 쓰이고 있어 '지렁 줌 떠 온나'나 '장물 줌 떠 와라'고 하면 표준어만을 학습한 경우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다. 이 문항은 4번 문항과 어느 정도 중복되는 질문인데 4번 문항보다 구체적으로 방언 어휘에 대한 이해 정도를 물어 방언권에 따라 한국어 학습자들 방언 어휘를 학습할 필요가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이 문항을 조사할 경우 한국어 구사 능력이 초급이나 중급 이하인 경우에는 표준어인지 방언인지조차 구별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한국어 교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간접 조사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문항이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하나도 없었으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7.8%였고 조금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9.8%여서 57.6%가 방언 어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어 학습자가 방언 어휘를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4.2%이고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8.2%여서 42.4% 정도가 방언 어휘인지 아닌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전체적으로 전반을 넘는 57.6% 정도가 방언 어휘를 알고 있으며 한국어 학습에서 방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아도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59> 방언 어휘 이해 정도

방언 어휘 이해정도	빈도	비율(%)
아주 잘 알고 있다	0	0
잘 알고 있다	13	17.8
조금 알고 있다	29	39.8
잘 알지 못한다	25	34.2
전혀 알지 못한다	6	8.2
합 계	73	100



<그래프 4> 방언 어휘 이해 정도

### (6) 학습자들이 방언을 자주 듣는 장소

이 문항은 결혼 이주여성 한국어 학습자들의 생활공간 범위를 알아보는 동시에 이들이 어디에서 방언을 가장 많이 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같은 유형의 문항을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도 물었는데 한국어 학습자들이 자주 가는 곳과 이들이 방언을 자주 접하는 곳이 어디인가를 확인하여 방언 한국어 교재를 개발할 때 학습 단위 설정에 활용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이 문항은 복수 응답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각 답지 항목별 응답자수를 따로 통계 처리하여 어느 항목에 얼마만큼의 응답자가 응답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통계 처리할 때는 이 문항의 ①번 항목에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가운데 몇 명인지 ②번 항목에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몇 명인지 ③번 항목에 응답한 응답자는 몇 명인지 ...등과 같이 변형하여 처리하였다. 그래야 하나의 문항에 복수로 응답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처리한 결과 전체 응답자 75명 가운데 집에서 방언을 가장 많이 듣는다고 응답한 수가 68명으로 90.7%를 차지하였다. 나머지 7명인 9.3%는 집 이외의 장소에서 방언을 듣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응답 항목인 시장에서 방언을 자주 듣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75명 가운데 56명으로 74.7%에 달했다. 이는 결혼 이주여성 한국어 학습자

들이 시장에서 방언을 많이 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응답을 보인 항목은 음식점(식당)이라고 응답하였다. 전체 75명 가운데 20명이 이 항목에 응답하여 26.7%가 음식점에서 방언을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마을 회관에서 방언을 자주 듣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17.3%, 친구 집에서 방언을 자주 듣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13.3%였고, 교회와 다문화센터 방언을 자주 듣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7%와 5.3%였다. 또한 미용실에서 방언을 자주 듣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5.3%로 나타났고 기타가 7.7%로 나타나 주로 자기 집과 시장에서 방언을 가장 많이 듣고 있고 음식점이나 마을회관 등에서도 방언을 자주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문지를 만들기 전에 예비 조사를 통해 예상 응답 항목을 설정한 것과 상당히 유사한 결과였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는 방언 한국어 학습 교재를 편찬한다면 교재 구성을 이런 상황이 반영되도록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교재 내용에 '집'안에서의 상황과 '시장' 상황 그리고 '음식점' 상황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한국어 학습교재는 수요자 중심으로 교재라기보다 편찬자 중심의 교재라고 할 수 있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60> 방언을 자주 듣는 곳

듣는지 여부 방언을 자주 듣는 곳	듣는다		안 듣는다		합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집	68	90.7	7	9.3	75	100
시 장	56	74.7	19	25.3	75	100
병 원	3	4.0	72	96.0	75	100
우체국	0	0	75	100	75	100
은 행	0	0	75	100	75	100
미용실	4	5.3	71	94.7	75	100
다문화센터	4	5.3	71	94.7	75	100
교 회	5	6.7	70	93.3	75	100
터미널(기차역, 항구)	4	5.3	56	94.7	75	100
마을회관	13	17.3	62	82.7	75	100
어촌계	2	2.7	73	97.3	75	100
친구 집	10	13.3	65	86.7	75	100
음식점(식당)	20	26.7	55	73.3	75	100
도서관	0	0	75	100	75	100
놀이방(어린이집)	0	0	75	100	75	100
노래방	0	0	75	100	75	100
학 교	1	1.3	74	98.7	75	100
기 타	5	6.7	70	93.3	75	100

위의 <표 6>에서 '듣는다'에 대한 빈도수와 비율은 실제로 응답한 경우지만 '안 듣는다'에 대한 빈도수와 비율은 응답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다. 왜냐하면 6번 문항에서 ①번 항목인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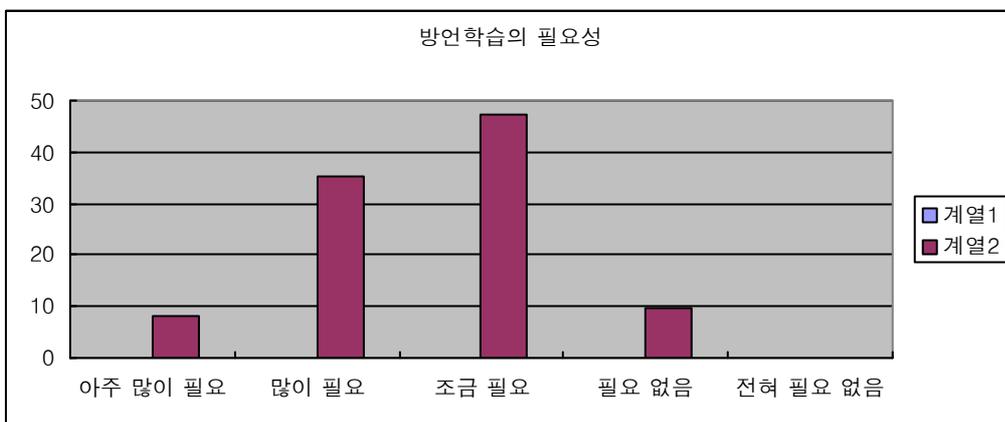
에 응답한 경우에만 '듣는다'에 응답한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안 듣는다'에 응답한 것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 (7) 학습자들의 방언 학습 필요성

이 문항은 결혼 이주여성 한국어 학습자들이 방언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한국어 교사들에게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응답 결과 아주 많이 필요하다와 많이 필요하다에 응답한 비율이 각각 8.1%와 35.1%이고 조금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7.3%로 나타나 방언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0.5%에 달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9.5%에 지나지 않았다. 1번 문항에서 중부 방언권에 속하는 충청북도 지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가 전체 응답자의 29.3%에 달하고, 남부 방언권과 제주도 방언권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이 70.7%였고 교사들 전체의 90.5%가 조금이라도 방언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아주 많이 필요하거나 많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비율이 43.2%나 된다는 점에서 이주여성들의 의사소통에 방언 학습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표와 그래프로 보이면 각각 다음과 같다.

<표 61> 이주여성들의 방언 학습 필요성

필요 정도	빈도(명)	비율(%)
아주 많이 필요하다	6	8.1
많이 필요하다	26	35.1
조금 필요하다	35	47.3
필요하지 않다	7	9.5
전혀 필요하지 않다	0	0
합 계	74	100



<그래프 4> 방언 학습의 필요성과 정도

#### (7-1) 학습자들의 방언 학습 필요성 여부

이 문항은 7번 문항에서 방언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90.5%의 응답자들에게 그 이

유를 묻는 것이다. 한국어 교사들이 이주여성들에게 방언 한국어 학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질문에 대해 남편과의 대화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40.9%에 달했고, 시댁 식구와 대화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가 74.2% 이웃이나 친구들과 대화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가 47.0% 였고, 시장이나 미용실 음식점 등에서 대화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30.3%였고 기타가 9.1%였다. 복수 응답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남편이나 가족 그리고 이웃이나 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방언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항도 앞의 6번 문항에서와 마찬가지로 복수로 응답하였기 때문에 답지의 항목별로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것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62> 학습자들의 방언 학습 필요성

방언 학습의 이유	빈도	비율
남편과 대화	27	40.9
시댁 가족과의 대화	49	74.2
이웃과 친구와 대화	31	47.0
일상 생활에서 대화	20	30.3
기 타	6	9.1

위의 표에서 각 항목의 빈도 합이 전체 응답자 수인 75를 넘고 비율이 100%를 넘는 것은 하나의 응답자가 두 개 이상의 항목에 복수 응답하도록 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다. 어쨌든 결혼 이주여성들은 남편이나 시댁 식구 또는 이웃이나 친구와의 대화 또는 시장이나 미장원, 음식점 등과 같은 장소에서 일상생활을 할 때 방언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방언 이해에 대한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한 8번 문항의 물음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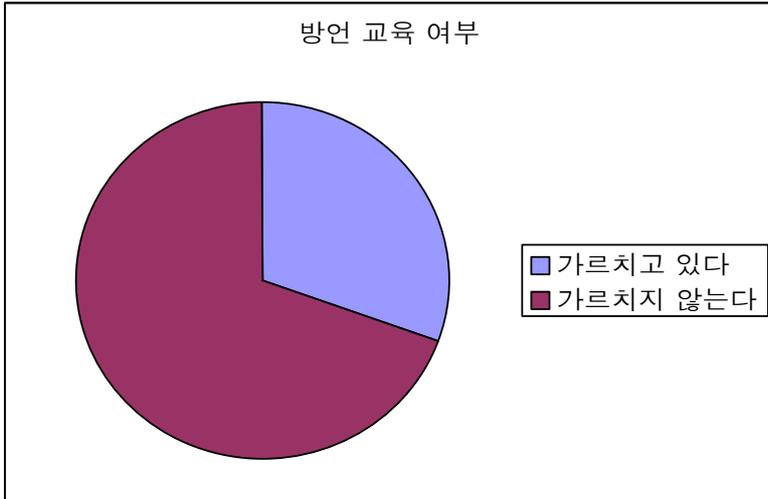
### (8) 한국어 교육 시 방언 교육 여부

8번 문항은 위의 7번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인 69.4%가 방언을 학습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응답했고 7-1 문항에서는 방언을 학습해야 할 이유로는 남편이나 가족, 이웃이나 친구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것과 관련하여 방언을 가르치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이다. 응답결과는 방언 학습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에 반해 실제 방언을 가르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다음의 표와 그래프에서 보듯이 3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거꾸로 말하면 이주여성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방언학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표 63> 한국어 교육 시 방언 교육 여부

방언 교육의 여부	빈도(명)	비율(%)
가르치고 있다	22	30.6

가르치지 않는다	50	69.4
합 계	72	100



<그래프 5> 방언 교육 여부

### (8-1) 방언 학습 교재의 성격

이 문항은 8번 문항에서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 방언을 함께 가르친다고 응답한 경우 어떤 교재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에 대하여 8번 항목에서 방언을 가르치고 있다고 응답한 22명 가운데 교재가 따로 없다는 응답이 16명으로 72.8%로 가장 많았고 스스로 혹은 이주여성 지원센터에서 제작한 교재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5명으로 22.7%를 차지하였고 기타가 4.5%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부나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서 편찬한 방언 학습 교재에 응답한 비율이 전무하다는 것은 체계적으로 제작한 방언 한국어 교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러한 교재의 편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항에 응답한 응답자 수가 적지만 응답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매우 중요하다. 7번 항목을 통해 볼 때 방언 교육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는 방언을 가르칠 교재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표 64> 방언 학습 교재

방언학습 교재	빈도	비율
교재가 없다	16	72.8
스스로 제작	5	22.7
기타	1	4.5
합 계	22	100

### (8-2) 교재에 포함된 주제

문항 8-2는 방언을 가르칠 때 주로 어떤 내용과 관련하여 가르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나중에 방언 한국어 학습 교재를 편찬할 경우 어떤 내용을 교재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문항이다. 이 문항에 대하여는 서

술하도록 했는데 가정에서의 생활이나 생활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은 9건이었고, 요리와 음식 이름과 관련된 내용이 5건이었으며 육아와 인사에 대한 내용이 각각 4건이었다. 이밖에도 질병에 관한 내용, 자녀 교육에 관한 내용, 교우관계에 대한 내용 등이 있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방언 한국어 교재를 편찬한다면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한다. 한국어 학습 현장에서 수요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8-3) 방언을 가르치는 유형

이 문항은 방언 학습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방언을 가르치는 유형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71.4%가 방문 교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가르치는 유형으로 방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23.8%는 이주민 지원센터와 같은 기관 단체에서 방언 교육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65> 방언을 가르치는 유형

방언 교육 유형	빈도(명)	비율(%)
방문 교육	15	71.4
기관 교육	5	23.8
기 타	1	4.8
합 계	21	100

### (8-4) 방언 교육의 영역

이 문항은 방언 한국어 교재를 편찬하게 된다면 언어 영역 가운데 어떤 영역에 중점을 둔 교재를 편찬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표준어를 교육하는 경우에는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영역을 모두 가르치고 있지만 방언을 가르칠 경우에는 어느 영역까지 가르쳐야 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항은 복수 응답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답지 항목 하나하나에 대하여 필요한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하여 말하기 영역에서 방언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90.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듣기 영역에 대하여는 77.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나 반면 읽기나 쓰기 영역에 대하여는 각각 13.6%와 9.1%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방언을 가르친다면 주로 말하기 영역과 듣기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교재를 편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어휘나 문화 영역에 대하여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2.7%와 27.3%가 되어 어휘와 문화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66> 방언 교육의 영역

방언 교육 영역	빈도	비율
말하기	20	90.9
듣 기	17	77.3
읽 기	3	13.6

쓰 기	2	9.1
어 휘	5	22.7
문 화	6	27.3
기 타	0	0

### (8-5) 방언 교육 시점

이 문항은 방언을 가르칠 때 학습자들의 한국어 수준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가르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응답자들의 9.1%가 한글의 자모 이해단계에서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59.1%는 한국어 초급 단계에서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31.8%는 한국어 중급 단계에서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방언 한국어 학습 교재를 편찬할 때 교재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를 가늠해보게 해준다. 응답 결과에서 보듯이 주로 초급단계나 중급 단계에서부터 방언을 가르쳐야 한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재를 편찬한다면 교재의 수준도 여기에 맞추어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67> 방언을 가르치는 시점

방언 교육 시점	빈도	비율
한글자모 이해 단계	2	9.1
한국어 초급 단계	13	59.1
한국어 중급 단계	7	31.8
한국어 고급 단계	0	0
기 타	0	0
합 계	22	100

### (8-6) 주당 방언 학습 시간

이 문항은 현재 방언을 가르치고 있다면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가르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절반인 50.0%가 기타라고 응답했는데 이것은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투입하여 방언을 가르치기보다 필요한 경우 불규칙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방언을 가르치는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두 시간 정도 가르치는 비율과 일주일에 두 번 네 시간씩 가르치는 비율이 각각 22.7%였고 일주일에 세 번씩 여섯 시간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다.

<표 68> 주당 방언 학습 시간

방언 학습 시간	빈도	비율
일주일에 한 번 두 시간	5	22.7
일주일에 두 번 네 시간	5	22.7

일주일에 세 번 여섯 시간	1	4.6
일주일에 네 번 여덟 시간	0	0
기 타	11	50.0
합 계	22	100

### (8-7) 방언 교육의 주체

이 문항은 방언을 가르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방언을 가르치는 주체는 방문 한국어 교사가 전체의 77.3%로 다수를 차지했고 한국어 교육기관 교사가 가르친다는 응답이 18.2%로 그 다음을 차지하여 방언 학습이 이주여성들 가르치는 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9> 방언 교육의 주체

방언 교육의 주체	빈도	비율
방문 교사	17	77.3
한국어 교육기관 교사	4	18.2
기 타	1	4.5
합 계	22	100

### (9) 적절한 방언 교육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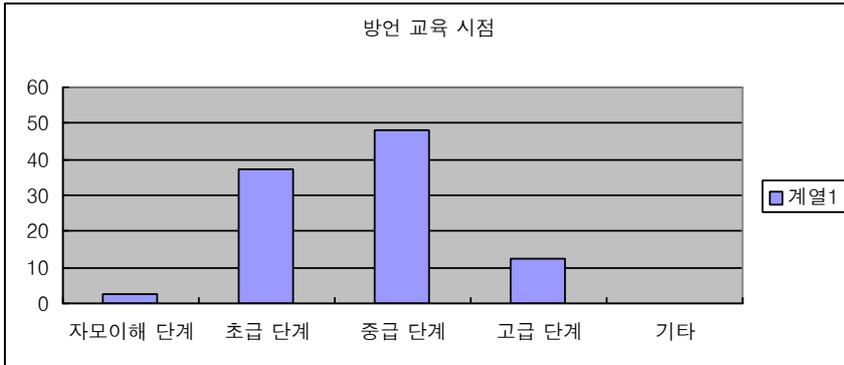
이 문항은 문항 8-5와 같은 질문인데 8-5에서는 현재 방언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문항 9는 방언을 가르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방언 교육의 시점으로 언제가 적절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과 방언 교육의 시점은 학습 교재의 수준을 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방언을 가르치는 시점에 대하여 한국어 교사들의 절반 가량인 47.9%가 학습자들의 한국어 중급 단계라고 응답하였고 한국어 초급 단계라고 응답한 비율은 37.0%였으면 한국어 고급 단계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2.3%였다. 이것을 표와 그래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70> 방언 교육 시점

방언 학습 시점	빈도	비율
한글자모 이해 단계	2	2.8
한국어 초급 단계	27	37.0
한국어 중급 단계	35	47.9
한국어 고급 단계	9	12.3

기 타	0	0
합 계	73	100



<그래프 6> 방언 교육 시기

### (10) 주당 적절한 방언 교육 시간

이 문항도 방언을 가르치고 있는 경우 방언 학습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묻는 문항 8-6과 같은 의도로 구성된 것이다. 방언을 가르칠 필요가 있고 방언을 가르치는 시기가 결정되었으면 어느 정도의 분량을 가르칠 것인가를 알아야 교재의 분량이나 내용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48.6%가 일주일에 한 번 두 시간씩 가르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이 기타로 30.6%가 응답하였으며 일주일에 두 번 네 시간씩 가르쳐야 한다는 응답도 19.4%였다. 이는 한국어 학습에서 방언 교육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보조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71> 적절한 방언 교육 시간

방언 교육 시간	빈도	비율
일주일에 한 번 두 시간	35	48.6
일주일에 두 번 네 시간	14	19.4
일주일에 세 번 여섯 시간	1	1.4
일주일에 네 번 여덟 시간	0	0
기 타	22	30.6
합 계	72	100

### (11) 방언 교육 시점과 표준어 교육 시점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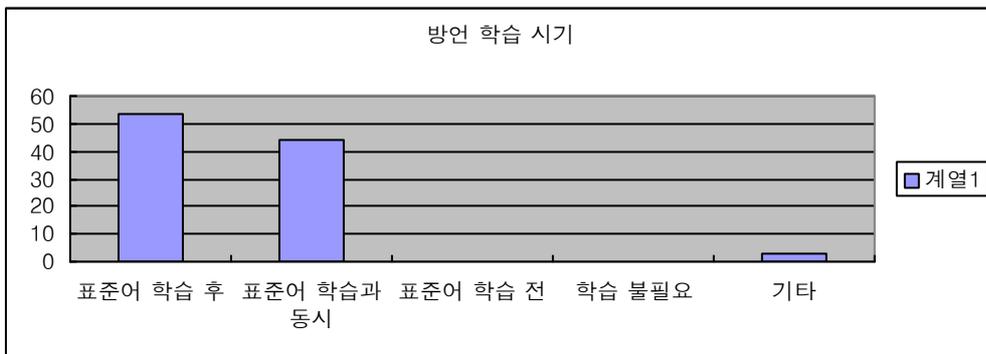
이 문항은 방언 교육을 한다면 표준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이해한 다음에 실시하는 것이 적당한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주여성들의 경우 처음에 기관이나 단체에서 표준어 교육을 받다가 집에서는 방언을 접하게 되어 표준어로는 무슨 말인지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표준어에 대한 이해와 방언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필

요한데 표준어와 방언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학습하는 것이 좋은지는 생활 현장에서 생존 언어로서 필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이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3.4%가 표준어를 학습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고 43.8%는 표준어와 방언을 동시에 학습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을 보였다. 반면에 표준어 학습 이전에 방언 학습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전무하였다. 이는 방언 교육은 필연적이지만 표준어 교육에 우선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를 표와 그래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72> 방언 교육 시점과 표준어 교육 시점과의 관련

표준어 교육과 방언 교육시기	빈도	비율
표준어를 학습한 이후	39	53.4
표준어와 동시 실시	32	43.8
표준어 학습 이후 실시	0	0
실시하지 말아야	0	0
기 타	2	2.8
합 계	73	100



<그래프 7> 방언 교육 시기와 표준어 교육시기와 관련

### (12) 방언 한국어 교재의 필요성

이 문항은 이주여성들이 한국어를 학습할 때 방언을 함께 학습해야 한다면 교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한국어 교사들 대부분이 표준어는 물론이고 방언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아울러 방언 교육의 시점은 한국어 능력 중급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표준어 학습보다 일찍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방언 교육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어 방언 교재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긍정적인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실제 응답 결과에서는 다소 의외로 나타났다. 즉 방언 한국어 교재가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응답자와 필요하다고 여기는 응답자가 각각 9.5%와 43.2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방언 한국어 교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는 응답이 36.5%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방언 한국어 교재가 필요하지 않다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응답자는 각각 8.1%와

2.7%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한국어 교사들이 방언 한국어 교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3> 방언 한국어 교재의 필요성

방언 한국어 교재의 필요성	빈도	비율
꼭 필요하다	7	9.5
필요하다	32	43.2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27	36.5
필요하지 않다	6	8.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2.7
합 계	74	100

### (13) 방언 한국어 교재의 내용

이 문항은 이주여성을 위한 방언 한국어 교재를 만들 경우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교재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한국어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느낀 주제들을 교재에 반영한다면 수요자와 교재 편찬자 간의 거리를 좁힐 수 있을 것이다. 이 문항에 대하여는 기술하도록 하였고 복수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 내용을 몇 가지 제시하면 ‘인사말 관련, 시장보기 관련, 육아 관련, 요리 관련, 자녀 교육 관련, 일상생활 관련, 가사일 관련, 가족 관계 관련’ 등이 언급되어 있어 다양하지 않은 편이다. 이는 이주여성들의 생활 반경이 그만큼 좁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연스럽게 방언 한국어 학습 교재의 내용도 이주여성들의 생활과 관련된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14) 방언 학습용 교재의 구성

이 문항은 방언 한국어 교재를 편찬할 경우 어느 정도의 학습량이 적당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대체로 하나의 과에 하나의 소주제를 선정하여 넣는다고 본다면 교재 구성에 필요한 과의 숫자는 소주제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13번 문항에서 수요자들이 주로 필요로 하는 내용을 교재에 반영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매우 유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질문에 대하여 10과 정도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8.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20과 정도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로 29.6%였고 15과 정도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5.5%였다. 그리고 30과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2.8%였고 기타에 응답한 비율이 14.1%나 되었다. 이러한 응답 결과로 볼 때 방언 한국어 교재는 15과에서 20과 정도의 분량으로 편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

<표 74> 방언 학습용 교재의 구성

방언 학습교재의 구성	빈도	비율
10과	27	38.0

15과	11	15.5
20과	21	29.6
25과	0	0
30과 이상	2	2.8
기 타	10	14.1
합 계	71	100

### (16) 방언 학습용 교재에 포함해야 할 영역

이 문항은 문항 8-4에서 현재 방언을 가르치고 있을 때 어떤 영역을 주로 가르치는지에 대한 질문과 같은 내용에 해당한다. 문항 8-4가 현재 방언을 가르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한정하여 질문한 것이라면 문항 16은 현재 방언을 가르치고 있지 않은 한국어 교사들까지 포함할 경우는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하여도 복수응답자가 많아 각각의 답지 항목에 따른 응답 결과를 통계처리하여 한국어 학습 교재에 포함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 방언 한국어 교재에는 말하기 영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듣기영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4.0%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문화에 대한 영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과 어휘 영역을 포함해야 한다는 비율이 각각 20.0%와 24.0%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읽기 영역에 대하여는 5.3%만이 교재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쓰기 영역을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 무하였다. 이는 방언 한국어 교재에는 ‘말하기, 듣기, 문화, 어휘’의 순으로 기능 영역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75> 방언 한국어에 포함해야 할 영역

방언 한국어 교재 영역	빈도	비율
말하기	49	65.3
듣 기	33	44.0
읽 기	4	5.3
쓰 기	0	0
문 화	15	20.0
어 휘	18	24.0
문 법	1	1.3
기 타	0	0

### (17) 바람직한 방언 한국어 교육의 주체

이 문항은 방언을 가르친다면 누가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하여도 복수 응답자가 많이 나와 응답 항목 별로 빈도수와 백분율을 살펴보았다. 방언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고 교사를 확보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 질문에 대하여 한국어 교육기관 교사가 가르쳐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정도인 49.3%로 나타났고 방문 교사가 가르쳐야 한다는 응답은 37.3%였다. 이에 비해 남편이 가르쳐야 한다는 응답은 10.7%, 시부모님이 가르쳐야 한다는 응답이 6.7%인데 비해 친구가 가르쳐야 한다는 응답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한국어 교육기관 교사나 방문교사가 가르쳐야 한다는 응답이 많은 비율을 보인 것은 설문 조사가 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 면도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방언 한국어의 교육 주체를 한국어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76> 방언 한국어를 가르칠 주체

방언 교육의 주체	빈도	비율
한국어 교육기관 교사	37	49.3
방문 교사	28	37.3
남 편	8	10.7
시부모님	5	6.7
친 구	0	0
기 타	1	1.3

### (18) 바람직한 방언 학습 장소

이 문항은 수요자들 중심으로 교육지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한국어 교육이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어떤 방언형을 어떻게 어디에서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1%가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방언을 가르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기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42.5%가 집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이는 방언 교육이 한국어 교육기관이나 집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편안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77> 바람직한 방언 교육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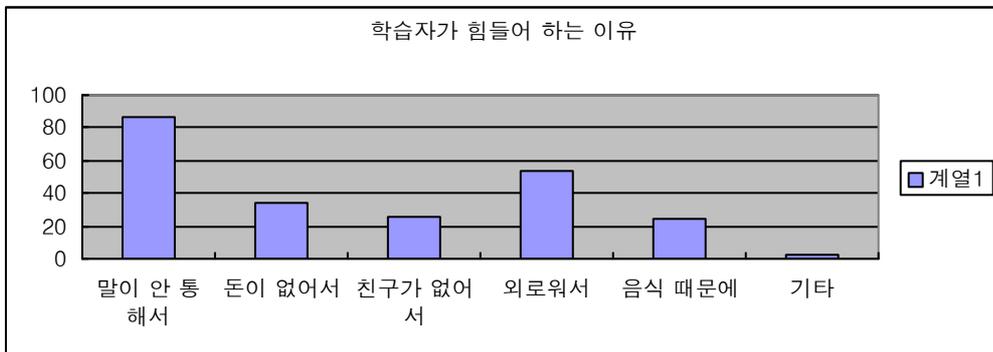
방언 교육 장소 의견	빈도	비율
한국어 교육 기관	38	52.1
집	31	42.5
기 타	4	5.4
합 계	73	100

### (19) 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에서 힘들어하는 점

이 문항은 결혼 이주여성들이 겪는 가장 큰 문화적 갈등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결혼을 해서 이국땅으로 이주하여 정착해 산다는 것은 자연환경과 음식, 가족 등 모두가 낯설 때문에 생활하기가 힘들 수 있다. 복수 응답을 하도록 한 문항이기 때문에 각 답지 항목 별로 어느 정도의 비율로 문화적 갈등을 겪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겪는 문화적 갈등 가운데 이주여성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말이 안 통해서 겪는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86.7%에 달했다. 이는 모든 갈등의 출발점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갈등 해소의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주여성들이 겪는 갈등 가운데 언어 다음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던 항목은 외로워서(친정 생각이 나서)라는 응답으로 53.3%였다. 이 외에 돈이 없어서 힘들다는 항목에 응답한 비율도 34.7%나 되어 이주여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친구가 없어서 겪는 어려움과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겪는 어려움이 각각 25.3%와 24.0%로 나타나 이주여성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기본적인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항목 가운데 ‘친구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을 넓게 보아 ‘외로워서’ 생활하기가 힘들다고 보면 외로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율이 90%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결혼 이주여성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의사소통 장애와 외로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이주여성을 위한 방언 한국어 교재를 만든다면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응답 결과를 표와 그래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78> 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에서 어려워하는 점

학습자가 힘들어하는 요인	빈도	비율
말이 안 통해서	65	86.7
돈이 없어서	26	34.7
친구가 없어서	19	25.3
외로워서(친정 생각)	40	53.3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18	24.0
기 타	2	2.7



<그래프 8> 이주여성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이유

## (20)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

이 문항은 이주여성 한국어 학습자들이 부부간에 겪는 갈등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에 조기 정착 여부에 대한 성패는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겪는 갈등들을 줄이거나 해소하는 데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겪는 갈등 요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문항도 복수응답을 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답지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을 통하여 어떤 항목이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아울러 응답 결과를 통하여 이들 이주여성들을 위한 방언 한국어 교재를 만든다면 이들이 겪는 갈등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주여성 한국어 학습자들이 부부싸움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시하거나 차별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50.7%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의 사회 구성원들이 가진 금전만능주의 내지 유교적인 전통을 이어오는 가부장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과 같이 급격히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편견은 빨리 없어져야 할 과제라고 할 것이다. 부부싸움을 하는 두 번째 요인으로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37.3%였고 이어서 배우자인 남편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것도 부부싸움의 요인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34.7%나 되었다. 결혼 전의 약속 내용은 결혼 후에는 처가에 얼마간의 돈을 정기적으로 보내주겠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주여성들이 국제결혼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고 친정에도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부간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배우자가 돈을 벌지 않아서와 자녀 양육과 교육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각각 30.7%와 21.3%로 나타났고 이주여성이 친구 만나는 것을 싫어해서라는 응답과 배우자가 시부모님 말만 들어서라는 응답도 각각 20.0%와 16.0%로 나타났다. 이주여성이 친구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국제결혼의 매개 방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국제결혼이 일종의 매매혼 성격을 띠기 때문에 남편들이 아내가 친구들과 자주 만나 정보를 교환하면 가정을 이탈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 외에도 국제전화를 많이 하는 것도 응답자의 18.7%가 갈등의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요인들은 결국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문제와 함께 가정 경제적인 여건이 부부싸움의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부부싸움을 안 한다는 응답은 6.7%에 불과하여 부부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언 한국어 학습교재를 만들 때 갈등 해소를 위한 내용을 반영한다면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79>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	빈도	비율
부부싸움을 안 한다	5	6.7
배우자가 돈을 안 벌어서	23	30.7
남편이 시부모 말만 들어서	12	16.0
자녀 양육과 교육 때문에	16	21.3
결혼전의 약속을 안 지켜서	28	37.3
학습자가 친구 만나는 것을 싫어해서	15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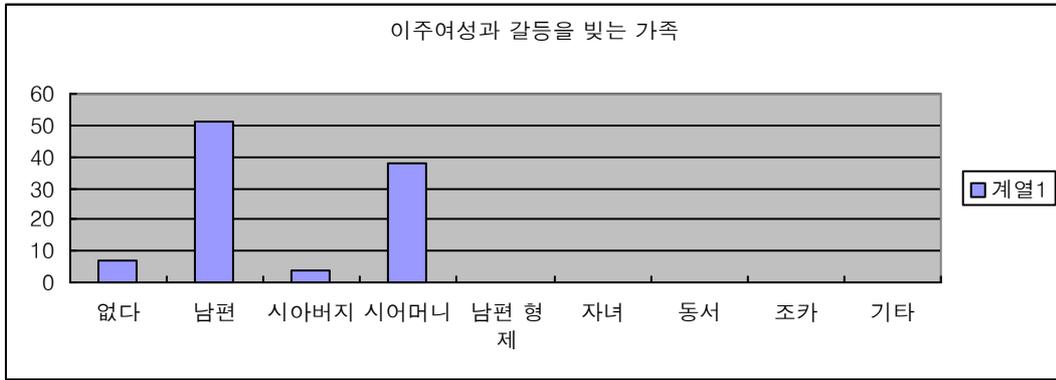
배우자가 술마시고 늦게 귀가해서	26	34.7
학습자가 컴퓨터를 많이 해서	4	5.3
학습자가 국제전화를 많이 해서	14	18.7
학습자를 무시하거나 차별해서	38	50.7

### (21) 학습자와 갈등을 빚는 가족

이 문항은 이주여성이 가족 가운데 누구와의 갈등이 가장 큰지를 알아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가장 갈등을 많이 빚는 요인을 없애거나 줄인다면 그만큼 이주여성들의 한국 정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잠재적인 사회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질문에 대하여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을 보인 항목은 남편으로 51.4%나 되었다. 다음으로 갈등이 많은 가족은 시어머니로 37.7%의 응답 비율을 보여 남편과 시어머니가 가족 갈등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갈등이 적어야 할 남편과의 갈등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인데 이는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문화적인 차이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반면에 갈등을 빚는 가족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6.8%에 불과하여 대다수의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가장 가까운 가족과 가장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이 문항에서 갈등을 빚는 가족일 것으로 보아 제시한 남편의 형제나 자녀, 동서, 조카 등은 전혀 갈등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80> 학습자와 갈등을 빚는 가족

갈등을 빚는 가족	빈도	비율
없 다	5	6.8
남 편	38	51.4
시아버지	3	4.1
시어머니	28	37.7
남편의 형제	0	0
자 녀	0	0
동 서	0	0
조 카	0	0
기 타	0	0
합 계	74	100



<그래프 9> 이주여성과 갈등을 빚는 가족

### (21-1) 학습자와 가족이 갈등을 빚는 이유

이 문항은 이주여성 학습자들이 가족과 갈등을 빚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위 21번 문항에서 보았듯이 대부분의 이주여성이 갈등을 겪고 있고 그것도 자기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항에 대하여도 복수로 응답하도록 했기 때문에 답지 항목 각각에 대한 응답률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들의 36.5%가 학습자에게 돈을 벌거나 쓰는 데 간섭을 하는 것이 가족 간의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응답하였고 이어서 학습자에게 한국문화와 예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도 20.3%로 가족 간의 커다란 갈등 요인으로 나타났다. 복수 응답자의 경우는 이 두 가지가 다 가족 간의 갈등을 초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5.7%나 되어 가족 간의 갈등의 대부분이 이 두 가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가족 간의 갈등 요인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와 문화적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고 할 것이다.

<표 81> 학습자와 가족 간에 갈등을 빚는 이유

가족 간의 갈등 요인	빈도	비율
말을 못 알아들어서	5	6.8
한국문화와 예절을 강요해서	15	20.3
자녀양육에 간섭해서	1	1.4
돈을 벌거나 쓰는 데 간섭해서	27	36.5
무시하거나 차별을 해서	0	0
친정 생각을 안 해줘서	0	0
한국문화 예절을 강요하고 자녀양육에 간섭해서	2	2.7
한국문화 예절을 가용하고 돈에 간섭을 해서	19	25.7
한국문화 예절을 가용하고 자녀양육과 돈에 간섭해서	2	2.7
자녀양육과 돈에 간섭해서	2	2.7
돈을 벌고 쓰는 데 간섭하고 무시와 차별해서	1	1.4

## (22) 학습자들이 주로 많이 가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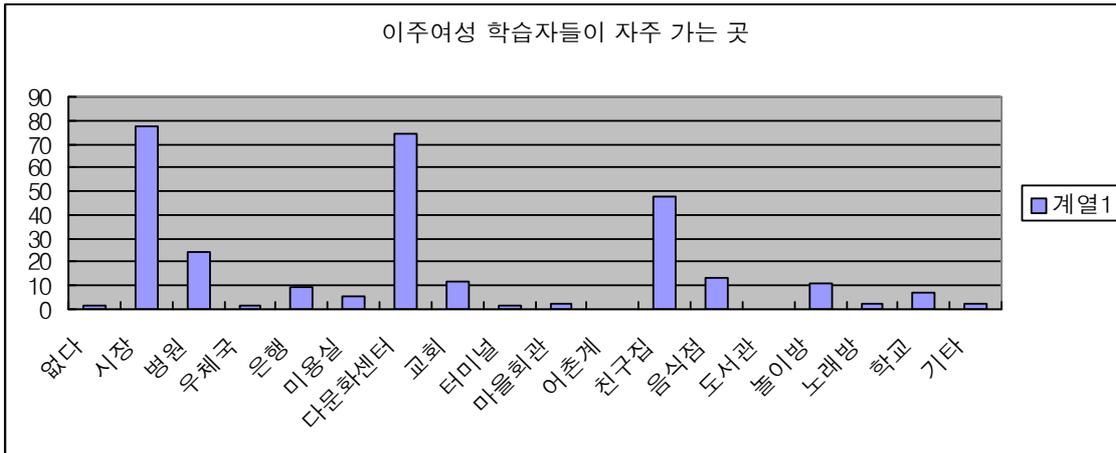
이 문항은 학습자들의 생활 반경을 확인해보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학습자들이 주로 많이 생활하는 공간이 이주여성들이 한국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간인 동시에 방언을 가장 자주 접하는 곳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주여성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이들의 생활공간인 동시에 활동 반경이므로 이들을 위한 방언 한국어 교재를 만들 때 교재 내용과 상황 설정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문항도 복수로 응답하도록 했기 때문에 각 답지 항목별로 응답률을 살펴보았다.

이주여성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은 응답률 77.3%를 보인 시장이었다. 이들이 주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많이 간다고 응답한 곳은 74.7%의 응답률을 보인 다문화센터다. 이는 이 설문조사의 특성과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설문의 응답자인 한국어 교사들과 이주여성이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이 다문화센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가는 곳이 친구 집으로 48.0%였는데 이는 외로움을 달래고 정보를 교환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주 가는 곳이 병원으로 24.0%의 응답률을 보였는데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가 앓을 경우에도 병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주 가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외에도 교회, 놀이방, 음식점에 간다는 비율이 각각 12.0%, 10.7%와 13.3%로 나타나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은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학교나 은행, 미용실 등의 응답이 있었으나 이런 곳은 필요할 때만 가는 곳이라는 점에서 아주 자주 가는 곳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 이주여성들의 활동 반경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를 편찬할 때도 이런 점을 고려하여 상황을 설정하고 소단원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표 82> 학습자들이 주로 많이 가는 곳

이주여성들이 자주 가는 곳	빈도	비율
없 다	1	1.3
시 장	58	77.3
병 원	18	24.0
우체국	1	1.3
은 행	7	9.3
미용실	4	5.3
다문화센터	56	74.7
교 회	9	12.0
터미널(항구, 역)	1	1.3
마을회관	2	2.7
어촌계	0	0
친구 집	36	48.0
음식점(식당)	10	13.3

도서관	0	0
놀이방	8	10.7
노래방	2	2.7
학 교	5	6.7
기 타	2	2.7



<그래프 10> 이주여성 한국어 학습자들이 자주 가는 곳

### (23)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 문화

이 문항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와서 겪는 가장 큰 문화적인 갈등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문항에 대하여도 복수 응답을 하게 하였기 때문에 각 응답 항목간의 비교보다는 각 항목에 대한 응답률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한국 문화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하여 문화적인 갈등을 해소하거나 최소화할 때 진정한 다문화국가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65.3%의 비율을 보인 예절문화(경어법, 호칭)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장유유서 문화가 이주여성들에게는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극복하기 어려운 문화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로 꼽은 것이 제사문화인데 38.7%의 응답률을 보였다. 연중 여러 차례의 제사 준비와 가족들의 뒷바라지가 매우 힘들게 느껴진 것으로 이해된다. 이주여성들에게는 음식문화와 장례 문화도 각각 24.0%와 18.7%의 비율로 이해하기 힘든 한국 문화로 꼽았다. 이 외에 결혼문화도 10.0%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문화나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문화를 다른 나라 문화와 비교해볼 때 제사, 장례, 예절 등 유교적인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경우일수록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이는 일종의 금기(터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83> 이주여성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 문화

이주여성들이 이해 못하는 한국 문화	빈도	비율
예절문화(경어법, 호칭 등)	49	65.3

제사문화	29	38.7
음식문화	18	24.0
결혼문화	8	10.7
장례문화	14	18.7
기 타	12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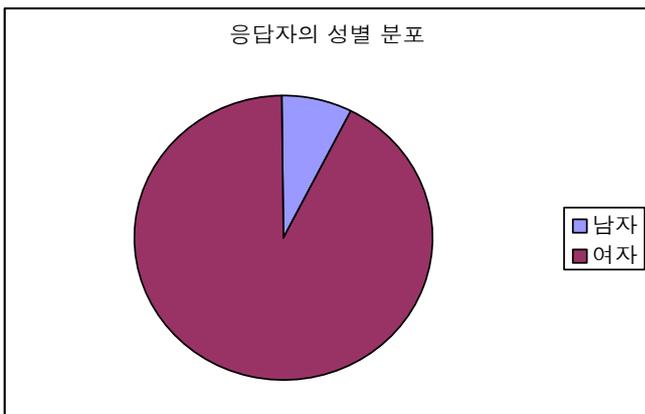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묻는 항목을 마련하였다. 학력이나 출신지에 따라 방언 한국어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 (24) 응답자의 성별 분포

응답자의 성별은 전체 응답자 75명 가운데 65명이 응답하였고 응답자 가운데 남자가 5명이고 여자가 60명 무응답이 10명이었다. 비율로 보면 여자가 92.3%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이 주로 이주여성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표와 그래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84> 응답자 성별 분포

성 별	빈도	비율
남	5	7.7
여	60	92.3
합 계	6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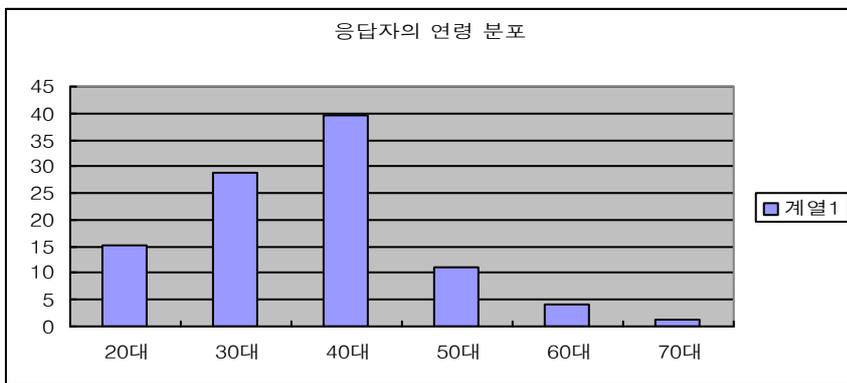
<그래프 11> 응답자의 성별 분포

#### (25) 응답자의 연령 분포

응답자의 연령분포는 30대가 32.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40대로 30.4%였으며 20대가 19.6%, 50대가 10.7%였다. 60대와 70대도 있어 각각 5.4%와 1.8%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대 별 분포를 표와 그래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85> 응답자의 연령대별 분포 비율

응답자 연령대	빈도	비율
20대	11	15.1
30대	21	28.8
40대	29	39.6
50대	8	11.0
60대	3	4.1
70대	1	1.4
합 계	73	100



<그래프 12>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

**(26) 응답자의 학력 분포**

응답자의 학력도 살펴보았다. 응답자의 학력은 대졸이 65.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학원졸로 17.8%로 나타났다. 고졸과 전문대졸이 각각 8.2%와 6.8%였고 대학 재학이 1.4%였다. 전체적으로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학력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6>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사의 학력 분포

한국어 교사의 학력분포	빈도	비율
고 졸	6	8.2
대 재	1	1.4
전문대졸	5	6.8
대 졸	48	65.8
대학원졸	13	17.8
합 계	73	100

### (27) 응답자의 출신지 분포

한국어 교사의 출신지와 한국어 학습 특히 방언 학습의 필요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아 출신지를 조사하였다. 출신지를 광역 방언권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87> 한국어 교사 출신지 분포

한국어 교사 출신지 분포	빈도	비율
중부방언권	20	27.4
경상방언권	24	32.9
전라방언권	21	28.8
제주방언권	8	10.9
합 계	73	100

## VI. 방언 한국어 교재 내용과 교재 모형

방언 교재 모형은 두 가지 유형으로 개발하였다. 이는 방언 교재에 대한 개발이 처음 시도되는 경우이고 이에 따라 다양한 모형을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모형을 중심으로 한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방언 한국어 교재의 수준은 국제결혼 이주여성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반영하여 중급 수준으로 구성하였다. 한국어 교사들은 초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들은 방언과 표준어의 구별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언 교육의 의미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거주지가 방언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방이고 한국 이주 초기부터 생활을 위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초급 수준의 방언 한국어 교재의 편찬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 한국어 학습자들이 겪는 의사소통의 문제와 갈등의 문제는 한국어 능력 초급 수준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방언 한국어 교재의 모형은 두 가지로 개발하였다. 방언 한국어 교재의 두 모형은 다 충청북도 방언을 반영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는 연구진들의 출신 방언권을 고려하였고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연구진들과 한국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였다.

방언 한국어 교재의 두 모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 1. 교재 모형 1

모형 1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단원의 첫 페이지는 단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제목을 방언으로 제시하고 삽화를 넣고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과 관련된 간단한 질문문을 다섯 문장 이내로 제시하였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실제 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반영된 방언 대화문을 넣었고 본문 아래 본문에서 사용한 새로운 방언 어휘를 제시하여 학습할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에는 두 번째 페이지에 제시된 방언 대화문과 방언 어휘를 표준어 대역으로 제시하여 방언과 표준어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네 번째 페이지에는 본문에 제시되었던 방언이 지역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지역 방언들을 제시하여 학습자와 교사들이 참고하도록 하였다. 동일 방언권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이나 화자에 따라 이형태를 보일 수 있고 복수 방언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이들 방언을 활용한 예문들을 제시하여 실제 대화에서 활용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 번째 페이지에는 본문에 제시된 방언을 사용하여 연습해볼 수 있도록 듣기, 말하기 문제를 제시하여 실생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여섯 번째 페이지는 국가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설명함으로써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이해 설문 결과를 반영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문화와 관련된 주제를 골라 설명함으로써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문화는 오랜 관습의 결과이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는 갈등을 해결하거나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문화 이해

부분은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내용과 다른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내용들로 구성하였다. 국제 결혼 이주여성들은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한국 가족들은 이주여성들의 모국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 이해를 위한 장이 되도록 하였다.

## 제1과 텐장찌개 끓여유.



1. 뭘 하구 있어유?
2. 좋아하는 반찬이 뭐유?
3. 텐장찌개 끓일 수 있어유?

## 방언

양 운 : 어머니, 저녁에 뭘 끓여 먹을까요?

시어머니 : 애비가 좋아하는 덴장 끄리라.

양 운 : 어떻게 끓여요?

시어머니 : 면여 메루치, 다시마를 삶아서 국물을 우려내.

다 된 국물을 투가리에 반 줌 붓구 호박하구 무수를 쓰러 느.

내중에 덴장을 한 숟갈 정도 풀구 양념을 놓구 끓이믄 되넌 거여.

여기다가 꼬치장하구 두부를 쪼금 느만 더 맛있어.

양 운 : 그런데 저는 냄새가 나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시어머니 : 한 숟갈 먹어 보구 입에 안 맞으면 안 먹어두 대.

양 운 : 음~, 냄새는 안 좋은데 맛있어요.

저도 맛있게 끓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새로운 어휘

장

애비

면여

메루치

투가리

숟갈

무수

내중에

덴장

양념

꼬치장



## ♥ 동네마다 달라요

- 끄리라, 끄려라
- 먼여, 머녀
- 매루치, 메레치, 메루치, 메리치, 메르치, 멜치, 머루치, 미루치, 미르치,
- 국물, 궁물
- 뚜가리, 투가리, 툃배기, 툃배기
- 늘다, 열다
- 내중에, 나중애, 낭중애, 다미, 다음이, 대밀쌔, 야중에, 양중에
- 덴장, 덴장, 똬장, 디장, 단장
- 수깄, 수까락, 수끼락, 수저, 수제, 숙깄, 솟갈,
- 꼬치장, 고치장, 꼬추장
- 먹다, 멍는다, 멍넌다

## ♥ 재미있는 방언 표현

1. **끄리라** → (표준) 끓여라  
① 커피 물 줌 끄리라.  
② 오래 끄린 국이 맛있어요.
2. **쌀머서** → (표준) 삶아서  
① 겨울에는 고구마를 쌀머서도 먹어요.  
② 행주를 깨끗하게 쌀머요.
3. **되녕거여** → (표준) 되는거야  
① 그렇게 하면 되녕거여  
② 이 감이 나중에 곱감이 되녕거여.
5. **씨러** → (표준) 찢어  
① 파를 씨러 넣고 마늘도 넣어요.  
② 떡국에는 가래떡을 씨러 만두와 같이 끓여요.
6. **열구** → (표준) 넣고  
① 세탁기에 옷을 열구 세제도 여.  
② 라면에 계란을 여면 맛있어요.
7. **꼭 안 마즈은 안 머그두 대** → 꼭 안 맞으면 안 먹어도 돼

## 들어보세요!

1. 식사 전에 \_\_\_\_\_ 손을 씻어요.  
 많이             먼저             빨리
2. 무거우니까 가방 속에 책을 조금만 \_\_\_\_\_.  
 여             사             하
3. 지금은 안 계세요. \_\_\_\_\_ 다시 오세요.  
 그런데             나중에             마중

## 말해보세요!

1. 먼저 뚜껑배기에 국물을 부어요.
2. 양념으로 파하고 마늘도 넣어.
3. 장이 제 입에 꼭 맞아요.

## 함께 이야기해요!

1. 우리 집에서는 된장을 끓일 때 어떤 재료를 넣어요?
2. 가장 잘 하는 한국 음식이 뭐예요?

## 음식도 가지가지.....

한국 음식의 기본은 뭘니 뭘니 해도 밥, 국, 김치예요. 국 대신 탕이나 찌개를 놓을 때도 있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반찬이 함께 상에 올라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번 모두 밥으로 먹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어요. 한국에 비해 베트남 사람들은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아침밥을 잘 먹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해야 하고 꼬박꼬박 밥을 챙겨야 하는 것은 힘들겠죠.

한국 사람들이 요리를 할 때나 식사를 할 때 꼭 필요한 것은 양념과 장이에요. 맛을 내기 위해서 음식에 넣기도 하고 하나의 반찬처럼 먹기도 하죠. 중국음식은 보통 볶거나 튀기는 요리인데 한국은 무침이 많아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보다 한국에서는 강한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베트남 사람들은 음식의 간을 강하게 하는 편이어서, 수박을 소금과 고춧가루에 찍어먹고, 망고에는 간장과 설탕 등을 뿌려 먹어요. 한국과 다른 날씨 조건으로 인해 고기를 끓이지 않고 먹던 몽골이나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사람들은 한국의 반찬이 대부분 채소인 것에 적응을 못 하기도 해요. 게다가 몽골에서는 해산물을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산 낙지, 꽃게 등은 벌레 같아서 먹기 힘들다고 해요.

이처럼 우리 가족 중에서도 식생활이 달라서 속상할 때가 많은데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는 하나의 방법으로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시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에 조금씩 맛 들이는 것은 어떨까요?

## 2. 교재 모형 2

교재 모형 2의 전체적인 구성은 모형 1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 구성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하였다. 모형 1이 실제 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방언 어휘를 대화문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구성되었다면 모형 2는 방언 표현을 문법 정보를 중심으로 하여 연습하게 하고 연습 문제를 제시하여 학습자와 교사가 함께 연습해 보도록 구성하여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 구성한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교재 모형 2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단원의 첫 페이지는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제목을 제시하고 삽화를 넣어 학습동기를 유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삽화 아래에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과 관련된 간단한 질문문을 다섯 문장 이내로 제시하였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실제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언을 넣은 대화문을 본문으로 제시하여 현장감을 높였고 본문 아래에 본문에서 사용된 새로운 방언 어휘를 제시하여 학습할 방언을 타나냈다. 세 번째 페이지는 두 번째 페이지를 표준어로 대응시켜 놓아 방언과 표준어와의 관련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교사들이 학습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방언권 화자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네 번째 페이지에는 본문에 제시된 방언형에 대응하는 표준어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지역 방언형들을 나열해 줌으로써 지역이나 화자에 따라 사용하는 방언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본문에 사용된 방언 문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문법 구조를 제시하고 이것이 사용될 수 있는 실제 문장을 제시하여 실제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 번째 페이지에서는 학습활동으로 듣기, 따라하기, 활용하기 등을 넣어 연습해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방언을 응용하여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인 여섯 째 페이지에서는 모형 1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문화를 소개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여기에서는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내용과 다른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다문화 가정에는 이질적인 문화에서 성장한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충돌로 인한 갈등 양상이 자주 나타나는데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통하여 다문화 가족들이 겪는 갈등 양상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제1과 애기가 자꾸 울어요.



1. 애기가 왜 울까요?
2. 애기가 울 때 어떻게 할까요?
3. 애기가 울면 어떻게 재우나요?

## 방언

며느리 : 애기가 자꾸 울어요.

시어머니 : 젖은 뭍었니?

며느리 : 네, 조금 전에 뭍었어요.

시어머니 : 오줌 샀는가 보다.

기저구는 갈아 줬니?

며느리 : 어머니님, 응가 했네요.

시어머니 : 아이구, 우리 애기 응가했구나.

어여 셋구 자자.

이미야, 대야에 따뜻한 물 줘 떠 와라.

며느리 : 네.

시어머니 : 아이구, 이눔 참 시원하겠다.

기저구 차구 업자.

이미야, 퍼대기 줘 가주 와라.

자장 자장 자장 우리 애기 .....

### 새로운 어휘

애기  
젖  
뭍이다  
지저구

어여  
이미  
이눔  
퍼대기



## ♥ 사람마다 달라요

1. 아기 → 애기
2. 따뜻하다 → 따뜻하다
3. 먹이다 → 기른다 길러다 길른다 메킨다 멕이다 미킨다 믹이다 치다 키운다
4. 기저귀 → 기저구 기저기 기지개 지저구 지저기
5. 포대기 → 퍼대기 포데기

## ♥ 재미있는 방언 표현

1. N+~을/를 멕이다 → (표준) N+~을/를 먹이다
  - 우유를 멕이다
  - 이유식을 멕이다
  - 밥을 멕이다
2. N+~가주 와라 → (표준) N+~가져 와라
  - 가서 물 좀 가주 와라
  - 저기 책 좀 가주 와라
  - 내게 성적표 좀 가주 와라
3. V+~구 → (표준) V+~고
  - 집에 가서 얼른 밥부터 먹구 하자
  - 여기부터 고치구 가자
  - 전화부터 받구 올테니 잠시 기다려라

**잘 듣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1. 아기에게 젖을 \_\_\_\_\_.
2. 아기가 응가를 해서 \_\_\_\_\_을/를 갈아 줘요
3. 방이 깨끗하고 \_\_\_\_\_ 좋아요.

< 보기 >

업어요	씻어요	먹어요	재워요	포대기	기저귀
장난감	우유	축다	덥다	따뜻하다	

**다음 말을 따라 해 보세요.**

1. 선생님 : 추운 날씨인데도 애기를 피대기에 업고 밖으로 나갔어요.  
학 생 :
2. 선생님 : 간호사가 환자에게 죽을 멍이고 있어요.  
학 생 :
3. 선생님 : 물 좀 먹구 하게 얼른 가서 물 좀 가주 와라  
학 생 :

**활용해 보세요.**

가 : 어머님, 애기가 자꾸 울어요.  
나 : 젖은 멍였니?  
가 : 젖두 멍이고 기저구두 아까 갈어 줘는데 ……  
나 : 그래두 몰르닝께 또 한 번 봐라.  
가 : 아이고, 어머님 애기가 응가 했어요.  
기저구 갈아 조야 되겠어요.

## 아기 키우는 방법도 가지가지

한국에서는 아기의 머리를 좋게 하고 근육을 발달시키는 많은 놀이가 예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우선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동작을 반복하는“도리도리”와 두 손바닥을 마주치는 동작을 반복하는“짜짜꿍”그리고 아기의 왼손바닥에 오른손 집게손가락을 붙였다가 뗐다가 하는 동작을 반복하는“곤지곤지”, 두 손을 쫓다가 뺐다가 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죄암죄암(쫓쫓)”등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놀이 중 “곤지곤지”라는 놀이는 필리핀에서 “죄암죄암(쫓쫓)”이라는 놀이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나쁜 뜻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금기시하고 아기들에게는 절대로 쓰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모두 아이들 성장 발육에 좋은 건전하고 재미있는 대표적인 놀이들이랍니다.

이밖에도 아기들을 키우는 방법은 각 나라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이는 데 중국에서는 빨간색이 복을 불러오는 것으로 여겨져 빨간색 기저귀를 사용하고, 악귀를 쫓는데 효험이 있다고 해서 복숭아나무를 깎아 칼 모양으로 만들어 아기 목에 매달아 준답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에서는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악귀를 쫓는 의미에서 갓난아기 머리맡에 부엌칼이나 식칼을 가져다 두는 풍습이 있다고 하네요. 참 다양하고 재미있지요? 이렇듯 각 나라마다 다른 풍습들이 있지만 아기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행동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 VII. 방언 한국어 교재의 목차 내용

방언 교재를 개발할 때 어떤 상황 혹은 어떤 주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설문 조사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 정하고 각각의 주제별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각 상황 별로 필요한 어휘, 표현, 문법 정보를 제공하려 하였다.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표로 보이던 다음과 같다.

장 소	주 제	상 황	어 휘	표 현	문 법
1. 집안에서	1-1. 인사하기	1-1-1. 아침, 저녁 인사 (만나고 헤어질 때) 1-1-2. 고마움 1-1-3. 축하	칭찬, 도움, 행사(생일, 개업, 취업, 시험합격, 결혼, 출산, 졸업, 입학 등), 낮, 밤 등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안녕히 주무세요 고마워요(감사해요) 축하해요 오래사세요, 건강하세요	
	1-2. 음식 차리기	1-2-1. 재료 준비하기 (여보 콩나물 줌 다듬어 주세요.) 1-2-2. 요리하기 (어휘 설명 시 볶음, 탕 등을 설명) 1-2-3.상차리기 1-2-4. 설거지하기 1-2-5. 식사하기(식사에절)	주방, 음식주문, 배달(잡채, 탕수육, 자장면, 짬뽕, 우동, 울면 등), 식기류(대접, 밥그릇, 프라이팬, 주전자, 수저, 포크, 컵, 접시, 사발 등), 설거지용품(수세미, 건조대, 주방세제 등), 반찬의 종류(콩자반, 김치, 김별식 등), 장류(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 등), 양념(소금, 설탕, 간장, 고춧가루, 후추, 식초, 참기름, 식용유 등), 국, 찌개, 행주 등	조리방법( 갈다, 굽다, 끓이다, 다지다, 무치다, 반죽하다, 볶다, 부치다, 삶다, 썰다, 양념을 하다, 익히다, 자르다, 절이다, 찌다, 튀기다, 거품을 내다, 껍질을 벗기다, 물로 씻다, 다듬다 등), 맛(짜다, 달다, 맵다, 시다, 쓰다, 싱겁다 등)	-어 주다 / -고 나서 -(으)면 되다, -어도 되다 동사의 관형형 : -(으)ㄴ / 는 / (으)ㄹ수단 : -(으)로
	1-3. 가사	1-3-1. 청소하기 1-3-2. 빨래하기 1-3-3. 다림질하기	청소기, 빗자루, 걸레대걸레, 쓰레받기, 세탁기, 빨래대, 빨래집게, 다리미, 다리미판, 옷걸이, 분무기, 먼지털이, 빗설거지, 섬유유연제, 락스 등	삶기, 걸레질하기, 빨래 널기 등	-게 / -고 있다 -(으)ㄴ 지 -이/가 되다 -보다
	1-4. 자녀양육	1-4-1.목욕 시키기 1-4-2.기저귀 갈기 1-4-3.우유, 이유식 먹이기 1-4-4.안아 주기 1-4-5.업어 주기 1-4-6.아이 재우기(자장가) 1-4-7.놀이 주기(자장가, 놀이방법)	대야, 세수비누, 수건, 빨래비누, 분첩, 베이비 로션, 포대기, 팔랑이, 이유식, 모빌, 보행기, 분유, 우유병, 간지젓꼭지, 놀이(곤지곤지, 잼잼, 깍궁, 동개동개, 짹짹 등)	기저귀를 갈다 따뜻한 물을 가져오다. 응가를 하다 젓을 먹이다. 오줌을 싸다. 시원하다. 포대기로 업다 자장가를 부르다 놀이를 하다	-(으)려고 / 가져오다 -도록 하다 사동표현
	1-5. 아플 때	1-5-1.체했을 때 1-5-2.머리 아플 때	상비약품(소화제, 두통약, 포비돈, 거즈, 탈지면, 소독	민간요법(손따기, 두드려 주기, 배밀기, 찜질하기,	-(으)ㄹ 때 빈도부사

		1-5-3.배 아플 때 1-5-4.목 아플 때	약, 파스, 대일밴드 등), 바늘, 모과차, 보리차 등	따뜻한 물 마시기, 수지침 놓기 등)	-게 하다
	1-6. 취미	1-6-1.티비보기 1-6-2.인터넷하기 1-6-3.운동하기 1-6-4.낚시하기	TV(디지털, 아날로그, 벽걸이, 리모콘, 채널 등), 조깅, 줄넘기, 맨손체조, 취미, 드라마, 뉴스, 버라이어티, 쇼, 오락프로그램, MBC, KBS, SBS, 케이블, 채팅, 방송순서, 정보찾기, 홀라우프, 수영, 뱀낚시, 낚시대 등	채널을 돌리다 텔레비전을 켜다 텔레비전을 끄다 운동을 하다 운동 구경을 가다 땀이 나다.	-중이다 / -는 중이다 -자마자 -(으)ㄴ적이 있다 / 없다
2.시장	2-1. 물건 고르기	2-1-1.옷 고르기 2-1-2.신발 고르기 2-1-3.화장품 고르기 2-1-4.음식재료 고르기 2-1-5.과일 고르기 2-1-6.주방용품 고르기	유행, 패션, 원피스, 투피스, 미니스커트, 핫팬츠, 스카니진, 비니, 청바지, 하이힐, 운동화, 구두, 치수, 스킨, 로션, 크림, 립스틱, 네일아트, 사과, 바나나, 배, 복숭아, 포도, 수박, 수량단위, 컵, 칼, 도마, 나물, 채소, 고기, 생선 등	너무 커요. 너무 비싸요 초록색으로 주세요. 요즘 유행하는 것으로 주세요 맛있는 것으로 주세요. 골라 주세요. 얼마예요? 치수가 어떻게 되죠?, 보여 주세요	-이 / 가 어때요? -어 / 아 보다
	2-2. 물건 사기	2-2-1.흥정하기 2-2-2.계산하기 2-2-3.영수증 받기	수와 관계사,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시장, 마트, 동대문, 덩, 깎기, 가격, 현금계산, 카드계산, 잔돈, 거스름돈 등	얼마예요? 깎아 주세요. 카드로 할게요. 현금영수증 주세요. 거스름돈 주세요. 덤으로 더 주세요	-(으)로 하다
3.병원	3-1. 접수하기	3-1-1. 개인병원 접수하기 3-1-2. 종합병원 접수하기 3-1-3. 보건소 접수하기	몸무게, 키 말하기, 의료보험카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환자 등	손님이 많아요?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의료보험증 주세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키와 몸무게 좀 말해 주세요 키와 몸무게를 재다. 오신 적 있으세요?	-(으)려면 -(으)로 가세요
	3-2. 증상 설명하고 진료받기	3-2-1. 신체 부위 증상 3-2-2. 설명하기 3-3-3. 주사 맞기	신체 부위(눈, 코, 입, 귀, 볼, 머리, 어깨, 무릎, 발, 다리, 목, 배 등)	주사 맞아야 해요? 머리가 아파요. 약 길게 주세요	-(으)면 안 되다 -(은)ㄴ 걸 보니까 -(으)ㄴ 모양이다
	3-3. 약국가기	3-4-1.처방전 주고 약타기 (복용방법 설명 듣기)	증상, 식전, 식후, 내복약, 물약, 알약 등	약 주세요 얼마예요? 하루에 세 번 식후에 드세요. 여기 처방전 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시간)에 - 번 -아 / 어도 괜찮다

4. 공공기관 (은행 등)	4-1. 은행 이용하기	4-1-1.통장 만들기 4-1-2.입금하기 4-1-3.송금하기 4-1-4.적금 들기 4-1-5.공과금 내기	대기표, 경비, 차임벨, 창구 번호, 입출금표 작성하기, 현금인출기, 현금카드, 환율, 유니폼, 도장, 신분증 등	통장을 만들고 싶어요. 신분증하고 도장 주세요. 돈을 입금하고 싶어요. 돈을 보내고 싶어요. 저축을 하고 싶어요. 세금 내려 왔는데요. 얼마예요? 손님, 여기 다 됐습니다.	-(으)시겠습니까? -고 싶다 -는 게 좋다 -(은)ㄴ/는 게 아니라
	4-2. 우체국 이용하기	4-2-1.통장 만들기 4-2-2.입금하기 4-2-3.송금하기 4-2-4.출금하기 4-2-5.적금 들기 4-2-6.공과금 내기 4-2-7.소포보내기	우편물(소포, 택배, 일반우편, 등기우편, 속달, 전보, 축전, 박스, 우편요금, 우표, 우체부, 우체통 등)	소포를 보내고 싶은데요. 며칠이나 걸려요? 얼마예요?	-(으)시겠습니까? -고 싶다 -는 게 좋다 -(은)ㄴ/는 게 아니라 -(으)로 해서
	4-3. 동사무소 이용하기	4-3-1. 증명서 발급 받기 4-3-2. 신고하기 4-3-3.보조금 및 수당 신청하기	어휘 주기, 결혼, 출생, 사망, 등본, 초본, 본적, 호적,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증명서 발급 받으러 왔는데요? 몇 통 해 드릴까요? 주민등록증 주세요. 얼마예요? 몇 통이 필요해요?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어디에 사세요?	-(으)시겠습니까? -고 싶다 -는 게 좋다
5. 버스 이용하기	5-1. 버스 이용하기	5-1-1.노선(번호) 물어보기 5-1-2.요금 물어보기 5-1-3.안내 방송 듣기	카드, 현금, 노선도, 상행, 하행, 도착, 버스번호, 현금, 정류장, 시내버스, 시외버스, 좌석버스 등	어디까지 가나요? 어디로 가나요? 언제 출발해요? 언제 도착해요? 버스카드도 돼요? 요금이 얼마예요?	-(으)ㄴ 지 않다/모르다 -에서 내리다
	5-2. 택시 이용하기	5-2-1.목적지 말하고 요금 물어보기 5-2-2. 택시 부르기(예약하기)	미터기, 승차거부, 합승, 콜 택시 등	어디로 가 주세요. 얼마예요? 돌지 말고 곧바로 가 주세요. 교통이 막히니까 돌아서 가 주세요. 차가 많이 막히네요 여보세요 콜택시죠? 어디로 와 주세요 얼마나 걸리나요? 고맙습니다.	-까지 얼마예요? -(으)로 와 주세요
6. 직업	6-1. 취업하기	6-1-1.일자리 알아 보기 (전화, 광고지,무슨 일,월급,시간) 6-1-2.면접보기	직업(공무원, 회사원, 일용직), 공장, 식당, 농장, 전단지, 광고지, 신문, 인터뷰, 전화, 월급, 시간 등	무슨 일을 하나요? 직업이 뭐예요? 어디에서 일하세요? 몇 시간이나 일하나요? 월급을 얼마나 받나요?	-(으)면 좋다/싫다
	6-2. 일하기	6-2-1. 공장에서 일하기 6-2-2.식당에서 일하기 6-2-3.밭에서 일하기	아르바이트	무슨 일을 하나요? 직업이 뭐예요? 어디에서 일하세요?	

		6-2-4.과수원에서 일하기 6-2-5.학원에서 일하기		몇 시간이나 일하나요? 월급을 얼마나 받나요? 한 시간에 얼마인가요?	
7. 문화	7-1. 결혼	7-1-1.부조하기 7-1-2.피로연 참석하기 7-1-3.폐백 받기	축의금, 신랑, 신부, 하객, 뷔페, 덕담, 청첩장, 사진, 폭죽 등	축하합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조는 어디에서 하나요? 신부가 참 예쁘군요. 하객이 참 많군요. 폐백은 어디에서 받나요? 청첩장이 참 예쁘네요. 사진을 찍읍시다.	-기로 하다
	7-2. 임신· 출산	7-2-1.입덧할 때 7-2-2.태교 7-2-3.금기 사항 7-2-4.산후 조리	미역국, 닭, 오리, 오징어, 음악, 리미즈 호흡법, 금줄, 고추, 호박 등	입덧이 너무 심해요. 요즘 태교 중이에요. 오리를 먹지 마세요. 예쁜 것만 봐요. 1주일 동안 머리 감지 마 세요.	-(으)ㄴ/는/(으)ㄹ 것 같 다 -아/어/야 하다
	7-3. 생일문화	7-3-1.돌잡이 7-3-2.돌음식 준비하기 7-3-3.환갑 인사드리기 7-3-4.환갑 음식 준비하기	돈, 연필, 실, 경단, 백설기, 돌반지, 덕담, 재롱잔치, 진 갑, 칠순 등	축하합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필을 잡았어요. 아기가 공부를 잘 하겠어요. 많이 드시고 가세요.	-게 생겼다 -처럼/같이 -같다
	7-4. 제사	7-4-1.제사 음식 준비하기 7-4-2.요리하기 7-4-3.상차리기 7-4-4.음식 나눠 주기	제기이름, 절, 대추, 밤, 전, 떡, 배, 사과, 음복	어서 오세요. 음식 좀 나르세요. 절을 하다. 음복을 하다 소원을 빌다	
	7-5. 장례문화	7-5-1.가족 장례 7-5-1.손님 받기 (음식 준비하고 나르기) 7-5-1.상복 입기 7-5-1.금기사항 타인 장례 부조하고 위로하기 장례문화 이해하기 금기사항	부조, 국화, 향, 곡, 상복, 조문, 상주	얼마나 슬프십니까? 머리 감지 마세요. 색깔 있는 옷 입지 마세 요.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VIII. 요약 및 결론

### 1. 요약

#### 1) 학습자의 요구 분석 결과

이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첫째, 방언 교육 및 교재 개발의 필요성

방언을 배울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39.1%로 가장 많았고 조금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27.2%나 되었다. 이에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7.2%까지 포함하면 결혼이민자 절대 다수가 방언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교재로 한국어를 배울 때 어떤 내용이 가장 어려웠느냐는 질문에 책에서 배우는 말과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달라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59.6%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책을 통해서 주로 표준어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실제 생활에서는 지역 방언 등을 사용하고 있어 배운 것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 향후 한국어 교재 개발 시 실제 언어 생활에 필요한 방언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가족과 이야기하는 것이 싫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말을 못 알아 들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방언 사용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방언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역시 방언 교육 및 방언 교재 개발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생활에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말이 안 통해서라고 응답한 것도 방언을 포함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가기 싫은 장소를 묻는 질문과 그 이유에 대해 병원 등이 가기 싫고 그 이유로는 사람들과 말이 안 통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49.1%로 가장 많았다는 점도 방언을 포함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방언을 못 알아들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많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9.6%로 가장 많았다. 이에 조금 있다고 응답한 경우 38.3%와 아주 많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14.3%를 포함하면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생활에 필요한 방언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해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방언을 배운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35.7%로 가장 많았다. 이에 거의 없다 23.8%와 조금 있다 33.2%를 더하면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이 방언 교육 경험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방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던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과 연관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즉 방언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방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다.

만일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방언 한국어 교재를 개발한다면 전라, 제주, 경북 등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부터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둘째, 방언 교재 개발 시 교재 반영 내용 및 영역 등

자주 가는 장소로 시장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9.2%로 가장 많았고 다문화센터, 친구 집 학교 순으로 많이 응답하였다. 이는 향후 방언 한국어 교재를 개발함에 있어 교재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어디에서 방언을 많이 듣는지를 묻는 질문에 시장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6.9%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TV 드라마라고 응답한 경우가 22.2%이었고 마을회관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7.2%, 음식점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13.8%나 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향후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 시 시장에서의 상황과 음식점에서의 상황 등을 교재 내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교재에서 배운 말과 제일 다르게 말하는 가족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라고 응답한 경우가 29.8%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시할아버지, 시할머니라고 응답한 경우도 13.3%나 되었다. 이를 통해 주로 시댁의 어른들이 방언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방언 한국어 교재를 개발한다면 이러한 시댁 어른들과 관련된 상황을 교재에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가족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36.2%로 가장 많았다. 이를 통해 한국어 교육에서 어휘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명절 때나 제사 때 쓰는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조금 안다고 응답한 경우가 35.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26.1%,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17.5%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참고하면 대다수의 결혼이민자들이 명절이나 제사 때 쓰는 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 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국 문화 중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는 제사 문화라고 응답한 경우가 26.3%로 가장 많았고 예절 문화라고 응답한 경우와 장례 문화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23.0%이었다. 이러한 문화 교육에 대한 부분도 교재 개발 시 적극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한국어가 도움이 된 경우에 대해서는 가족과 이야기할 때라고 응답한 경우가 40.1%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자녀를 교육할 때라고 응답한 경우도 14.8%나 되었다. 이와 관련한 내용들도 교재 내용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말을 잘 하려고라고 응답한 경우가 41.1%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14.4%이었고 취직해서 돈 벌려고라고 응답한 경우도 16.9%나 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내용도 향후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 시 그 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과 관련해서는 그 영역을 말하기/듣기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된다. 이는 방언을 배운다면 어떤 영역을 배우고 싶은지를 묻는 질문에 말하기라고 응답한 경우가 64.0%로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듣기라고 응답한 경우도 35.1%나 되었다. 이에 대해 읽기라고 응답한 경우는 8.8%이었고 쓰기라고 응답한 경우도 12.1% 밖에 되지 않았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종합하면 결혼이민자의 경우 방언 교육에 있어 읽기/쓰기 보다는 말하기/듣기에 대해 교육 받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셋째, 방언 교육 시간, 교사 등

한국어는 현재 일주일에 두 번, 두 시간씩 배우고 있는데 향후 일주일에 네 번, 두 시간씩 배우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가 29.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세 번, 두 시간씩, 두 번 두 시간씩 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각각 26.3, 25.4%나 되었다. 이 응답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보다 많은 시간 동안 한국어를 배우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요구를 어떻게 교육 과정에 반영할 것인가는 문제로 남는다.

또 다른 요구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에 오기 전 한국어를 배운 기간은 3개월 미만이 절대적이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운 기간은 1년 미만이 대다수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어 숙달도에 대해서는 조금 잘 한다, 조금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를 참고하면 향후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로 누구에게 한국어를 배우는지를 묻는 질문에 기관 혹은 단체 선생님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6.9%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방문 선생님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26.1%나 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이들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 모르는 한국말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남편에게 물어본다고 응답한 경우가 59.3%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남편에게 물어본다고 응답한 경우도 65.4%로 절대적이었다. 이를 통해 남편을 방언을 포함한 한국어 교육에 적극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2) 교사의 요구 분석 결과

방언 한국어 교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은 한국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설문 대상 한국어 교사들은 이주민센터나 교육기관의 교사나 방문 교사들이다. 이들 한국어 교사들은 이주여성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교사들의 의견은 학습자들의 의견과 함께 한국어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1) 교사들의 분포와 특성

설문에 응한 교사들의 분포는 충청도 22명, 경상도 21명, 전라도 22명, 제주도 10명이어서 각 방언권을 고루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사들의 한국어 교육 경력은 절반 가까이가 1년

미만이고 3년 미만은 전체의 80%를 상회한다. 이는 결혼 이주여성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시점과 일치한다. 한국어를 전공하지 않은 절대다수의 교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2) 학습자들의 방언 이해도 평가

한국어 교사들은 결혼 이주여성들이 대체로 방언을 조금 알아듣거나 알아듣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고(76.7%) 잘 알아듣는 학습자들은 20%에도 못 미친다고 보고 있다. 자연스럽게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이주여성의 대다수가 조금 하거나 못 하는 것으로(80.5%) 나타났다. 방언 어휘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결혼 이주여성들이 방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방언권별로 방언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학습자들의 방언 접촉 장소

교사들이 볼 때 이주여성들이 방언을 가장 자주 접하는 장소는 집이고 그 다음이 시장인데 각각 90.7%와 74.7%로 나타났다. 다음은 친구 집과 마을회관 그리고 식당 등에서도 많이 듣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집이나 시장보다는 적었다. 이러한 사실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방언을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어 교재에도 이런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 (4) 학습자들의 방언 학습 필요성과 이유

이주여성들이 방언을 학습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교사가 절대다수였다(90%). 그리고 이들이 방언을 학습해야 할 이유로는 가족이나 이웃들과의 대화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으로 꼽았다. 방언 학습이 일상생활에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응답 교사들의 30.6%는 이미 자체적으로 방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방언 학습 시기와 정도

한국어 교사들은 방언 학습의 적당한 시점은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이 중급일 때(47.9%)와 초급일 때(37.0%)라고 응답하여 한국어를 이해하는 시기부터 생활에 필요한 방언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방언 학습 시기를 표준어 학습이후에 실시하거나(53.4%) 표준어와 동시에 가르쳐야 한다(43.8%)고 여기는 것과 관련된다. 자연스럽게 방언 학습을 위한 교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비율도 절반 이상인 52.7%나 되었다. 그리고 방언 학습 시간은 한국어 교사의 절반 정도가 일주일에 한 번씩 두 시간 정도가 적당하다(48.6%)고 보고 있다. 방언을 가르치기 위한 교재는 말하기(65.3%)와 듣기(44.0%)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현장 교사들은 방언학습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한국어 학습의 주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 (6) 이주여성들이 어려워하는 점

이주여성들은 한국생활에서 말이 안 통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86.7%)고 여기고 있으며 그 다음이 외로워서(53.3%)와 친구가 없어서(25.3%)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이 가장 시급하고 다음이 외로움을 해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어 교재에 이런 내

용을 반영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 (7) 이주여성들의 갈등 요인

이주여성들은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것(50.7%)을 가장 싫어했고 배우자가 결혼 전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37.3%)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등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것도 큰 요인으로 꼽았다(34.7%). 이 외에도 자녀 양육 방법의 차이도 갈등 요인의 하나이고 친구를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꼽아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남편(51.4%)과 시어머니(37.8%)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와 관련지어 볼 때는 한국의 예절문화를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65.3%) 그 다음이 제사문화(38.7%)였으며 이어 음식문화(24.0%)도 이해하기 어려워했다는 것은 이러한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교재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8) 이주여성들의 생활공간

이주여성들이 집 이외에 가장 많이 가는 곳은 시장과 다문화센터라고 보고 있다. 시장은 이주여성들이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다문화센터는 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곳이고 설문이 이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과는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 외에 친구의 집에도 자주 가고(48.0%) 병원도 종종 이용하는 것(24.0%)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방언 한국어 교재를 편찬한다는 이들 생활공간에서의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한국어 교사들은 이주여성들이 한국 생활에서 가장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한국어 소통 능력을 길러주되 표준어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방언 학습도 부수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고 있다. 그리고 방언 교육을 위해서는 이주여성들의 생활공간을 고려하여 교재 내용을 구성하고 이주여성들이 겪는 문화적인 갈등을 해소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방언 교육이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표준어 교육의 보조적인 영역이 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 3) 방언 한국어 교육 및 교재의 필요성 분석

### (1) 방언 한국어 교육 필요성과 거주지 교차분석

1)에서는 거주지와 방언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논의를 통해 경남은 평균 요구 수치와 비슷한 78.5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고, 경북은 평균 수치보다 조금 많은 80.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남은 88.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전남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대부분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제주의 경우 역시 85.4%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대다수의 결혼이민자들이 방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충북은 평균 요구 수치와 비슷한 78.24%의 요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참고하면 방언의 특성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경북, 전남, 제주 등에서 방언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방언 한국어 교육 필요성과 방언권별 교차분석

2)에서는 1.에서 논의되었던 방언권을 더 큰 방언권으로 확대하여 한국어 교육 필요성과의 상관성을 살펴 본 경우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부 방언권에서는 58.8%, 경상 방언권에서는 79.4%, 전라 방언권에서는 88.9%, 제주 방언권에서는 85.4%가 방언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방언 한국어 교육 필요성과 광역 방언권별 교차분석

3)은 2)를 더 크게 구분하여 중부 방언권과 남부 방언권으로 구분하여 그 필요성을 확인한 경우이다. 이는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과 먼 지역 간에 필요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이다.

중부 방언권의 경우는 58.8%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고 남부 방언권의 경우는 71.3%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남부 방언권 화자들이 더 방언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4) 방언 한국어 교육 필요성과 체류 기간 교차 분석

4)에서는 한국에 체류한 기간과 방언 필요성을 비교하였다. 체류 기간 별로 구분해보면 체류 기간 1년의 경우는 66%, 2년의 경우는 62%, 3년의 경우는 80.8%, 4년의 경우는 66.7%, 5년의 경우는 81.9%, 6년의 경우는 92.4%, 7년의 경우는 80%, 8년의 경우 역시 80%, 9년의 경우는 100%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어 체류 기간이 길면 길수록 방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9년 이상의 경우는 응답자 수가 많지 않아 유의미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 (5) 방언 한국어 교육 필요성과 교육 정도 교차 분석

5)에서는 학력과 방언 필요성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먼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는 67.6%가, 초등학교 졸업 이상 중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는 65%가, 중학교 졸업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는 72%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 대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는 88.5%가, 대학교 졸업 이상의 경우는 50%가 방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대학교 졸업 이상의 경우 응답자 수가 적어 유의미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이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방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6) 방언 한국어 교육 필요성과 한국어 숙달도 교차분석

6)에서는 한국어 숙달도에 따라 방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달리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먼저 아주 잘한다고 응답한 경우 84.7%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고, 조금 잘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76.2%가, 조금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77.7%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잘 못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47.4%가, 전혀 못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참고하면 한국어 숙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방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7) 방언 한국어 교육 필요성과 한국어 학습기간 교차분석

7)에서는 한국어 학습 기간과 방언 교육의 필요성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먼저 1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 60%가, 1~6개월이라고 응답한 경우 64.4%가, 6개월~1년이라고 응답한 경우 65.9%, 1~2년이라고 응답한 경우 82.9%가, 2~5년이라고 응답한 경우 88.4%가, 5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 85.7%가 방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면 한국어 학습 기간이 길면 길수록 방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8) 교육 정도와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유 교차분석

8)에서는 교육 정도와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유를 비교하였다. 초등학교 졸업 학력의 경우 한국말을 잘 하려고라고 응답한 경우가 54.3%로 가장 많았다. 다음 중학교 졸업 학력의 경우 역시 한국말을 잘 하려고라고 응답한 경우가 47.5%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대학교 졸업 학력의 경우로 이어져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의 경우는 46.8%가, 대학교 졸업 학력의 경우 역시 53.5%가 한국말을 잘 하려고라고 응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참고하면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한국말을 잘 하고 싶다는 요구에 기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9) 한국어 숙달도와 한국어 교육 기간 교차분석

9)에서는 한국어 숙달도와 한국어 교육 기간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먼저 한국어를 잘 한다고 응답한 경우 교육 기간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잘 못 한다고 응답한 경우와 전혀 못 한다고 응답한 경우 교육 기간이 1개월 미만, 1~6개월에 집중되어 있어 교육 기간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국어 숙달도가 교육 기간 보다 교육 방법 등 다른 교육 환경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 (10) 방언을 사용하는 가족과 방언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 교차분석

10)에서는 교재에서 배운 말과 다른 말을 하는 가족과 방언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참고하면 제일 다르게 말하는 가족인 시할아버지·시할머니와 시아버지·시

어머니 때문에 방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 방언 교재 모형

방언 교재는 두 가지 유형으로 모색해 보았다. 이는 방언 교재에 대한 개발이 처음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다양한 모형을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모형을 중심으로 교재 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다. 방언 한국어 교재가 한국어 교육을 위한 주 교재가 되기보다는 보조 교재로서 활용하거나 주 교재에 방언 한국어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모색해 본 교재의 모형은 두 가지였다.

교재 모형 1에서는 첫 페이지에 삽화와 간단한 질문을 제시하고, 두 번째 페이지에 방언 관련 대화와 새로운 어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에 관련 표준어 자료를 대화와 새로운 어휘로 제시하였다. 네 번째 페이지에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방언형과 다양한 방언 표현을 제시하였다. 다섯 번째 페이지에는 듣기, 말하기와 관련해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였고 여섯 번째 페이지에는 쉽게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위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교재 모형 2는 교재 모형 1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 구성 방식을 다르게 하였다. 방언 표현을 문법 정보를 중심으로 하여 연습하게 한 것, 그리고 연습 문제를 두어 함께 연습해 보고 실제 활용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한 것 등이 다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 2. 결론

이 연구는 현재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과 그들을 가르치는 한국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의 타당성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교재를 어떻게 구성하고 편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것이 목표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요구조사와 한국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요구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 체류기간이 짧은 편(1-3년이 대부분)이고 충분한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사회에 적응해야 함으로써 비롯되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데 따른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표준어로 한국어를 학습하는데 비해 실제 생활에서는 방언으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배운 것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이나 마을회관, 음식점 등에서 방언을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이민자 절대 다수가(75.5%) 방언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방언학습의 기회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할 때 방언 교육도 매우 필요하고 교재도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언 한국어 교재에는 이주여성들의 생활공간과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실제 생활과 밀접한 지역방언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교재는 방언권을 고려하여 방언권별로 편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커다란 갈등 가운데 하나가 문화적인 갈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문화 특징인 예절 문화나 제사문화 등을 교재의 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시댁어른들과 관련된 상황을 교재에 반영하는 것도 의사소통을 수월하게 하는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방언 한국어 교재의 단원 구성은 방언의 다양성과 방언권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방언 한국어 교재는 한국어 교육에서 방언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부교재로 편찬하거나 주교재의 일부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교재의 수준은 한국어 학습 기간이 길고 한국어 수준이 높아질수록 방언 학습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점을 고려하여 방언 한국어 교재 수준은 한국어 능력 중급 이상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 IX. 사업의 기대 효과

### 1. 향후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향후 방언을 통한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지역 사회의 경우 시부모님이나 이웃들이 주로 방언을 사용함에 반해 이주 여성들의 경우는 표준어로 된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다. 이에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는데 적극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2. 이주여성을 위한 방언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의 기초자료 활용

향후 이주 여성에 대한 방언 한국어 교육 과정을 1년 몇 학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주별 몇 시간 강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집합 교육이 적합한지 방문 교육이 적합한지 등을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3. 이주 여성을 위한 지역어 교육의 필요성 제고

이 사업을 통해 지역 거주 이주 여성의 경우 거주 지역의 방언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필요함을 보일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농촌 지역인지 어촌 지역인지까지를 고려한 방언 교육의 필요성을 제고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

### 4. 지역 사회 통합을 위한 지역 문화 이해의 필요성 제기

다른 집안의 경조사에 마치 자기 집안의 일처럼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등을 이해하지 못해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이러한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갈등을 빚는 경우를 중심으로 같은 상황의 경우 우리 문화와 이주 여성의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이며 한국 남편의 경우 왜 아내가 그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고 이주 여성의 경우는 왜 남편이 것처럼 행동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자료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5. 이주여성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재개발 자료로 활용

기 개발된 이주 여성에 대한 한국어 교재의 경우 현지 요구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현지 상황과 동떨어진 내용들이 포함되는가 하면 교재 간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어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에 본 사업을 통해 기 개발된 한국어 교재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또 현지 교사와 이주 여성의 요구 조사를 반영하여 실제적인 맞춤형 교재를 개발하는 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부록1 [학습자용 설문지]

※ 아래의 질문에 빠짐없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거주 지역	( )도 ( )시/군 ( )동/면
출신 국가 이름	( ) 한국에 오기 전 성장지 도시, 농촌, 어촌, 기타
출생 년도	( )년 배우자 출생 년도 ( )년 ( )살
자녀 수	( )명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년 ( )개월

※ 다음 질문을 읽고 묻는 말에 사실대로 빠짐없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주부                      ② 농업(과수원/논·밭일)                      ③ 어업(고기잡이/양식)  
 ④ 생산직(공장)              ⑤ 서비스업(식당 등)                      ⑥ 전문직(강사)                      ⑦ 기타

2. 배우자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일 안 한다              ② 농업(과수원/논·밭일)                      ③ 어업(고기잡이/양식)  
 ④ 생산직(공장)              ⑤ 서비스업(식당)                      ⑥ 전문직(강사)                      ⑦ 기타

3. 한국에 오기 전에 학교는 몇 년간 다녔습니까? ( ) 년

4. 배우자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 ① 안 다녔다                      ② 초등학교까지                      ③ 중학교까지  
 ④ 고등학교까지              ⑤ 전문대학(2년제)까지                      ⑥ 대학 이상(4년제)

5. 지금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고르십시오.

- ① 남편                      ② 시아버지                      ③ 시어머니  
 ④ 남편의 형제              ⑤ 자녀                      ⑥ 동서  
 ⑦ 조카                      ⑧ 기타 \_\_\_\_\_

6. 배우자 외에 집안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지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없다                      ② 시아버지                      ③ 시어머니  
 ④ 남편의 형제              ⑤ 자녀                      ⑥ 동서  
 ⑦ 조카                      ⑧ 기타 \_\_\_\_\_

7. 가족 중에서 제일 편하게 이야기하는(대해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없다                      ② 남편                      ③ 시아버지  
 ④ 시어머니                      ⑤ 남편의 형제                      ⑥ 자녀  
 ⑦ 동서                      ⑧ 조카                      ⑨ 기타 \_\_\_\_\_

8. 집안에서 가족들과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내용은 무엇입니까?

- ① 자녀 이야기                      ② 음식, 요리 이야기                      ③ 오늘 있었던 이야기

- ④ 한국어 공부 이야기      ⑤ 시댁 이야기      ⑥ 친정 이야기
- ⑦ 돈 이야기      ⑧ 기타 \_\_\_\_\_

9. 가족 중에서 이야기할 때 누구와 말하는 것이 **제일 싫습니까?**

- ① 없다      ② 남편      ③ 시아버지
- ④ 시어머니      ⑤ 남편의 형제      ⑥ 자녀
- ⑦ 동서      ⑧ 조카      ⑨ 기타 \_\_\_\_\_

(위 9번에서 ①번을 선택한 경우 10번으로 넘어가세요.)

9-1. **왜** 말하기가 싫습니까?

- ① 말을 못 알아들어서      ② 한국문화와 예절을 지키라고 해서
- ③ 자녀를 키우는데 간섭을 해서      ④ 돈을 벌거나 쓰는데 간섭을 해서
- ⑤ 나를 무시하거나 차별을 해서      ⑥ 친정 생각을 안 해 줘서
- ⑦ 기타 \_\_\_\_\_

10. 한국 생활에서 **제일 힘든 것 두 개**를 고르십시오.

- ① 말이 안 통해서      ② 돈이 없어서      ③ 친구가 없어서
- ④ 외로워서(친정 생각이 나서)      ⑤ 음식 맛이 없어서(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 ⑥ 기타 \_\_\_\_\_

11. 부부 싸움을 하면 주로 **무엇 때문에** 합니까? **모두** 고르십시오.

- ① 부부싸움을 안 한다      ② 배우자가 돈을 벌지 않아서
- ③ 배우자가 시부모님 말만 들어서      ④ 자녀 양육과 교육 때문에
- ⑤ 결혼 전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⑥ 내가 친구를 만나는 것을 싫어해서
- ⑦ 남편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서      ⑧ 컴퓨터를 많이 해서
- ⑨ 국제 전화를 많이 해서      ⑩ 무시하거나 차별해서

12. 부부 싸움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 ① 시부모님에게 말한다.      ② 다른 시댁가족에게 말한다.
- ③ 친구에게 말한다.      ④ 상담선생님께 말한다.
- ⑤ 말하지 않고 참는다.      ⑥ 집을 나간다.
- ⑦ 기타 \_\_\_\_\_

13. 설이나 추석, 제사 같은 가족 행사가 **1년에 몇 번**입니까?

- ① 없다      ② 한 번      ③ 두 번
- ④ 세 번      ⑤ 네 번      ⑥ 다섯 번 이상

14. 설이나 추석, 제사 같은 가족 행사에 가족·친척들이 모이면 **무엇이 제일 싫습니까?**

- ① 싫은 것 없다      ② 일을 많이 해서
- ③ 예절을 지키라고 해서      ④ 자녀 교육에 간섭을 해서
- ⑤ 돈을 벌거나 쓰는데 간섭을 해서      ⑥ 친정이나 나에 대해 많이 물어서
- ⑦ 무시하거나 차별을 해서      ⑧ 기타 \_\_\_\_\_

15. 자주 가는 장소 세 곳을 고르십시오.

- ① 없다                      ② 시장                      ③ 친구 집                      ④ 우체국
- ⑤ 은행                      ⑥ 미용실                      ⑦ 다문화센터                      ⑧ 교회
- ⑨ 병원                      ⑩ 마을회관                      ⑪ 어촌계                      ⑫ 노래방
- ⑬ 음식점(식당)                      ⑭ 도서관                      ⑮ 놀이방(어린이집)                      ⑯ 학교
- ⑰ 터미널(기차역, 항구)                      ⑱ 기타\_\_\_\_\_

16. 제일 가기 싫은 곳은 어디입니까?

- ① 없다      ② 시장                      ③ 병원                      ④ 우체국                      ⑤ 은행
- ⑥ 미용실      ⑦ 다문화센터      ⑧ 교회                      ⑨ 터미널(기차역, 항구)      ⑩ 마을회관
- ⑪ 학교      ⑫ 친구 집      ⑬ 음식점(식당)      ⑭ 도서관                      ⑮ 놀이방(어린이집)
- ⑯ 노래방      ⑰ 어촌계                      ⑱ 다 가기 싫다      ⑲ 기타\_\_\_\_\_

(위 16번에서 ①번을 선택한 경우 17번으로 넘어가세요.)

16-1 왜 가기가 싫습니까?

- ① 사람들과 말이 안 통해서                      ② 사람들이 자꾸 쳐다봐서
- ③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차별을 해서                      ④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많이 물어 봐서
- ⑤ 기타 \_\_\_\_\_

17. 한국 문화 중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 ① 예절문화(경어법 · 호칭)      ② 제사문화                      ③ 음식문화
- ④ 결혼문화                      ⑥ 장례문화                      ⑤ 기타\_\_\_\_\_

18. 이웃 주민들과 자주 만나 이야기합니까?

- ① 매일 만나 이야기 한다      ② 자주 만나 이야기 한다      ③ 가끔씩 만나 이야기 한다
- ④ 거의 만나지 않는다                      ⑤ 전혀 만나지 않는다

19. 지역 내의 어떤 단체나 기관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봉사단체                      ③ 종교단체
- ④ 다문화센터                      ⑤ 기타\_\_\_\_\_

20.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를 얼마 동안 배웠습니까?

- ① 배운 적이 없다                      ② 1개월 미만                      ③ 3개월 미만
- ④ 3개월 ~ 6개월                      ⑤ 7개월 ~ 1년 이상                      ⑥ 1년 이상

21. 자녀하고 말할 때 어느 나라 말로 합니까?

- ① 안 한다                      ② 한국어                      ③ 나의 모국어
- ④ 영어                      ⑤ 기타

22. 당신은 한국어를 얼마나 잘 합니까?

- ① 아주 잘 한다                      ② 조금 잘 한다                      ③ 조금 한다
- ④ 잘 못 한다                      ⑤ 전혀 못 한다

23. 한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① 1 개월 미만                      ② 1 ~ 6 개월                      ③ 6 개월 ~ 1년  
④ 1 ~ 2년                            ⑤ 2 ~ 5 년                            ⑥ 5년 이상  
⑦ 기타 \_\_\_\_\_

24. 맨 처음에 **누가** 한국어를 배우라고 했습니까?

- ① 내가(본인이)                      ② 가족이                              ③ 친구가  
④ 이웃이나 주변사람들이        ⑤ 이주민 지원 단체에서        ⑥ 기타 \_\_\_\_\_

25. **왜** 한국어를 배웁니까?

- ① 취직해서 돈 벌려고              ② 한국말을 잘 하려고              ③ 자녀 교육을 하려고  
④ 상급학교에 진학하려고        ⑤ 남편(가족)이 배우라고 해서    ⑥ 집에서 할 일이 없어서  
⑦ 기타 \_\_\_\_\_

26. 지금까지 배운 한국어가 **어디에** 제일 큰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가족과 이야기할 때              ② 시장에 가거나 할 때              ③ 취직할 때  
④ 자녀를 교육할 때                ⑤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⑥ 한국어 능력시험 볼 때  
⑦ 기타 \_\_\_\_\_

27. 한국어를 **누구한테** 배우고 있습니까?

- ① 배우자                              ② 시부모님                              ③ 시댁가족                              ④ 자녀  
⑤ 이웃사람                            ⑥ 친구                                    ⑦ 방문 선생님                            ⑧ 기관단체 선생님  
⑨ 초등학교 선생님                  ⑩ 종교단체 선생님                    ⑪ 안 배운다                              ⑫ 기타 \_\_\_\_\_

28. 한국어 **일주일에 몇 번, 몇 시간씩** 배웁니까?

- ① 일주일에 한 번, 두 시간              ② 일주일에 두 번, 두 시간씩  
③ 일주일에 세 번, 두 시간씩              ④ 일주일에 네 번, 두 시간씩  
⑤ 기타 \_\_\_\_\_

29. 한국어는 **일주일에 몇 번, 몇 시간씩**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 ① 일주일에 한 번, 두 시간              ② 일주일에 두 번, 두 시간씩  
③ 일주일에 세 번, 두 시간씩              ④ 일주일에 네 번, 두 시간씩  
⑤ 기타 \_\_\_\_\_

30. 책으로 한국말을 배울 때 무엇이 제일 **불만**이었습니까? (**두 개**를 고르세요.)

- ① 책에서 배우는 말과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달라서    ② 자녀교육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③ 책에서 배우는 내용과 내가 사는 곳이 달라서    ④ 학습 시간이 너무 적어서  
⑤ 내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없어서        ⑥ 기타 \_\_\_\_\_

31. 내가 책에서 배운 한국말과 제일 **다르게 말하는 가족**은 누구입니까?

- ① 배우자                              ② 시할아버지 · 시할머니              ③ 시아버지 · 시어머니  
④ 남편의 형제                        ⑤ 자녀                                    ⑥ 동서



39. 사투리(방언)를 배운 적이 있습니까?

- ① 아주 많이 있다                      ② 많이 있다                              ③ 조금 있다  
④ 거의 없다                              ⑤ 전혀 없다

40. 사투리(방언)를 배운다면 **무엇을** 배우고 싶습니까? 모두 고르십시오.

- ① 말하기                                      ② 듣기                                      ③ 읽기  
④ 쓰기                                        ⑤ 모르겠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즐겁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 부록2 [한국어 교사용 설문지]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여러분이 한국어 공부하는 데 필요한 방언 한국어 교재를 만들기 위하여 국립국어원의 의뢰로 세명대학교 한국학센터와 한국방언학회가 공동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응답 자료는 한국어 교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만 이용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고 성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 11월 일  
세명대학교 한국학센터장

※ 다음 질문을 읽고 묻는 말에 사실대로 빠짐없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        |         |            |        |
|--------|---------|------------|--------|
| ① 충청북도 | ② 전라남도  | ③ 제주도      | ④ 경상남도 |
| ⑤ 경상북도 | ⑥ 충청남도  | ⑦ 전라북도     | ⑧ 경기도  |
| ⑨ 강원도  | ⑩ 서울특별시 | ⑪ 기타 _____ |        |

2. 한국어 교육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 |         |        |        |        |
|---------|--------|--------|--------|
| ① 1년 미만 | ② 1~3년 | ③ 3~5년 | ④ 5~7년 |
| ⑤ 7년 이상 |        |        |        |

3. 학습자들이 사투리(방언)를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아주 잘 알아듣는다 | ② 잘 알아듣는다      | ③ 조금 알아듣는다 |
| ④ 잘 못 알아듣는다  | ⑤ 전혀 알아듣지 못 한다 |            |

4. 학습자들이 사투리(방언)를 말할 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아주 잘 말할 줄 안다 | ② 잘 말할 줄 안다   | ③ 조금 말할 줄 안다 |
| ④ 잘 말하지 못 한다   | ⑤ 전혀 말할 줄 모른다 |              |

5. 학습자들이 지역에서 자주 사용하는 사투리(방언) 어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아주 잘 알고 있다 | ② 잘 알고 있다    | ③ 조금 알고 있다 |
| ④ 잘 알지 못 한다  | ⑤ 전혀 알지 못 한다 |            |

6. 어디에서 학습자들이 사투리(방언)를 자주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해당되는 곳 세 군데만 고르세요.)

- |                |            |             |        |
|----------------|------------|-------------|--------|
| ① 집            | ② 시장       | ③ 병원        | ④ 우체국  |
| ⑤ 은행           | ⑥ 미용실      | ⑦ 다문화센터     | ⑧ 교회   |
| ⑨ 터미널(기차역, 항구) | ⑩ 마을회관     | ⑪ 어촌계       | ⑫ 친구 집 |
| ⑬ 음식점(식당)      | ⑭ 도서관      | ⑮ 놀이방(어린이집) | ⑯ 노래방  |
| ⑰ 학교           | ⑱ 기타 _____ |             |        |

7. 학습자들이 사투리(방언)를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아주 많이 필요하다 | ② 많이 필요하다 | ③ 조금 필요하다 |
|--------------|-----------|-----------|







※ 아래의 빈 칸에 빠짐없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	( 남, 여 )
나이	( )세
최종학력	고졸( ), 전문대졸( ), 대졸( ), 대학원졸( )
고향	( )도 ( )시/군 ( )동/면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즐겁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연구책임자: 박 경 래  
세명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 곽 충 구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 정 승 철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 김 봉 국  
부산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공동연구원 : 우 창 현  
세명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다문화가정 대상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보고서

---

발행인 이 상 규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827  
전화: 02-2669-9775 팩스 02-2669-9727

인쇄일 2008년 12월 22일  
발행일 2008년 12월 24일  
인 쇄 세명문화사

---